

서울 구룡사 회주 아산 정우 스님
"신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곧 포교입니다."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월 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27호 2013년 2월 13일 수요일

밤은 잠을 즐기라고 있지 않다
부엉이처럼 깨어 있으라.
깨달음을 얻기 좋은 밤이다.
「장로게경」

미국 내 한국 문화재 환수 본격화 전망

미주 한국불교문화원 창립



미국에서 문화재 환수와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미주 한국불교문화원은 2월 3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파인프라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미 동부 불자들과 문화재 환수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Newsroh.com

미국 내 한국 문화재 환수와 불교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 불교단체가 첫 발을 내딛었다.

미주 한국불교문화원은 2월 3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파인프라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문화재 환수 및 한국 불교문화 진흥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초대 회장으로 김정광 준비위원장, 감사에 성태석 공인회계사, 이사에 최한규 씨 등이 선임됐다.

조계종 미 동부 해외특별교구 부교구장 지광 스님(원각사 주지)이 고문으로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지광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문화는 우리 삶의 모습이고 불교 문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투영한 모습이라는 점에서 한국불교문화원의 설립을 크게 반긴다"며 "불교 문화는 불교를 넘어 같은 민족,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혜문 스님은 "뉴욕에 온 이후 우리 문화재의 실태 파악과 관련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고 있다. 마침 미주동포들이 한국불교문화원을 설립해 문화재 환수 운동을 지원하게 돼 더욱 힘이 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정광 회장은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고 그 중추가 불교 문화라는 점에서 불교문화원의 출범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면서 "혜문 스님을 통해 약탈된 우리 문화재 상당수가 미국까지 흘러들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주동포들, 불자들이 앞장서 빼앗긴 우리 문화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미국 반출 문화재 4만여 점
일본 이어 두번째로 많아
불법 문화재 환수 운동 기대
사찰 순례 등 문화 사업도

한국불교문화원은 우리 문화재 환수 운동 외에도 불교 문화 전시 출판 공연을 비롯,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 홍보, 한국 불교 문화 순례, 불교 문화 강좌 및 강연회, 미국 내 불교 문화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미국 현지에서는 한국불교문화원의 출범에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으로 무단 반출된 문화재 환수 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5월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국에는 42,293점의 우리 문화재가 있으며 이는 66,295점을 가진 일본에 이은 두 번째다.

특히 미국에는 국보급 문화재들이 다수 있다. 먼저 중종 왕비인 문정왕후가 사용한 왕실 어보가 LA박물관에 있다. 원래 종묘에 봉안돼 있었는데 한국전 당시 불법으로 미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박물관에는 문정왕후가 발원한 나한도 200점 중 유일하게 남은 오백나한도 덕세위가 소장돼 있다.

하버드대 아서 새클리 뮤지엄에는 지장경 금니사경이 있으며 보스턴 미술관에는 부처님 진신사리와 지공, 나옹 스님의 사리를 모신 사리구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채 있다.

초대 수장으로 선출된 김 회장은 2009년부터 혜문 스님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로 미국에 불법 반입된 우리 문화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 회장은 메릴랜드의 국가기록보존소에서 약탈문화재에 관한 중요한 문서들을 찾아냈고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된 부처님 진신사리와 사리구의 존재를 확인, 이의 반환을 요구했는가 하면 LA 박물관에 있는 문정황후 어보를 최초 촬영, 세상에 알리기도 했다.

김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향후 한국불교문화원은 문화재환수 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미주동포들과 불자들이 빼앗긴 우리 문화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명절 되세요"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2월 6일 복지관 1층 식당에서 '호호만두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복지관을 장기간 이용한 어르신 40여 명과 충신어린이집 원아들이 직접 만두를 빚어 지역 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관련기사 5면

글=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총림법 · 법인법 현안 법안 통과되나

조계종 중앙종회 3월 임시회 상정 예정 안건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가 3월 19일 오전 10시 제193회 임시회를 개원한다.

중앙종회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들은 2월 5일 제6차 연석회의를 열고 종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193차 임시회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간의 회기로 열리며 의안 접수는 3월 12일까지, 종책질의 접수는 3월 14일까지 이뤄진다.

결산 감사로 진행되는 이번 종회는 총림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월 법안인 법인법 등 종법 제개정과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광제 스님 추대 등의 안건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종헌 개정 및 종법 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총림법 개정안이다.

현재 총림법의 밑그림은 나와있는 상태다. 종단 쇄신위원회가 1월 7일 회의에서 수정 · 의결한 '총림법' 개정안 제안서에 따르면 임회 구성에 있어 임회의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현직 종회의원과 전직 주지, 원로, 비구니 스님(20%), 재가자(10%) 등 사부대중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총림을 선교율 관련 기관을 종합적으로 갖추는 기존 구성과 달리 교구 내 수말사에 관련 기관을 분산 대치 할 것을 제안했다. 총림 주지 선출에 대해서는 임회가 총림주지

3월 19~23일 회기 확정
총림법 · 법인법 제개정안 등
상정 예정… 통과 관심
광제 스님 방장 추대 확정도

를 복수추천하고 방장이 지명하는 방식과 방장이 추천하지만 임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총림법 개정은 종단쇄신위원회 제안을 기반으로 8대 총림에 대한 실사와 공청회, 좌담회 등의 과정을 거치며 적지 않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논란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인법 제정은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법인법은 2011년 총무원장 발의로 상정됐으나 선학원 등 종단 주요 법인들의 반발로 여지까지 이월돼 왔다.

이 같은 계류과정을 거쳤던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는 법인법 제정은 이견은 있겠지만 통과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재)선학원의 반발이 심해 제정 후에도 적용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로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지혜, 초우, 혜정 스님과 종정 진제 스님의 원로의원 추천과 △종립학교관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보선 등의 인사안들도 다뤄진다.

또한 개원일인 19일에는 오후 1시부터 종회의원 자질 향상을 위한 명사초청 강연도 진행된다.

종회의장 향적 스님은 6차 연석회의에서 "총림법, 법인법 등은 종단에 중요한 과제들과 결부되는 만큼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와 종헌종법특위에서 잘 살펴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927호 INDEX

종합 2·3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신년계획
삼장원·염불원 설립 가시화
日도난 불상 왜구 약탈
동대 총동창회 종관위 갈등 심화

신행 6
2030 포교 나선 '우리는 선우'

경주 남산을 오르다 12
신라인의 불성 조성 사상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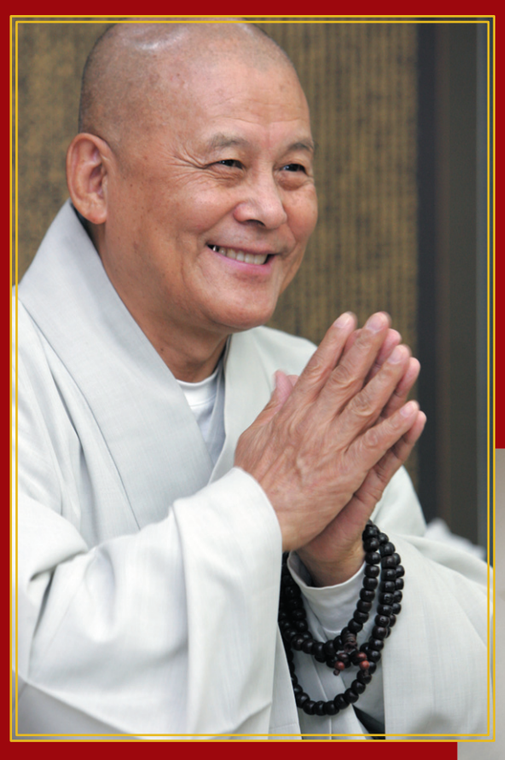
불기255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선정

불기255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로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이 선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2월 7일 이현진(경기도 남양주시)씨가 제안한 봉축표어를 당선작으로 발표했다.

선정 이유에 대해 봉축위원회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정신으로 정진하여 모두 함께 의지하며 희망의 길, 행복의 길을 향해 걸어가자는 뜻"이라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승보살 정신으로 이웃들을 보듬고 우리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자는 의미를 담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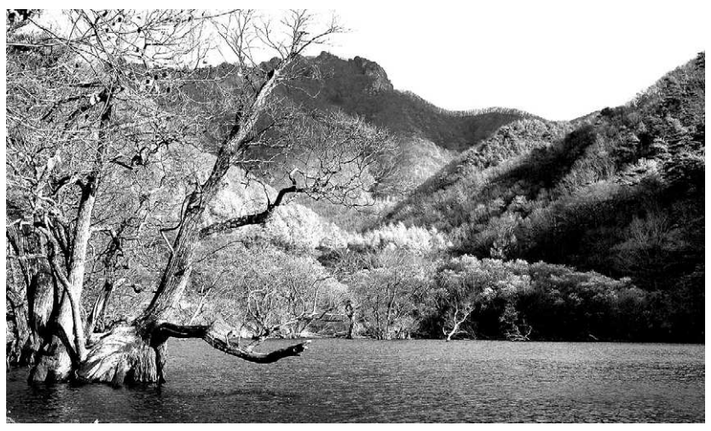
追慕 큰스님! 뵙고 싶습니다
가산지관대종사님열반후409일



사부대중께서 간직하고 계신 대종사님의 행장과 관련된 소중한 자료를 찾습니다 ▪
제1기 고향 청하 유년기와 보경사 · 봉암사 주석기[1932~1950] ▪
제2기 해인총림 주석기(주지 · 강주 재직기)[1950~1970] ▪
제3기 종립동국대학 지도기(교수 및 제11대 총장재직기)[1970~1990] ▪
제4기 가산도량 회향기[1991~2011] ▪
제5기 제32대 총무원장 수행기[2005~2009] ▪
*특히 열반에서 다비장까지[2012년 1월 2일~6일]의 특별한 영상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서울시 창경궁로26길15(명륜4가206-6)
TEL 02)765-9602~3 FAX 765-5673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흩어짐 없이 성스러운

다르마를 수행해야 하리니

죽은 뒤에 네가 가는 길을 안내하리라.

건강과 힘을 가진 젊은 날의 전성기에는 보다 즐거운 인생을 원합니다.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최대한 행운과 힘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몇 명은 오직 그들만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죽음의 순간 우리는 이 모든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던 삶이 공허함을 깨닫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죽음을 유혹하여 피할 수 없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한들 뇌물로 죽음을 살 수 없고, 권력을 가진 사람일 지라도 그 힘으로 한순간이나마 죽음을 누를 수는 없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의 부름 앞에서는 복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죽음도 장군도 무장해제시키니 막강한 무기로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수행에서 얻은 체험만이 죽음의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서둘러 수행하십시오. 나이가 들어 몸의 기능과 지적 기능이 무너지기 전에 말입니다. 그릇된 생각에 빠지거나 세속의 삶에 어리석게 끌려 다니지 말고, 다르마 수행에 헌신합시다.

우리 자신을 준비합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수행에 정진합시다. 그러면 죽음의 순간에 받은 가르침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종단 개혁 마무리… 종교평화선언 재추진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운영회의 열고 사업기조 밝혀



조계종 결사추진본부는 2월 6일 운영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기조와 예산을 확정했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이하 결사추진본부)이 올해 사업 방향과 기조를 내놨다.

결사추진본부는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해 사업 총평과 올해 추진 사업들을 보고하고 올해 예산을 확정했다.

지난해 사업의 총평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이날 결사추진본부 총재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은 지난 한해 다가온 위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위기를 참회하고 종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결사추진본부가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성과를 다지고 사회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는 종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참회 · 안정 · 쇄신'이라는 기조로 사업을 전개해 온 결사추진본부는 올해 대승불교의 가치를 현대 사회에서 구현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자성과 쇄신 결사가 일선 사찰 현장과 종도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대중공사를 직할교구, 교구본사 단위까지 확대 시행하며, 상 · 하반기 두 차례 야단법석을 통해 한국불교의 근본 문제와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야단법석은 4월과 7월 각각 '바람직한 불교관과 실천론 확립을 통한 의식개혁', '새로운 종단 · 사찰 운영 모델'을 주제로 열린다.

3월 28일 생명평화 1000일 정진 1주년과 8월 9일 500일을 맞아 대승불교에 맞는 신앙 활동이 전 종도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진 운영단을 구축할 예정이다.

호법 · 복지제도 쇄신안 마련

3월 중 승가 청규 제정

1000일 정진 등 유지

"대승불교 현대적 구현 최선"

종단 종무기관의 행정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도 추진된다. 중앙종단 행정 체계에 재정립이 이뤄지며, 교구종회의 구성과 역할, 지방교구 획정 및 교구본사 운영에 대한 쇄신안을 마련한다.

또한 법계에 따라 승려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종단 소임에 대한 자격제도를 정비함으로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호법제도의 변화 역시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결사추진본부는 호법부 자율성 보장을 비롯해 △호법부장 임용 방식 개선 논의 △기소독점 및 남용 제한을 위한 위원회 설치 △호계원 재판 공개 △양형기준 정립 등을 골자로 한 호법제도 쇄신안을 논의 중에 있다. 현재 3차 논의까지 진행됐으며, 간담회와 좌담회 등을 거쳐 3월 중 완성된다.

시대에 맞는 승가 청규 제정도 올해 목표 중 하나다. 청규에는 수행, 생명, 평화, 나눔, 문화 등 5대 결사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르면 3월경 쇄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집행부에 송부될 계획이다.

각 위원회별 세부 사업계획도 발표됐다. 화쟁위원회는 종단 낸 논란으로 유보된 '종교평화선언문' 발표를 재추진하며, 화쟁사상 확산을 위한 아카데미 강좌와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와 북한불교문화재전조사 등을 주도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본부장 도법 스님은 "1000일 정진과 무차대회, 야단법석 등을 통해 새로운 대승불교 운동을 전개하려 한다"며 "대승불교 가치를 현대 사회에 구현하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평창 스페셜 올림픽에 자비를 전하다 2013평창스페셜올림픽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이 시상자로 나서 선수들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시상식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나경원 위원장, 티모시 슈라이버 회장 등과 환담을 가졌다. 사진제공=조계종

한일불교협 부회장에 도정 · 향적 스님



도정 스님



향적 스님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새 부회장에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이 선임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 스님, 이하 한일불교)는 2월 7일 서울 AW컨벤션센터 아젤리아홀에 제33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과 함께 신임 부회장과 상임이사를 선임하고, 올해 사업을 확정했다. 상임이사에는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과 일승종 총무원장 혜정 스님이 선임됐다. 한일불교는 올해 세입 · 세출 예산안을 각각 4억 5,762만 6,158원으로 확정했다. **김주일 기자**

수행 다변화 위한 '삼장원 · 염불원' 설립

조계종 교육원, 제정안 입법예고

안거 수행풍토 다변화를 주장하며 제안한 삼장원과 염불원 설립이 가시화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월 7일 종단 홈페이지에 '삼장원 · 염불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된 '삼장원 · 염불원법'에 따르면 모든 종단 사찰은 경 · 율 · 론 등 삼장과 선어록을 연찬하는 삼장원과 염불과 참법수행을 하는 염불원을 설립할 수 있다. 특히 총림 추진 사찰 내 염불원이 있을 경우 총림의 염불원으로 인정돼 설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안거와 입방 공지, 입방 자격, 청규 등의 세부 내용도 명문화 됐다. 삼장원과 염불원을 운영하는 사찰 주지는 매년 하안거와 동안거 1개월 전 정진할 분야와 교재, 교수, 방부 인원을 공지해야 한다. 승납 7년 이상 스님부터 입방이 가능하다.

삼장원장과 염불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됐으며, 자격은 비구 대덕, 비구니 혜덕 이상의 스님으로 위촉은 운영위원장인 사찰 주지가 한다. 총림의 경우 삼장원장과 염불원장의 임명 권한은 방장에 있다.

법 제정 취지에 대해 교육원은 "'삼장원 · 염불원법 제정안'은 종헌 110조와 111조에 근거한 삼장원과 염불원을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해 종단의 수행 가풍을 진작하고자 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삼장원 · 염불원법'의 입법 예고 기간은 2월 27일까지이며, 관련 의견은 이메일과 서면으로 접수한다. **신중일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926호 5면의 '지관 스님 1주기… 추모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기사 중 '리처드 맥브라이드 하와이대 교수, 요한 조르게센 호주 국립대 교수, 암준현 미시간대 교수, 페트릭 울만' 을 **'리처드 맥브라이드 브링햄 영대 교수, 존 조르겐슨 호주 국립대 교수, 안준영 미시간대 교수, 페트릭 울만 금강대 교수'**로, 〈불교종단발달사〉를 **〈불교교단발달사〉**로 바로 잡습니다. 또한 '보은공원 유지사업' 기사 중 '올해 4차 산문을 신축' 을 **'올해 4차 사업으로 산문을 신축'**으로 바로 잡습니다.

개 테라와다 교

모든 존재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아시아 뿐 아니라 유럽 · 북미 ·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쳐 종교 · 인종 · 문화를 초월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테라와다불교가 한국에서 2009년 10월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제 교학과 수행이 함께하는 『테라와다 담마스쿨』을 개교합니다.

신 입 생 모 집 안 내

* **모 집 대 상 :** 테라와다불교의 가르침에 관심 있는 모든 출 · 재가자 및 일반인
* **개 학 일 : 2013**년 **3**월 **8**일(金) 오후 **2**시
* **학제 및 강좌 :** 2년 과정(4학기), 주 1회 70분씩 3강좌
* **강 의 시 간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50**분
* **교과목 편성**

	1-1학기	1-2학기	2-1학기	2-2학기
제1교시	초기불교 총론	테라와다불교사	빨리어 문법	아비담마 개론
제2교시	테라와다의범 및 신행생활	니까야(초기경전) 강독 I	니까야(초기경전) 강독 II	불교심리상담
제3교시	수행이론과 실제	수행이론과 실제	수행이론과 실제	수행이론과 실제

(방학 중 4박 5일 집중수행 프로그램 운영)

* **강사진**
아짠 진용 빤냐와로(한국테라와다불교 이사장) · 냐나로까(경주 마하보디 선원장)스님, 정원 김재성(명상의 집 '자애' 지도법사) 외 한국테라와다 교단 스님 및 재가불자 다수.

* **제 출 서 류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 **접 수 기 간 : 2013**년 **3**월 **8**일까지
* **접 수 처 :** 한국테라와다불교 사무국(원서교부 및 접수 문의처와 동일)
* **등 록 금 :** 자율보시
* **수료자 특전**
1 스리랑카 · 미얀마 · 태국의 정규테라와다불교대학 연계 추천
2 테라와다불교국가 명상센터에서의 수행 주선 및 지원
3 한국테라와다 소속 선원의 각종 수행프로그램에 정회원자격 부여
4 테라와다 수행과 교학에 관련된 각종 정보 · 자료 제공
5 테라와다 수계 및 빨리어 법명 수여
* **원서교부 및 접수 문의**
1 홈페이지 : www.theravada.kr에서 원서양식 교부
2 문의전화 : **010-4546-2840, 010-9135-8277**
3 주 소 :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남산 대원정사 신관 3층)

한국테라와다불교
Theravāda Buddhasāsana in Korea

청소년 전문 문화사업단 뜬다

파라미타, 1일 이사회서 확정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청소년 관련 사업과 수익사업을 전개하는 '청소년 교육문화사업단'을 설립한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2차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사업단 설립을 결정했다.

청소년 교육문화사업단은 파라미타 부설기관으로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사업단장은 상임이사가 당연직으로 맡게 된다.

파라미타는 그동안 사단법인인 관계로 수익사업을 펼칠 수 없었다. 파라미타는 사업단을 발족해 연합캠프와 해외문화탐방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중앙사무처 역할에 집중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3년 계획도 결정됐다. '맑은 세상을 청소년에게'을 슬로건으로 전년대비 35% 증가된 13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됐으며 '청소년 심성개발 프로그램' 연구, 청소년 성장콘서트 및 후원기금 모금 등이 진행된다.

또 주경, 덕조 스님이 이사로, 상임이사에는 현 사무총장인 법경 스님이 선임됐다. 서울 역삼청소년수련관장에는 오산 현암사 주지 현민스님이 선임됐고, 신임 하동청소년수련관장에는 이사인 상인스님이 맡기로 결의했다.

한편 파라미타는 이사회 뒤 2월2~3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청소년명상지도법을 중심으로 지도자 연수를 실시했다.

노덕현 기자

"日 도난 불상 왜구가 약탈"

불교계 한 목소리… 1996년 부석사 환수운동 사실도 드러나

일본에서 도난 당한 뒤 한국에 반입된 불상들이 왜구들에 의해 약탈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88년 관음보살좌상의 존재를 국내 학계에 최초로 알린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는 서산문화발전연구원이 발행하는 〈서산문화춘추〉 제8집에 투고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의의와 왜구에 의한 대마도로의 유출' 논문을 통해 약탈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명대 교수는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은 1330년 영원토록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 보살상은 1370년 전후

부석사, 환수위 구성해 대응

수덕사도 관음좌상 환수 주장

문명대 교수 약탈 가능성 제기

서산을 다섯 차례 이상 침탈했던 왜구들이 약탈해서 대마도 관음사에 봉안됐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복장물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불상을 다른 사찰에 전할 때는 이안하는 내용을 복장물에 넣는 것이 상식"이라며 "조성기를 비롯한 복장물에 대마도 관음사로 이안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반입된 관음보살좌상에 대해 수덕사를 비롯한 불교계는 부석사로 불상이 돌아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월 4일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님 제자리모시기 추진위원회는 문화재청을 방문해 관음보살좌상 부석사 반환을 촉구했다.

서산 부석사 신도회로 구성된 '금동관세음보살님 제자리모시기 추진위원회'는 2월 4일 대전 문화재청을 방문해 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로 돌아와야 한다는 성명을 전달하고 관음보살좌상을 친견했다.

예산 수덕사(주지 지운)도 2월 5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에 반입된 관음보살좌상이 서산 부석사로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덕사는 1996년 부석사와 지역불교계가 일본에서 이 불상에 대한 환수 운동을 펼친 사실을 공개했다.

수덕사는 "당시 부석사 주지 도광 스님과 부남친목회, 서산문화발전연구원 회원들이 관음보살좌상이 일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후쿠오카 공보실을 방문해 불상의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며 "일본 관음사에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수덕사는 정부가 이번 불상의 반환 문제의 해결에 불교계의 환수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월 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부석사 관음보살좌상과 동조여래입상 등 불상 2점에 관한 수사가 마무리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기간동안 전문적인 학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내 불상 전문가와 불교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출 경로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노동위·원탁회의 인수위에 면담 요청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와 종교계 33인 원탁회의가 2월 5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우리 종교인들은 '사랑합시다 함께 삽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행사를 진행했고, 선거 기간에 만난 여야 모두 쌍용차 문제의 국민통합적 해결이 절박하다는데 공감했다"면서 "지난 12월10일 김무성 총괄본부장 등 새누리당 선대본 관계자들은 5대 종단 종교인들과 만나 노사와 정부, 종교계 테이블 구성, 국정조사 등을 약속했다.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東大 총동창회·종관위 갈등 심화

정관 개정 반대 VS 감사권 발동 시사

동국대 재가 이사 선임을 놓고 빚어진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이연택)는 동국대 정관 개정 요구는 사학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고,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경, 이하 종관위)는 학교에 대한 감사권 발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2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계종이 요구한 동국대의 이사 추천 정관 개정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동창회 측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한 재가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관행을 끊어 내야 한다. 관행으로 이사를 선출하다보니 마련돼 있는 정관을 지킬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동국대 재가이사에 대한 선출 조항은 없다. 다만 '조계종 재적 승려이사 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종관위는 '재적 승려 이사 및 감사'를 '이사 및 감사'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총동창회 측은 사학법에 보장된 개방형 이사까지 종단에서 관여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총동창회는 "정관을 개정하게 되면 모든 이사진을 종단에서 추천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학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가 이사는 이사회에서 자체 선출을 하거나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관위는 이 같은 총동창회의 행보에 적극적 대응에 들어갔다. 종관위는 현재 설 명절 직후인 2월 14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사 선출을 지연 중인 동국대 학교법인과 사실을 왜곡하는 총동창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으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국대 감사권과 이사회에 총동창회를 배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1월 31일에는 "동국대 이사 선임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추천과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동국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있다"며 사실을 호도한 총동창회에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천은사 관람료 징수에 제동 걸려

광주고법, 경내 차량통행 방해 금지 명령 내려

법원이 사찰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해왔다며 지리산 천은사(주지 연관)에 대해 차량통행 방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도로에 포함된 사찰 사유재산 및 도로관리 책임은 묻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 1부는 2월 6일 강모 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행금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재 관람을 하지 않고도 차량 통행을 위해 문화재 관람료 1600원을 낸 강씨 등에게 천은사가 1600원에 위자료 10만 원을 더해 지급하도록 했으며 천은사가 사찰 경내를 통과하는 지방도 861호선을 통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향후 위반시 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 등은 2010년 12월 지리산 국립공원의 지방도 861호선을 지나면서 천은사의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았음에도 1600원을 낸 뒤 부당함을 주장하며 천은사와 도로관리청인 전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등 액수는 원심과 같지만 항소심에서는 사찰 경내로 도로를 지나게 한 전남도의 공동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로 중 일부 부지가 천은사 소유라고 해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문화재 관람과 상관없는 운전자들에까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판시했다.

또 "천은사는 2000년 관련 소송에서 지고도 도로 통행자가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매표소 앞 통행을 방해했다"며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만 교통방해 등으로 60건의 112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해 또 위반하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복지 위해서라면 종교인도 세금 납부"

자승 스님, 5일 문용린 교육감 예방서 밝혀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열망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라면 종교인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두 번째 긍정적 의견이다.

자승 스님은 2월 5일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무상급식에 대해 문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한 학년당 8000억 원 가량의 재원 필요하다. 무상급식은 좋은 제도이지만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당장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 종교인 역시 이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문 교육감은 "아이들의 정서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명상이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다. 교육 차원에서 명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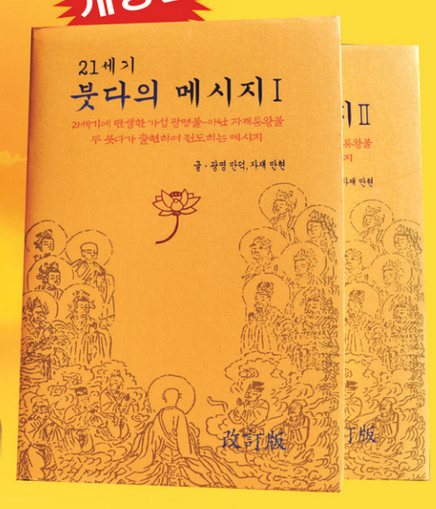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5일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17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0주 베스트셀러 1위

개정판



불과 이룬 대성자의
경천동지할 대사자후!!

우주 탄생과 영혼체의
비밀에 대한 초유의 선언!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춘천본사 T.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인간의 탄생 –
우주 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만고의 비밀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철학·종교서!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감수·자재 만현 큰스님
글·법장 김중섭

▶ 달라이 라마 Dalai-Lama XIV의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
이 시대 인류가 읽어야할 양서!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715쪽 | 값25,000원

일 주 문



지역 소외계층 돕기

청소년교화연합회 현성 스님은 2월 6일 현성정사에서 독거노인 등 지역 소외계층에게 쌀 20kg 100포대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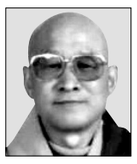
스마트 힐링 수련회 개최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3월 15~17일 화엄사 일대에서 스마트 힐링 수련회를 개최한다 (061)782-7600



풍경소리 명상문화강좌 개강

지하철 풍경소리 대표 혜자 스님은 2월 21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안국역 풍경소리 강의실에서 마음챙김(Sati) 교실을 진행한다. (02)736-5583



통도사 박물관장 취임

통도사 안양암 감원 무애 스님은 1월 29일 통도사 성보박물관 관장으로 취임했다.



나눔 실천 1000㎞ 달리기 완주

구미 대둔사 주지 진오 스님은 2012년 11월부터 실시한 4대강 1000km 마라톤을 2월 2일 완주했다. (054)458-0755



내성천 생태 지킴이 발족

지율 스님은 2월 2일 내성천 습지와 생태를 보존·복원하기 위한 '내성천 습지와 새들의 친구'를 발족했다.



불교진흥원 화요연속강좌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2월 19일 불교방송 3층법당에서 고미숙 고전평론가 초청 '몸의 치유 본능' 연속강좌를 개최한다. (02)719-2606



설맞이 나눔행사 진행

박수관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은 설날을 맞아 2월 5일 부산진구 지역 형편이 어려운 220세대에게 쌀을 전달했다.

신임 조계종 종무원조합 위원장 선출



제19대 조계종종무원 조합위원장에 심주완 기획실 대외협력팀장이 선출됐다. 조계종 종무원종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류창무)는 2월 5~6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단독 입후보한 심 팀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262명 중 225명이 참여했으며 심 팀장은 찬성 213표, 반대 11표, 무효 1표를 받았다.

신중일 기자

"노동자들 아픈 마음까지 보듬겠다"

조계종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 신년 기자간담회



심리치유센터 설립 가시화

7일부터 매월 2차례 동사섭 법회

노동정책 개선안 마련도

"해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심리적 후유증은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가 이들의 마음을 보듬는 것입니다. 올해 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아픈 마음까지 살필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하겠습니다."

조계종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사진>는 2월 4일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는 준비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비영리 심리치유센터를 개원한다. 불교상담개발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심리치유센터는 명상과 불교 상담을 통해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치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3, 6, 9, 11월 4회에 걸쳐 전북 금산사에서 개최한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지쳐있는 노동자와 가족들이 산사의 자연을 통해 마음을 달래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장에 가보면 생각보다 많은 불자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당장 이들이 사찰과 센터에 와서 마음을 치유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도 향상되고 노동 문제에 대한 지평도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노동위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수많은 노동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동사섭 법회'를 지속적으로 봉행한다. 2월 7일부터 시작된 동사섭 법회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7시에 대한문 앞에서 진행된다. 법회에는 노동자 권익 향상을 기원하는 발원문과 관세음보살 정근이 이뤄지며, 종호 스님을 비롯한 노동위원 스님들이 법문을 할 예정이다.

노동위는 오는 5월에는 부처님오신날 기념 노동자 초청법회, 11월에 산재와 자살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를 위한 합동 천도재도 계획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 꾸준히 진행한 장기 농성장과 노사분규 현장 방문도 이어나간다.

이밖에도 개신교 가톨릭 등 이웃종교와 불교NGO 간의 연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과 노동정책 개선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이 시대 노동자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업 중생입니다. 이들이 일터에서 제대로 된 복지를 향유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불교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엄격한 학사운영으로 영산재 전문가 양성할 터"

학제 새로 개편한 옥천범음대 학장 원허 스님



기존 3년서 4년으로 학제 확대 개편

실기 위주 교육 편성…졸업시연 의무

학점운영제 도입해 강의 전문성 높여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대학인 태고종 옥천범음대는 명실공히 영산재 교육의 원조이자 산실이다. 이 옥천범음대가 올해부터 학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

옥천범음대학 학장 원허 스님은 "올해부터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학제를 확대 개편합니다. 옥천범음대학의 교육만 이수하면 어떤 불교의식도 완벽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감히 교육기간을 1년 더 늘린 것입니다."라고 새 각오를 피력했다.

이어 스님은 "그동안 우리 옥천범음대는 신라때 범패를 들여온 진감선사의 맥을 이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정통의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곧게 이어나가는 것이 앞으로 옥천범음대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교육기관보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한 것도 바로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및 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원허 스님은 전문 양성 교육을 통해 불교 전통의식인 범패의 발전적 계승을 중점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형을 모르는 의식 구현은 껍데기를 차용한 것과 다름없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스님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사학의 탄탄한 교수진을 적극 활용해 교육과정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졸업시연을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영산재보유자와 전수조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졸업시연도 필수적으로 졸업생들에게 시킬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기존의 소리와 이론위주교육에서 벗어나 실기교육을 늘렸다.

그동안은 3년간의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에 한해 실습과정 1년을 추가로 실시했는데, 올해부터 2학년 과정에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과정을 추가로 넣어 실기교육을 강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허 스님은 "대중적 눈높이에 맞춘 의식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범패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통의식의 깊은 멋을 제대로 구현한다면, 이들 역시 있는 그대로의 범패를 배우고 또 느끼려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한다.

한편 옥천범음대는 2월 22일까지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한다.(02)392-3234

김주일 기자

동산불교대학 제42기 입학식



동산불교대학 42기 입학식과 명사초청법회가 동산불교회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입학식에는 무진장 스님이 법어를 통해 "불교공부도 시작이 반이니, 이미 입학식에 참석한 인연만으로도 큰 인연"이라며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위하고, 세상을 위한 불자로서 마치는 날까지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서행 한국학대학원 박사는 축사에서 "동산불교대학 신입생이 된 것은 이미 정법불교와 인연지은 것"이라며 불교 대중화를 위한 포교사의 길을 걸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라오스서 대학 연합 봉사



동국대 봉사단인 '동국참사람봉사단(단장 김희옥 총장)' 학생들 25명이 1월 23일부터 10박 11일간 라오스 우돔싸이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신축 및 교육·문화교류 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이번 봉사활동은 서울 소재 대학 6개가 연합해 릴레이 봉사활동으로 진행됐는데, 동국대는 숭실대, 세종대, 삼육대, 상명대, 명지대에 이어 릴레이 봉사활동의 마지막 주자로 참여했다.

학생들은 라오스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인 우돔싸이에서 그 지역 므엉뱅 중고등학교의 교사 신축 작업과 화장실 신축 공사 등에 참여했으며, 현지 아이들을 위해 △동요배우기 △미니올림픽 △액자 만들기 △비누방울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국군불교총신도회, 창립 13주년 법회

올해로 창립 13주년을 맞는 국군불교총신도회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함께 2월 2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국방회관 용산홀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포교원장 지원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스님들과 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법회는 국운융창과 장병 무운장구 기원법회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과 주요 내외빈들의 축사와 격려사, 법어, 군불총의 향후 비전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공 사단법인 대한불교염불종 종헌선포문 고

사단법인 대한불교염불종 대법원 등기번호 001856 | 대법원 등록번호 274321-0029935 |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0-4호

恭惟컨대 我宗祖 智旭藕益 大師께서 淨土의 正統法印을 嗣承하고 伽智靈域에서 宗幢을 揭揚하였고 九山門이 列開하고 五敎派가 竝立하여 禪風敎學이 繼承되어 왔다.

我宗은 근대의 억불정책에도 불구하고 염불공덕의 수승하고 불가사의한 무한한 수명과 광명으로 고통 받는 중생에게 무한의 공덕과 지혜, 신통력과 수행으로 역사의 질곡으로부터 혜명을 오늘에 계승 발전시켜 절대적 실재로서 고요히 비추며 상적광토의 청정법신을 고양하며 정토불교의 성불도생을 실천해 왔다.

본 종은 이제 종명을 공칭하고 종헌을 제정하여 계법을 존승하고 이판(理判)을 추장하여 내로는 숙조불이(宿鳥不二), 신토불이(身土不二), 성수불이(性修不二), 진응불이(眞應不二)케 하고 외로는 도생문호를 개창하여 염불수행을 향상일로 하니 일심불난으로 물러남이 없는 불퇴전(不退轉) 지위에 올라 오매일여로 정토왕생행을 구현하노라.

아종은 근대 한국불교의 내부적 도전과 외부적 시련을 이겨내고 한국불자들의 지지확보와 여망에 부응하여 시대를 증언하는 이정표를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겠다는 자세와 혁신과 창조적 파괴로 교단의 청정과 승풍을 진작코자 마침내 정통에 왕생하는 염불종 종단 창종을 선포한다.

이에 대한불교염불종은 불기 2557(2013)년 2월 8일 종헌을 제정하고 교단의 청정성과 삼보호지의 기본틀을 다져 한국불교가 가야 할 길을 준엄하게 개척하고 국민의 통합과 치유에 공헌하며 꾸준히 기여, 봉사하는 배려와 노력속에서 염불수행 납자의 가풍을 새롭게 견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최상승 염불선으로 분별 떠난 무심함이 곧 진정한 염념 상속행과 견문각지에 자유자재한 자성불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대한불교염불종은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해 참회, 권청(權請), 수희(隋喜), 회향(回向), 발원(發願), 염불(念佛), 염법(念法), 염승(念僧), 염천(念天), 염계(念戒), 염시(念施)의 큰 뜻을 받들어 철저히 수행하여 완성하고 그 공덕을 회향하여 모든 중생을 정토에 왕생하고자 한다.

대한불교염불종은 오직 믿음과 서원을 통해 일승의 묘한 과실로 부처님 명호를 지녀 42품의 무명을 모두 타파하여 예토세계를 부처님이 사는 최상의 실보장엄토인 상적광토에 불국토를 건설하고자 창종을 선포한다.

이와같이 대한불교염불종은 심오한 법장과 비밀한 골수와 부처님의 심오한 보살만행의 지남(指南)을 통해 무생법인을 증득해 모든 불자에게 본래면목을 회향시켜 무시미래로 이 땅의 염불신앙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를 법계에 유전케 하는 무간수(無間修) 수행으로 서방에 왕생함을 서원 즉신성불하는 세연을 만들기 위해 근계시하(謹啓時下) 삼가 불조의 외호아래 불가사의한 공덕으로 우리 법손 만대의 건융과 향상일로의 번영을 기원하여 이 헌장을 공포한다.

불기 2557년 음력 1월 1일

(사)대한불교염불종

창종주 벽 암 종정 월담 성인 총무원장 만공 호조

(사)대한불교염불종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수산면 봉화재길 5 전화 : 043)652-0331 팩스 : 043)653-0332

“설맞이 만두·떡국 이웃에 나누고 활력도 찾아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종로마니아2008’ 회원 어르신들이 충신어린이집 원아들과 설맞이 만두빚기를 하고 있다. 이날 만들어진 만두 2000여 개는 동대문 쪽방사무소에 전달됐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설맞이 소외이웃 위한 나눔마당

종로마니아 · 충신어린이집 참여
복지관 5년 이상 이용 어르신에
‘종로마니아’로 소속감 높여
취미 · 봉사 · 나눔활동으로 행복찾아

“자~ 이렇게 만두피에 물을 묻히고 속을 넣어서 만드는 거야. 옳지 잘하네~”

보드라운 만두피를 왼손에 얹고 오른손으로는 다져놓은 만두소를 살짝 올린다. 분주하게 손을 놀려 만두피를 오므리면 맛깔스러운 만두의 모양새가 완성된다.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모여 아이들과 만두를 빚고 있다. 설날을 맞아 지역의 소외 이웃들에 나눠주기 위해서다.

아이들은 할머니 · 할아버지들이 가르쳐준 대로 잘 반죽이 된 만두피에 속을 올려놓고 꼭꼭 누른 뒤 터지지 않게 다듬었다.

어르신들은 길다란 만두, 동그란 만두 등 서로 만두 모양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웃음꽃을 피웠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2월 6일 복지관 1층 식당에서 ‘호호만두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복지관을 장기간 이용한 어르신들이 직접 만두를 빚어 지역 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행사에는 정관 스님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45명과 함께 충신어린이집 어린이 7명이 자비나눔에 동참했다.

행사에 앞서 정관 스님은 “5년간 열심히 종로노인복지관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복지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길 바란다”며 “오늘 어르신들이 빚은 만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함께 나누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나, 종로마니아는 복지관을 즐겁게 이용합니다! 둘, 종로마니아는 나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셋, 종로마니아는 남을 돕고 삽니다! 우리가 바로 종로 마니아!”

어르신들은 만두를 빚기 전 구호를 외쳤다. 종로마니아의 정신을 담은 구호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종로노인복지관을 2008년부터 이용한 ‘종로마니아2008’ 회원이다. ‘종로마니아(Mania)’란 복지관 개관 5주년을 기념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초창기 회원 가입 후 5년 이상 꾸준히 열정을 갖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소속감과 긍지를 높여 지속적인 복지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관 스님은 “복지관은 종로마니아 어르신들이 자원봉사, 동아리활동 등 사회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함양하고 실천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년설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2008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2기가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1기는 저금통 모으기를 통해 약 370여만 원을 마련해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에 후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완성된 만두가 늘어나 한쪽에는 박스가 차례차례 쌓였다.

이날 어르신들은 만두 2000여 개를 빚어 떡국 떡과 사골국, 곶감 등도 함께 준비해 저소득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동대문 쪽방사무소에 전했다. 이 밖에 어르신들은 2012년 3차에 걸쳐 교육받았던 신노인상을 되짚어 보는 시간과 개별로 나누어 받았던 저금통을 노인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행사도 함께했다.

5년째 복지관을 이용하는 강금옥(68, 연건동) 씨는 “복지관 오기 전 우울증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생활이 우울한 상태였다. 무엇보다 복지관에서 어려운 사정을 알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좋은 친구들과 다양한 배움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다”며 “또한 많은 도움을 준 복지관에 대한 보답으로 도시락배달 · 식당 · 물리치료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남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만(76, 사직동)씨는 “일주일에 5일은 복지관을 이용한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장기, 서예, 스포츠댄스 등을 배우면서 재미도 찾았다. 친구들과 상부상조하면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았다”고 말했다.

고사리손으로 열심히 만두를 빚은 이근호(8 · 남) 어린이는 “만두를 처음 빚는데 고무찰흙으로 모양을 만드는 것 같아 재밌다”며 “내가 만든 만두를 혼자 사시는 할머니 · 할아버지께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관 스님은 “올해는 ‘융합’과 ‘화합’을 모토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1 · 3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 세대간 공감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한다. ‘호호만두 나눔 한마당’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이 밖에 복지관은 우울증이 심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극, 노래동아리 등 문화활동을 통해 활력을 돋울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마다 복지관에 와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제2의 삶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교계 복지관 설맞이 행사 ‘다채’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는 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지하공연장에서 ‘서울 메트로와 함께하는 설날맞이 나눔행사 희망 온(溫) 효(孝) 실천’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서울메트로(본부장 이무영 · 사진 가운데)가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왼쪽)과 청원 스님(오른쪽)에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화)은 2월 6일 설날맞이 무료대중공양을 보시했다. 이번 대중공양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SK텔레콤(수유),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임직원들이 배식봉사 및 식당지원을 함께했다. 또한 복지관은 쌀 3600㎏을 지역사회 14개 장애인단체 등에 지원했다.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은 2월 7~8일 ‘설맞이 떡국 떡 나눔 행사’를 통해 소외이웃 120여 가정에 떡국 떡과 선물을 전달하고 새해인사를 드렸다. 7일에는 어르신 생신잔치 등이 진행됐으며 8일에는 철산복지관 전 직원과 해피모아자원봉사단이 독거 어르신 30여 가정에 떡국 떡을 전달하고 세배를 드렸다.



부산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는 양정청소년수련관 3층에서 ‘설맞이 떡국 나눔행사’를 마련하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 총 150세대를 초청 떡국 및 생필품 전달식과 설맞이 공연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새해맞이 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해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정 등 300여명의 어려운 지역민을 초대해 노래자랑, 공연, 떡국 및 생필품 전달식과 저소득가정 희망장학금 마련을 위한 ‘사랑의 떡국’ 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청년불교 활성화 위한 강의 콘텐츠 기획

우리는선우, 2030위한 포교활동 본격가동

불교계 대표적인 재가신행운동단체 사단법인 우리는선우(이사장 조성택)가 한국불교 중흥을 실현하기 위해 2013년 주요사업을 펼친다.

우리는선우는 △군·경포교불사 △청년붓다운동 △토요열린법석 △세계역사탐방 △365탁마 등을 주요 사업으로 확정하고 청년불자들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영철 우리는선우 운영위원장은 "종교인구 통계조사에 따르면 기독교는 1985년 이후 부동의 1위로 올라선 상태다. 여기에 기독교 인구는 점점 늘고 있고 불교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청년 중심으로 포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우리는선우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성택 교수(고려대 철학과)는 "재가불교의 핵심은 청년불교에 있다"며 "기존 중장년층이 주축이 됐던 우리는선우의 활동범위를 청년층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선우는 재가불교 중심축으로 활동해 온 중장년층 불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군장병, 청년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영철 운영위원장은 "높은 청소년자살율, 청년실업율, 결혼불능현상 등 불교의 미래가 될 세대들은 지금 앞 세대와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으며 꿈꾸기를 포기한다"며 "특히나 분단의 현실 속에서 예민하고 정신적으로 힘겨워하는 곳이 병영생활이기에 군·경포교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선우는 1공병여단 법왕사에서 '88만원 세대를 위한 땡큐 힐링법회'를 매주 일요일 개최하고 지식·재능기부와 함께 강의, 공연, 레크레이션을 진행한다. 또



우리는선우는 1공병여단 법왕사에서 '88만원 세대를 위한 땡큐 힐링법회'를 매주 일요일 개최하고 지식·재능기부와 함께 강의, 공연, 레크레이션을 진행한다.

한국불교중흥위한 중장기계획
수도권, 청년중심으로 포교집중
군법당 '땡큐 힐링법회' 기대
중장년층위한 시민아카데미도 준비

한 법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도 모집한다. 자원봉사자는 법회 참석 군인들을 위해 간식을 만들고, 법당과 도량 장엄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재능기부자는 법문(강의), 재능(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한 나눔봉사에 참여할 인재들이다. 강의콘텐츠를 기획하고 교육연구, 강의나 법회에 필요한 빔 프로젝트 등 기자재 구입을 기부해줄 사람도 찾는다. 우리는선우선우는 후원을 받아 법당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군장병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화할 계획이다.

특히 영상·스크린을 통해 △수행, 깨어있음의 세계 △세계걸작 다큐-십자군 전쟁 △법정에 선 다윈과 지적설계론 등 지적 흥미를 유발하는 강연과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법 △신입사원이 사랑받는 법 △신용카드 사용 전략 △청년세대 법과 생활 등 군장병들이 미래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의들로 구성해 장병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선우는 청년붓다운동을 통해 청년불자모임에 강사를 파견하는 인재불사도 실시한다. 동호회, 대학, 청년CEO 등 불자모임과 사관·부사관학교, 사법연수원, 군·경부대 등에서 종교, 철학, 인문학 강좌를 필요로 하는 모임에 무료로 파견 강의를 진행한다.

강사진은 조성택 교수를 비롯해 성태용 교수, 권중서 법사(불교아카데미 이사) 등 사상·문화계의 불교계 교수진들로 구성됐으며 지식기부를 희망하는 사람도 모집하고 있다. 또 연 1회 9박 10일 청년붓다 출가학교를 개최해 잠재적인 출가자 양성도 도모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행·천장문화의 하늘 길, 대초원 동티베트'를 주제로 세계역사탐방도 떠난다. 7월 1~9일로 티베트 전문가 심혁주 명지대 연구교수가 코스를 해설하며 역사공부도 할 수 있다.

우리는선우는 50~60대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사업도 마련했다. 바로 '365탁마' 사업이다.

서울시내 공공도서관 등에서 불교시민아카데미를 개설해 민족문화, 불교, 종교 다원성 등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강좌를 기획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산스크리트어, 생사학(生死學) 등 불교인문과학 전문가과정, 명상·뇌과학, 주역선해, 불교역사지리, 티베트학 등이 있으며, 인생이모작 학교, 부루나 포럼, 길벗아카데미 등 클럽도 운영해 불자조직을 활성화 계획이다.

이영철 운영위원장은 "1991년 창립한 선우(善友)는 미래불교, 지성불교, 생활불교라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주목받는 일 보다는 불교인재양성, 복지사업, 포교콘텐츠를 개발해왔다"며 "올해는 회원확보 및 회원중심의 사업보다 불교콘텐츠를 활용해 잠재불자를 어떻게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주안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우리는선우는 지난 1991년 재가불교 지도자와 전국적으로 약 1000여명에 이르는 회원의 참여 속에 결성된 불교계 대표적인 재가신행운동단체다. 자비의 등 달기 운동, 장애우나들이, 장례봉사활동, 출가자들의 노후대책수립을 위한 승보공양운동 등을 통해 생활신행운동의 지평을 확산했다는 평가를 받아 1998년에는 제3회 만해상 포교부문을 수상했다.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의 승려교육지원과 문화사업지원을 통한 국제교류활동, 청소년캠프 청년캠프를 통한 미래불자양성활동, 여성노숙인쉼터 화엄동산과 청소년 그룹홈 선재동산을 통한 복지활동 등도 활발히 펼쳐왔다. 2004년 참여불교재가연대와 공동으로 조성한 지상6층의 우리함께 회관은 포교활동의 허브로 자리잡았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108배 하면 뇌건강에 도움돼"

김영보 가천의대교수, 〈불교문화〉서 밝혀

"108배는 집중력 향상과 함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며 모든 연령층에 훌륭한 전신 유산소운동이다."

김영보 교수(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사진〉는 108배 수행이 운동효과를 가져오며 그에 따라 뇌를 건강하게 하는 정신수양이라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월간 〈불교문화〉에서 '108배의 운동효과와 뇌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의 기고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영보 교수는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뇌에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나 에너지 대사가 촉진 되는데 이는 뇌에 공급되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에 에너지 공급을 원할히 해 신경세포들의 활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108배 동작은 온몸 근



108배, 유산소운동과 비슷한 효과
집중력 향상·스트레스 경감

육의 움직임을 동반하는 전신운동인 동시에 땀이 날지언정 숨이 가쁘지는 않은 전형적인 유산소운동이어서 뇌건강에 이롭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장기적인 운동 전후 뇌에 혈액과 산소를 운반하는 혈관을 MRI를 통해 영상화한 것을 비교했다. 그 결과 운동 후 혈관이 좀 더 발달됐음을 확인했다.

그는 "하버드대 정신과 교수 존레이티는 저서 〈운동화 신은 뇌(원제: Spark)〉에서 장기적인 운동은 BDNF하는 신경세포 성장인자의 수치를 개선시켜 신경세포의 생존력을 높이고 시냅스의 분화도 촉진해 인지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고령자의 뇌의 노화를 억제한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신자들에게 108배는 분명 운동 그 이상을 의미한다. 단조로운 움직임을 동반한 마음 비움 과정은 마음을 신체에 집중하게 해 정신력이나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오체투지〉의 저자이면서 매일 1000배를 하는 한경혜씨는 108배가 단전을 트이게 하며 단전이 트여야 제대로 된 집중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비로소 화두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밖에 김영보 교수는 수년간 절을 꾸준히 한 사람이 주의집중 과제를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를 108배 전후로 기능성 자기공명영상 기법을 통해 영상화한 자료도 소개했다. 그는 "고위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는 전두엽 영역으로 흰 원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108배 이후 활성화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집중과제 수행시 정확도나 반응시간은 전반적으로 108배 이후가 더 향상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108배를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8배가 기본적으로 마음을 힘들게 하는 번뇌나 고민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체 움직임을 동반하는 이러한 과정은 마음을 평안하고 건전하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마가 스님, 마음치유사 과정 개설

동국대평생교육원서 3월 4일부터

자비명상의 아이콘 마가 스님이 동국대와 함께 마음치유사를 양성한다.

한국마음치유협회(회장 마가)는 3월 4일부터 동국대평생교육원에서 '마음치유사 과정'을 개설, 현대인의 지친마음을 치유한다.

이번에 개설된 강좌는 15주 과정으로 △명상심리와 자기치유 △자비명상과 긍정심리 △현대심리학과 위빠사나 마음치유의 실제 등을 내용으로 한 강의로 구성됐다.

강좌는 매주 월·화요일 진행되며 이경남 대표(나를 만나는 행복 치유연구소), 황수경 겸임교수(동국대 명상상담학과)가 '명상심리와 자기치유1'를, 담소 스님과 이운 명상지도강사, 장주희 아나운서가 '마음치유의 실제(명상지도법 청소년·일반)'를, 마가 스님과 이지원 대표(사회단체 좋은 삶), 김잔디 선임상담원(건강심리연구소)이 '자비명상과 긍정심리'를, 〈위빠사나1·2〉〈마음으로 숨쉬는 붓다 호흡〉의 저자 김열권 씨와 김혜원 동국대 강사가 '마음치유의 이론'을 주제로 강좌를 진행한다.

한국마음치유협회는 "이 과정을 1·2학기 이수한 뒤 3박 4일 워크샵을 수료할 경우 2급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학교, 복지관, 문화센터, 템플스테이, 비영리단체 등에서 마음치유사로 활동하게 된다"며 "자격증 취득 외에도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치유를 통한 깨달음과 행복을 느끼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음치유협회 마음치유사과정에 관심있는 불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2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동국대 문화관 학명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02)2260-3728

이나은 기자

불교상담대학·대학원 졸업식

졸업생, 자비의전화 봉사활동

불교상담대학·대학원(대학장 도현)은 2월 16일 오전 11시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13년도 불교상담대학·대학원 졸업식'을 진행한다.

졸업장 및 불교상담개발원장상, 사)자비의전화 동문회장상 등 상장수여와 조계종 포교원장이 직접 표창을 수여한다. 불교상담대학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본원 부설기관 자비의전화에서 마음 아픈 이웃들을 위한 불교상담 전문 자원봉사상담원으로 등록하고 활동하게 된다.

이나은 기자

봉녕사, 매월 맞춤형 템플스테이

23일 '정월보름맞이' 주제로 열어

수원 봉녕사(주지 자연)는 직장인·여성·대학생 등 남녀노소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월별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템플스테이는 계절과 참여대상에 맞게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2월 '정월보름맞이 템플스테이' △3월 '봄맞이 가족 템플스테이' △4월 '꽃피는 봄이 오면 봉녕사에서 휴식형 템플스테이' △5월 '혜민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치유템플스테이' △6월 '직장인이여! 잠깐 재충전의 여유를 템플스테이' △7월 '대학생 여름방학 템플스테이' △8월 '여성단기출가' △9월 '추석맞이 남녀 방콕탈출 템플스테이 △10월 나도 가을 탄다 템플스테이 △11월 화목한 가족 만들기 템플스테이 △12월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템플스테이 등으로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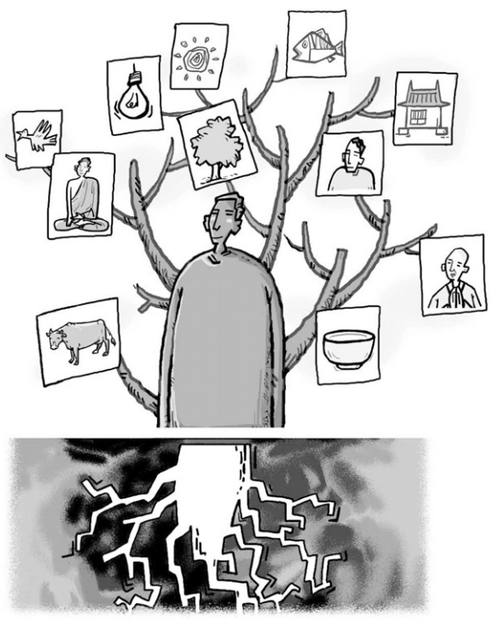
2월 23~24일 열리는 '정월보름맞이 템플스테이'는 30명을 모집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팔관재계 수계식, 마음나누기, 발우공양, 다도, 걷기명상, '사브리나코칭(Design my best life)' 등으로 구성됐다. (031)258-0715

이나은 기자

MIND | LIFE | ONESELF | CHANGE | BUDDHISM

생활속의 불법수행 ❺

생활속의 불법수행은 현대불교신문 광고지면을 통해 부처님 법을 널리 홍포하는 지면입니다. 불자개인, 단체, 사찰 누구라도 소정의 정성금으로 부처님의 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광고부 02)2004-8213.4



자기를 섬으로 삼고 의지처로 삼아라

부처님께 붙여진 열 가지 명호는 모두 다 부처님의 큰 덕을 기리는 이른바 덕명(德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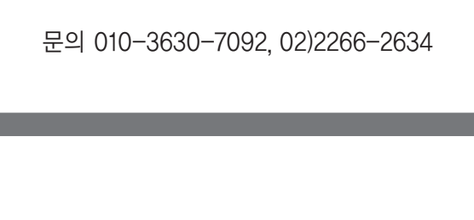
인(人)·천(天)으로부터 존경받고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이(응공 應供), 바르고 완전하게 진리를 남김 없이 깨달은 이(정편지·正偏知), 지혜와 언행이 다 함께 완전한 이(명행족·明行足), 미혹의 세계를 잘 뛰어 넘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선서·善逝), 세간 출세간의 일을 다 아는 이(세간해·世間解), 세간에서 가장 높은 이(무상사·無上士), 중생을 조복·제어하여 열반에 인도하는 이(조어장부·調御丈夫), 미혹중생 특히 하늘과 사람을 인도하는 이(천인사·天人師), 깨달은이·눈뜬 이(불타·佛陀), 많은 덕을 갖추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이(세존·世尊)

그러나 이 열 가지 명호 가운데 어는 것도 부처님을 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지는 않고 있다. 깨달은이, 진리의 길을 발견한 이, 그래서 더욱 존경받아야 할 분이라고는 해도 엎드려 빌어야 할 대상, 복을 내려 주십사 기원할 대상이라는 뜻은 없다. 왜 그런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진리(법)는 진리로서 확정되어 있었지 부처에 의해 만들어진(창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길,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이며, 그 길을 걸어감으써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분이다. 그래서 부처는 위대한 스승인 것이다. 미혹한 우리들을 향해 '그대들도 오라. 와서 보아라. 이 길은 현실적으로 볼 수 있고 증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니 누구든 와서 보아라. 길은 열려 있다'라고 손짓을 해 준 분이다. 우리가 머리 숙여 존경하고 숭배하는 까닭은 길을 발견하고 가르쳐 준 분이기 때문이다. 만약 부처님이 깨달아서 설하고 보여 주지 않았더라면 그 길을 몰랐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생각하면 고맙기도 하고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그 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 전에 엎드려 복을 주십사! 빌고 빈다. 돈을 벌게 해 주십시오.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면서 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내용을 낱낱이 보여 주셨다. 따로 비밀스럽게 감춰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하셨다. 지혜 있는 이는 저마다 스스로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비밀 주머니는 없다고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내게만 그 주머니를 열어 주십사 빌고 빈다. 막무가내로.

법구경은 말한다. "자기를 섬으로 삼고, 자기를 의지처로 삼아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의 말씀이다. 이렇듯 분명히 '자기의 의지처는 자기뿐이니 그 밖에 또 무엇을 의지하랴' 하였는데도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기복에 매달린다. 스승의 말을 따르지 않는 제자이기를 자처하는 셈이다. 말 안 듣는 제자를 좋아할 스승있을까? 부처님께서는 그 열 가지 명호처럼 인·천의 위대한 스승이시니 그런 제자도 긍휼이 여기실까? 지혜 있는 이는 저마다 스스로 알리라.



새해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불제대원안전산업
임직원 일동

법보시 : 불제대원 안전산업
사찰 연등 및 전선시공 전문

불제대원 안전산업은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문의 010-3630-7092, 02)2266-2634

페이스북 등 온라인통한 홍보강화

생명나눔 실천본부 2013년 신년사업계획 발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 한해 대학생·군장병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확보에 힘을 쏟는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2월 5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기증캠페인과 자살예방센터 운영, 치료비 지원 등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특히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자수를 늘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 '1300만 명 불자와 함께하는 나눔대행진'을 주제로 사업을 진행하며, 목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수는 5000명,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자는 3500명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서울 및 경기지역 주요 사찰 및 단체를 127곳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군법당 20여 곳, 대학교 9곳을 방문해 젊은층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선(先)홍보 후(後)캠페인, 블로그 및 페이스북 활성화를 통한 온라인 희망등록을 확대해나가며, 기존 회원들을 활용한 희망등록도 확대하는 한편 100명 이상을 추천한 회원은 명예의 전당에 등재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2013년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5000명 목표
군법당·대학교 등 젊은층 확보 주력
교계언론과 장기기증등록 활성화

심정민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0~4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력하는 만큼 블로그나 페이스, 트위터 활성화를 통해 희망등록을 할 계획"이라며 "이전에는 사찰에 직접 방문해 생명나눔실천에 대해 홍보했다면 올해부터는 사찰방문 전 장기기증에 대한 사전지식을 해당 사찰 홈페이지를 통해 주지 스님과 신도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난 뒤 희망등록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사업은 연중 캠페인활동 및 대학·일반 기업체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치는 것 이외에도 실 기증자를 발굴해 교계언론 및 소식홍보를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해 나간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새터민, 다문화 가족 등 긴급하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 70여 회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안구이식 수술환자를 위해 기증받은 지정기탁금 4600여 만원은 녹내장 환자에게까지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2011년 6월 자살예방센터를 개설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생명지킴이 교육 △순회교육 △전문가 초빙세미나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한 자살예방운동을 펼쳐나간다.

이 밖에 한다솜 희망음악회, 희망 걷기대회, 헌혈캠페인 등 연례사업도 지속된다.

또 생명나눔은 교계 언론과 함께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행복 릴레이' 사업을 추진한다. 교계 언론사와 연계된 단체를 선정해 월1회 생명나눔과 공동사업으로 장기기증희망 등록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목표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궁극의 목표는 아파서 고통 받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우리복지관 주력사업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참된 삶' 프로그램

노후 건강 돌보고 뜨개질로 봉사하고


'참된 삶'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저소득국가의 신생아를 위한 털모자를 뜨고 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정을 나누려는 기부활동이 줄을 잇는다. 성금과 물품 전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훈훈한 기부활동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만성질환 어르신들을 위한 '참된 삶'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평소 도움을 받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후원자로,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재능기부까지 펼치게 하는 것.

'참된 삶' 프로그램은 노년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자살, 노인우울증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속 지원으로 지역 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육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한 프로그램이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은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한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자가건강 측정을 통한 건강관리와 웰다잉 수업, 저염식 요리활동, 건강체조 등을 체험하고 노년기에 직면한 죽음에 대한 준비단계를 통해 자신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아는 과정을 통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참된 삶' 참여 어르신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삶이 비관적이며 죽음이 두렵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이 가장 의미 있고 현재 자신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느끼게 되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환원한다.

양지현 사회복지사는 "어르신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과정을 통해 어릴 적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준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뜨개질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르신들이 만든 모자는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 코트디부아르·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빈곤국 신생아들에게 전달돼 저체온증으로 인해 죽어가는 빈곤국 신생아들을 살리는데 사용된다.

강정이(가명) 어르신은 "집안에서만 생활하면서 나쁜 생각을 할 때도 많았는데 복지관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수업을 통해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며 "뜨개질을 통해서 나도 사회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성 들여 뜬 털모자가 어린 생명의 꿈을 이어주는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소득 만성질환 어르신 대상
웰다잉수업·저염식 요리활동
신생아 위해 털실모자 만들어

정말숙(가명) 어르신은 "항상 받기만 하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활동을 통해 진정한 참된 삶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들은 '재능기부'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하여 육체,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며 누구보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051)628-6737

이나은 기자

이천시장애인복지관 커피전문점과 협약

장애인 바리스타 훈련 및 실습 지원


선재 스님(왼쪽서 두번째)과 라띠에르카페 관계자들이 협약을 맺었다.

이천시장애인복지관과 일반 커피전문점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바리스타로서 훈련하는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은 2월 4일 이천시 증포동에 위치한 '라띠에르카페'와 협약식을 갖고 전문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 훈련중인 장애인들을 도울 계획이다.

현재 이천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장애인들이 바리스타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카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천시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들이 실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협력 △카페운영에 있어서 전문적인 경영자문 △라띠에르 카페에서 제시한 신선한 원두 공급에 대한 계약 등을 약속했다.

선재 스님은 "이번 협약은 이천시 장애인들이 멋진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발판을 지역사회에 만들어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장애인들도 지역사회 내에서 열심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애인식개선의 사업에 대한 의미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031) 637-6720

이나은 기자

신기생년 한혜린, 중림복지관 홍보대사로

탤런트 한혜린이 중림종합사회복지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은 2월 6일 지역사회복지 발전과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대사로 탤런트 한혜린을 위촉했다. 이날 한혜린은 첫 홍보대사활동으로 설맞이 떡국나눔행사에 함께 참여해 지역 내 저소득 및 독거노인 100여분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상에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혜린은 평소 봉사활동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중림종합사회복지관 홍보대사 활동에 적극 동참했다. 앞으로 한혜린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소외계층 돌봄과 함께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한혜린은 SBS드라마 '신기생년' 금라라역과 KBS 드라마 '당신뿐이야' 나무궁화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최근 MBC 드라마 '아들녀석들'에서 이신영역으로 활약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이용갑 관장(왼쪽)이 탤런트 한혜린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불교의식과불교음악,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신입학, 수료과정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일	시 간	교수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시식/예불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 1~7시	이기봉	30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대령/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 1~7시	*	*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7시	마일운	30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 1~7시	조인각	30
불교의식(이론)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화	오후 1~4시	심만춘	*

학 점 은 행 제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영산재 행위전승 학습	불교의식이론	화	오후 1~4시	30
사물실습	불교의식실기	화	오후 1~7시	30
범패실습 I	각배과정	목	오후 1~7시	30
영산재 의례절차 II	영산과정	금	오후 1~7시	30

편 입 학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7시	약간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 등 일반인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
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편 입 학 과 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제출서류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편 입 학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전형일정 : 2013년 1월 14일 ~ 2월 28일
■전 형 료 : 50,000원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 본 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접수
■합격자발표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특 전
1. 재학생 중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종단이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합동득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2.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응시 자격을 부여 단, 입학시 승려에 한하며 재학중 출가자는 제외.
4.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5.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최 원 허 합장**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Tel:02)392-3234, Fax:02)392-3239 홈페이지:www.okchunbud.kr

‘인과통찰’ 지혜가 윤리적 삶의 기반

우리는선우- 불교의 윤리는 무엇인가?

법인 스님 (조계종교육원 교육부장)

“지혜의 통찰력 없이 윤리적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노숙자에게 밥을 주는 것이 선행과 자비라면 노숙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법인 스님은 2월 2일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에서 열린 우리는선우 법석에서 불교의 윤리관은 옳고 그름을 인정하되 이를 잘 구분해 선한 방향을 따라 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법인 스님은 … 중앙승가대를 졸업했으며 대흥사 수련원장을 맡아 ‘새벽숲길’이라는 주말수련회로 오늘의 템플스테이 기반을 마련했다.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과 불교신문 주필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을 맡고 있다.

오늘 주제는 ‘불교의 윤리는 무엇인가’ 입니다. 불교의 윤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의 도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과 부처님 가르침은 다르지 않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긴데 제 경험부터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1980년도 5월에 저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당시 사미승이었던 저는 스승을 따라 광주도청 희생자들 앞에서 염불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정말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왜 염불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죽음을 잊으라고 망각하라고 염불하고 기도하나? 참혹하게 사람들을 죽인 학살자들을 용서하라고 염불하나?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마음을 접고 극락세계가라고 기도를 하는 건가?”

아무튼 열아홉 나이에 알 수 없는 의문과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때 수행자 종교인이 참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깨달으면 이렇게 불행한 세상을 그냥 놓아두어도 되는 것일까? 사후에 있다는 극락세계는 삶의 희망이고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서 저는 다시한번 깨닫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으며 중생을 위한다는 이타보살이라는 게 무엇일까 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가 이런 생각을 다시한번 말해보죠. 예전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징기스칸 그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한낱 양치기 소년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 광고 문구에 대해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징기스칸 혹은 나폴레옹이 정말 영웅이기만 할까요?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징기스칸과 나폴레옹이 영웅인가부터 근본적으로 성찰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에게 이 전쟁은 옳은 겁니까? 내 일이냐 아니냐에 따라 인간의 도리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 무지막지한 전쟁 속에서 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누가 총칼로 통일을 해달라고 했나요? 그 정복 전쟁으로 인류에게 어떤 진보가 있었을까요?

‘한낱 양치기 소년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구절도 생각해봅시다. 그럼 택시기사도 공장 노동자도 ‘한낱’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카피 문구들이 사람들에게 공감과 설득을 주고 아무런 판단도 못하게 한다면 우리 삶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전도몽상 돼 있는 거죠.

징기스칸과 나폴레옹의 전쟁, 또 80년 5월의 광주.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종교적인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종교라 하면서 종교가 사회와 역사 속에서 아주 특별한 것이 되어서는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보편적인 것을 떠나서 또한 인간 사회를 떠나서 특별한 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임을 두려워한다. 이를 견주어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말라’. 이것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경전 구절입니다.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 합니다. 맞으면 아프죠. 불교라는 종교는 너무 거창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이 알 필요도 없고 크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남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억압하거나 차별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인간이 해야할 마땅한 행동이죠.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80년 광주서 깨달음에 ‘회의’
세상사에 옳고 그름 항상 존재
부처님도 선악은 분명하게 판별해
자비심은 악을 소멸시키는 처방전

제가 오전에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행자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뚫고 수행하자’ 라고 했습니다. 세속을 떠나버리자가 아니고 말입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보편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자. 성불도 중생제도 이런 거창한 걸 버리고 인간이 가져야할 보편적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남을 속이지 않는 것, 정직함 이런 걸 가지라’ 고 말합니다. 남을 속이면 그 피해는 상대에게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불행하고 힘들게 됩니다. 사람이 해야할 도리가 아니죠. 정직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적인 정직함은 여기에 하나가 더해집니다. ‘자기자신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해라’ 내가 질투하고 있구나, 꾸미고 있구나…이렇게 자신을 인정하면 성찰하는 것을 덧붙일 수 있죠. 그 다음이 성실함 책임감 이런 것입니다. 출가 수행자는 겸손과 친절이 필요합니다. 출가 수행자 성불 깨달음에 짓눌려서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정직 성실 인욕 배려, 더불어 살겠다는 공동체 의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수행의 전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옳고 그른 것, 아름답고 추한 것, 어떤 것이 선이고 악행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29년 동안 했습니다. 부처님은 계급제도를 부정했고 전쟁을 말리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모든 생명은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계급이 생겨나면 모든 생명은 억압하고 억압받는 자가 생깁니다. 자 그럼 해탈 열반 자유 평화 행복 이런 것이 종교적 선언으로만 끝나야 하는 건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구현돼야 할 것인가요? 그러면 참선한다고 이것이 해결 될까요?

연못에 돌을 딱 던져 놓고 떠올라라 하면 떠올라지나요? 그리고 돌이 떠오른다고 삶이 달라질까요? 내 삶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는 물 깃고 나무하고 잠자고 이렇게 평범함 속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살면 생의 기적이고 최고의 신비 이걸 신통력이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불교인들은 옳고 그름 정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까? 진선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니 불교교리를 잘못 해석하고 있었고 저 또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종에 모든 법은 공하니까 아름다움도 본래 없고 추함도 본래 없고 악도 본래 없다고 말합니다. 선도 공하고 악도 공하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교리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보통 우리는 쓰레기장은 싫어하고 꽃밭은 좋아하죠. 그런데 쓰레기장은 원래 있었습니까, 만들어진 겁니까? 쓰레기 던지니 쓰레기장이 되고 꽃을 심으면 꽃밭이 됩니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모든 존재는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웃는 사람, 불친절하면 불친절한 사람, 제가 꽃을 들고 있으면 꽃을 든 스님이 되죠. 선과 악이 없다는 측면을 놓고 설명하는데 교리를 잘못 받아들여서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선과 악은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선과 악은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아주 착한 사람 살인자 정직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이것이 태생적으로 있는 겁니까? 환경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사회에 선과 악이 있고 정의 불의가 차별이 있는 걸 인정하되 인간의 탐욕과 무지 등 온갖 어려운 것이 생겨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도 악과 선을 분명하게 판별하고 선한 것을 가까이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악을 소멸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걸 잘못 해석해 인간을 불신하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이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니 미움 갖지 말고 자비심으로 악을 소멸시키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뜻입니다. 모든 게 본래 있지 않으니 내게 있는 단점 이런 것들을 소멸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정진해 노력하자 이렇게 ‘공’ 을 해석하십시오.

‘무상’ 도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많죠. 무상이라는 말 모든 것은 계속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 무상하다고 했을 때 노력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고 가치 있는 걸 선택해서 잘 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나요? 서로가 도우면서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만 살자고 하면 인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연기의 이치를 제대로 알았을 때 거기서 주는 가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어요. 이를 삶에 적용시켜보세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 말은 이것의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을 이해한다면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바뀐다는 말도 알아야 합니다. 악법이 있는데 그게 안 바뀌는데 내가 바뀔 수 있나요? 우리가 또다시 강대국에서 식민지가 된다면 식민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나요? 요즘 대학생들 등록금 문제, 취업로 어려운데 이런 현실 속에서 내 마음 청정하면 한 세상 바뀌어지나요? 현실적 고통은 자기 마음보다는 사회 구조적 환경에서 더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연기의 쌍방소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참으라고 했으니 그냥 참자 이렇게 마음먹고 내 마음만 다 깨끗하면 이 세상이 다 깨끗해질 수 있다고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윤리적으로 사는 것은 자비와 선행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현명함 지혜 똑똑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공동체 이루고 사는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지혜의 통찰력 없이 윤리적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노숙자에게 밥을 주는 것이 선행과 자비라면 노숙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 불행하게 하는 요소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통찰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 바탕 안에서 자비와 선행을 해야 합니다.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신문, 영어학 등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특 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2월 25일

5. 문의처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5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학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중국 남경

중·고생 조기유학

1. 입학대상

·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2학년

2. 제출서류

· 가족등본, 여권, 여권용 사진7매, 최종재학증명서

3. 제출기한

· 2월 25일까지

4. 유학생특전

· 호텔기숙사,한식제공, 3월 어학후 9월 입학, 고교졸업 후 대학입학 보장
  1년내 신 HSK(중국어 수평고사 : 4, 5급 보장)

5. 출발일자

· 3월 8일

6.한국상담처

· 02) 511-2026,2027, 010-4552-5281

인터넷홈페이지 : **www.njsdfx.co.kr**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포교활성화 위해 영상 콘텐츠 확보 해야”

최진구 울산문화방송 국장, 〈천태학 연구〉 15집서

“영상포교 성공 위해서는 포교, 교리 위주에서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대응해 일반 콘텐츠를 확보해야 한다.”

최진구 울산문화방송 국장은 천태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이 최근 펴낸 천태학 연구 15권에 실린 ‘불교 영상매체의 포교기능 연구’를 통해 불교 미디어의 새 콘텐츠 개발을 주문했다.

최진구 국장은 논문을 통해 불교계 유일한 케이블 영상매체인 불교TV와 기독교계 케이블 매체인 평화방송의 편성을 비교하고 불교계 영상매체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최 국장은 먼저 “산중에 위치한 불교가 포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펼치는 방법 중 하나가 방송매체를 통한 포교”라며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교영상 매체를 통한 포교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포교환경 분석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미디어 포교에 대한 전문 연구도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국장은 불교TV를 비롯한 다수의 종교매체들이 시청자의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막연한 불교신자로 규정하고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종교매체에서 시청자에 대한 행태 및 포교기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는 콘텐츠 개발의 방향성이 없는 결과를 미치고 결국 외면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불교TV와 가톨릭 평화방송을 비교해 불교TV는 포교 · 교리 67%, 교양 21%, 건강 10%, 시사 2%로 구성돼 있으며

산중불교 영상매체 활용 효과적

종교매체, 교리 등 편중 보도 한계

불자 만족도 높지만 일반 시청 줄어

평화방송의 경우 선교 · 신앙 73%, 교양 17%로 종교방송이 모두 종교활동에만 대부분을 치중해 있음을 지적댔다.

최 국장은 “불교는 한국종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문화 또한 풍부하다. 그럼에도 문화콘텐츠 개발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종교미디어 매체를 통한 포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맞춘 콘텐츠가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복투자를 피한 교계의 집중적인 후원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시청자 참여 확대 △전문인력 고용을 통한 방송의 질 향상을 제안했다.

논문에는 불교TV 시청자 만족도 등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불교TV 시청자 184명(남자 28명, 여자 156명)이 응답한 설문에서 67.4%인 124명은 불교TV 시청시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며 101명(54.9%)는 ‘스님들의 법문을 듣기 위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교지식과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32.6%)로 나타났다.



불교TV 특별공개방송 ‘노래에 법향을 싣고’ 장면. 최진구 국장은 불교 외에 다양한 문화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원전’ 있는 양북면은 불교문화재의 보고(寶庫)

동국대 · 양북면발전협의회, 2월 4일 연구조사서 발표

경주 양남면에는 국내 2호 원전인 월성원전이 자리하고 있다. 원전이 지역에 들어서며 지역사회는 기존에 있던 마을이 없어지고 이전되는 등 큰 변화를 맞았다. 이는 지역 불교자산에도 마찬가지였다. 월정원전 재가동과 경주 방폐장 문제가 지역사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 지역 불교자산 현황을 돌아보고 이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인문학연구소(소장 김영철)는 2월 4일 경주 양북면복지회관 강당에서 ‘양북면문화자원의 복원과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발간회를 개최했다.

동국대 인문학연구소에서 월성원자력본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1년간 양북면 문화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보고서다.

이날 보고서 발간회에는 연구책임자인 강석근 동국대 교수의 ‘기림사 불교자원의 문화콘텐츠 방안’, 이창식 세명대교수의 ‘경주 양북 동해안 해신과 대왕암의 문화콘텐츠방안’, 안상경 충북대 교수의 ‘문무왕 테마파크 조성시안’, 김성혜 신라문화연구원 학술팀장의 ‘만파식적 설화와 문화적 의의와 활용방안’ 등이 발표됐다.

연구책임교수인 강석근 동국대 교수는 “기림사는 본전인 대적광전(보물 833호), 대적광전의 삼존불(보물 958호), 옻칠을 한 희귀한 종이부처 건칠보살좌상(보물 415호), 오백나한상을 모신 응진전(유형문화재 214호), 대적광전 뜰의 삼층석탑(유

원전 들어서며 지역사회 변화

조사 통해 주민애향심 달래

문화콘텐츠 활용한 지역사업 제시

형문화재 205호), 약사전(문화재자료 252호), 비로자나불 복장전적(보물 959호) 외에도 문화재자료 6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성보박물관이라며 김시습 설화와 그를 모신 사당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강 교수는 “양북면에는 국보인 감은사지쌍탑과 장항사지 서오층석탑을 비롯해 세계 유일의 수중릉인 문무대왕릉, 골굴사 등이 있는 문화재의 보고”라며 문화적 환경을 활용한 개발방안을 제시했다.

원전 건설로 인해 이주한 최병천 씨(양북면 봉길리)는 이날 조사보고서 발간에서 “고향이 없어지고 마을이 옮겨진 상황인데 그 흔적의 혼이라도 이렇게 책으로 엮어져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김영철 동국대 인문학연구소장은 “이번 보고서는 양북면에 초점을 맞춰 한개의 면이 가진 문화자원의 장점과 특징을 세밀하게 발굴해 내고 이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지역민과 학계, 월성원자력과 방폐물관리공단이 상생, 협력하는 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 기림사 전경. 기림사에는 문화재 6점을 비롯해 원효 · 김시습 설화가 전해진다.

노덕현 기자

경기도 불교문화재 보수·정비 ‘탄력’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 연내 정비사업 실시

경기도내 불교 문화재 보수 · 정비를 위한 국비 27억원이 확보돼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 도내 불교 문화재의 보수 · 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월 6일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에 따르면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565호)을 비롯해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보물 제6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보물 제9호) 등 도내 18개(20건) 불교 문화재의 보수 · 정비 사업이 연내 진행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도내 불교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으로 국비 27억 200만원과 지방비 14억 1500만원 등 총 41억 1700만원을 확보했다.

평택시 현덕면에 위치한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경우, 많은 신도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전각들이 협소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심복사는 전각 개선 사업이 진행된다. 2011년 문화재로 지정된 남양주 흥국사 대방은 4억 3000만원 예산이 투입돼 보수 및 주변정비가 실시된다.

또 여주 신륵사 조사당 보수 3억원,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석축정비 및 설법전 개축 설계 2억 8000만원 등이 투입된다.

한편, 경기도에는 100개소의 전통사찰이 있으며 문화재 보유사찰이 60개소다. 국가지정 문화재 36점, 도 지정문화재 141점 등 177점이 경기도 내 사찰에 있다.

노덕현 기자

경기도 2013년 불교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계획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고양	보물제749호	태고사 원증국사탑	3D정밀측량
고양	보물제611호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3D정밀측량
남양주	등록문화재제471호	흥국사 대방	보수 및 주변정리
남양주	보물제397호	봉선사 동종	동종 보존처리 및 범종루 정비
남양주	보물제397호	봉선사 동종	법보전 건립 설계
동두천	보물제1211호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삼성각 기단, 석축 및 계단보수
안성	보물제488호	칠장사 혜소국사비	석축 및 배수로정비
안성	보물제823호	석남사 영산전	방염제 도포
안성	보물제824호	청룡사 대웅전	방염제 도포
양주	보물제388호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석축정비 및 설법전 개축설계
양평	보물제531호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천왕문건립
여주	보물제6호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보수정비
여주	보물제7호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안전진단
여주	사적제382호	고달사지	배수로 정비
여주	보물제180호	신륵사 조사당	보수정비
여주	보물제180호	신륵사 조사당	방염제 도포
용인	보물제9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발굴조사
이천	보물제822호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석축정비
평택	보물제565호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공양간 건립설계
하남	사적제352호	동사지	토지매입

보각국사 일연 스님 문헌자료집 발간

경북 군위군 불전 · 문집 · 설화 등 총망라

경북 군위군은 최근 일연 스님의 관련 문헌을 총 망라한 〈보각국사 일연〉 자료집을 펴냈다. 문헌자료집 발간에는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와 황인규 동국대 교수, 중앙승가대 비구수행관장 승원 스님이 참여했다.

자료집은 1부 일연 스님 관련 자료, 2부 일연 저술과 사상, 3부 삼국유사 관련 자료, 4부 삼국유사 논저 목록 등으로 구성됐다.

1부 관련 자료에서는 △일연 비(碑) 및 인각사 자료 △사서, 지리지 △불전, 문집, 기타 △설화 및 전설 로 구분됐다. 2부에서는 유일한 일연 스님의 편저류인 〈중편조동오위〉와 〈수능엄경환해산보기 - 산보통방조〉에 대한 교감역주가 실렸다. 3부 삼국유사 관련 자료 또한 1부와 마찬가지로 △사서, 지리지 △문집 △설화 및 전설로 구성됐으며 4부 삼국유사 논저목록에는 관련 연구성과물이 수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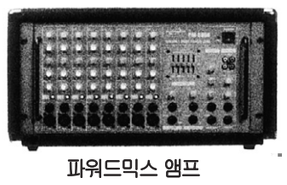

〈보각국사 일연〉

노덕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3년 1월 15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3년 3월 5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 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3년 1월 15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3년 3월 8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이웃과 훈훈한 마음을 나눕시다”

호남불교계. 설 · 입춘 맞아 자비 나눔 전해

광주전남 불교계 자비의 쌀 모아
전북 불교계 밑반찬 설 물품 전달
조손 가족 · 소년소녀가장돕기도



광주 금선사는 2월 4일 입춘을 맞아 자비의 쌀 2.400㎏을 전달했다.

새해를 맞이하는 입춘(立春)과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호남불교계의 자비의 온정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졌다.

봄을 상징하는 입춘은 24절기 중 첫째로 새로운 해의 시작을 의미한다. 예부터 입춘절기가 되면 농가에서는 농사 준비를 한다. 아낙들은 집안 곳곳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남정네들은 겨우내 넣어둔 농기구를 꺼내 손질하며 한 해 농사에 대비했다. 사찰에서도 가정과 나라의 무사평안을 기원하는 많은 기도와 불교적 의식들이 행해진다.

광주전남지역사찰에서는 최근 십 여 년 전부터 입춘을 맞아 하나의 좋은 풍습이 생겼다. 바로 ‘자비의 쌀’ 이다.

신도들은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자비의 쌀’ 을 사찰에 기부하고, 사찰에서는 모아진 쌀을 어려운 이웃과 불교계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광주 금선사(주지 일명)는 2월 4일 입춘일에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자비의 쌀’ 2,400kg을 지역 불교계 사회단체에 전달했다.

일명 스님은 “십시일반 모은 쌀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참다운 공덕을 짓는 것이며, 부처님 도량을 만들어가는 일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4회째 맞이하는 이번 전달식에는 자비의 쌀을 포함해 동전 60여 만원도 함께 전달됐다.

이날 자비의 쌀을 전달받은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스님),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스님), 맑고향기롭게 광주지부(지부장 고현), 제1전투비행단 호국 금강사(주지 삼연스님) 등은 단체별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 비전사(주지 보혜)도 같은 날 신도들이 기부한 쌀 2,000kg을 광산구청 정드림스타트를 통해 조손 · 결손가정에 전달했다. 쌀은 월곡2동 주민센터와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 용아 아동센터,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광산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됐다. 비전사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약 15,000kg의 쌀을 전달했다.

보혜 스님은 “이번 입춘에 마련된 자비의 쌀은 지역의 결손 가정의 아이들에게 주로 지원된다”며 “신도들이 입춘기도에 동참하며 십시일반 쌀을 모았다”고 말했다.

올해 첫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무등산 동원사(주지 지장)도 자비의 쌀을 2월 23일 지역불교계단체를 통해 환우가족과 독거어른, 지역 노인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 문빈정사(주지 법선)는 독거어른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한다. 입춘기도를 통해 마련된 속옷 300여 벌을 자비신행회를 통해 광주 동구지역 독거세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서는 전북지역 각 사찰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는 2월 3일 관내 삼학동 조손가족(부모 없이 할아버지 나 할머니가 손자를 부양하는 가족) 3가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달 일정금액의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100만원 상당의 재래식 김을 삼학동 동사무소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에는 군산교도소 불자직원들로 구성된 불심회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

익산 대원회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설 밑반찬을 제공했다. 익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추천받은 70가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래떡, 쇠고기, 김등을 전달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했다.

익산 능인회 부회장 김덕순 포교사는 설을 앞두고 굴비등 제수용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불교대학과 군법당, 군산교도소등에 전달했다. 열흘동안 굴비, 한과, 천마차 등을 판매한 김덕순 포교사는 125만원의 수익금으로 불교대학에 난방기구를 마련해 준 것을 비롯해 익산 관음사 어린이 법회, 군산교도소 법당, 임실 탄약창, 소년원 등에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석불사 석불좌상 또다시 땀흘려

한국전쟁, IMF 외환위기, 노전대통령 서거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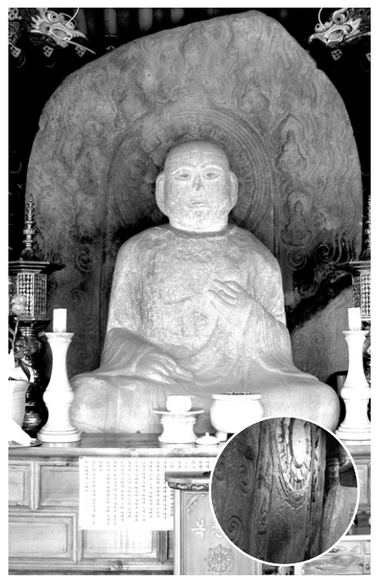
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길 때면 땀을 흘린다는 익산 석불사 (주지 휴암) 석불좌상이 또다시 땀을 흘려 나라에 중대사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석불사 종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2월 1일 오후 5시경 예불준비를 위해 법당에 들어갔다가 석불좌상이 땀을 흘리는 것을 발견했다” 며 “밤 10시 경까지 불두 부분을 제외한 가슴과 다리 광배부분이 흥건하게 젖었고 무릎부분에 고일 정도로 많은 양의 땀을 흘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후적인 영향이 인지는 모르겠지만 석불사 석불좌상이 국가적인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땀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고 스님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국가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석불사 석불좌상(보물45호)은 지난 한국전쟁과 IMF외환 위기,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리는 현상을 보인바 있다.

600년 경 백제 시대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석불사 석불좌상은 삼국시대 환조불로서 국내 최대의 것이며 광배 또한 최대 규모다. 높이가 156cm나 되는 규모로 당당한 자세로 얇게 표현된 법체에 통견의 법의를 결과부좌한 무릎 위로 흘러 덮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왜장이 석불의 머리부분을 훼손했으며 최근 이 부분이 복원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석불사 석불 좌상과 물방울이 맺힌 광배 부분(원안)

충청 지역 설맞이 자비나눔 ‘훈훈’

동학사 · 연각사 ‘자비의 쌀’ 전달

설날을 맞아 충청지역 사찰과 단체가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을 자비행을 펼쳤다. 계룡산 동학사(주지 유곡)는 2월 5일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

동학사는 자비의 쌀 총 3000kg으로 2000kg은 공주시에 기부해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공주노인복지센터에 지정 기탁된다. 또 은아유치원과 부루나어린이집, 자비원에 각각 300kg, 계룡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100kg을 전달했다.

부여 연각사(회주 불일)도 2월 6일 자비의 쌀 20kg 108포를 부여군에 기탁했다. 이 쌀은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된다. 노덕현 기자

로드킬로 죽은 동물들을 위한 천도재

광구전남불교신도회 2월 23일 광주 수자타 주차장서

고속도로에서 죽은 동물들을 위한 천도재가 봉행된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은 2월 23일 광주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 주차장에서 ‘제1회 교통사고 예방 · 안전운행 기원 및 로드킬(Road Kill) 희생영가 천도재’를 봉행한다.

로드킬은 서식지의 이동 통로를 잃어버린 야생동물들이 도로를 건너다 당하는 사고를 뜻하는 단어다.

이날 열리는 천도재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 고속도로에서 삶을 마감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안전한 차량운행을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는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이 주최하에 천자암 조실 활안 스님을 증명으로,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을 지도로 진행된다. 행사는 합동 천도재와 법요식, 안전운행기원 축수의식 순이다.

지용현 회장은 “이번 천도재를 계기로 운전을 조심하며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찰청 등과 협의해 해마다 교통안전을 위해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0년 2,069건, 2011년 상반기에만 1,374건의 로드킬이 발생했다. 비공식 사고까지 포함하며 훨씬 더 많은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다. 생태통로 확보 미비로 운전자들의 방어운행 만이 로드킬을 막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경찰청은 “야행동물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을 꼭 확인하고 감속운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062)385-1336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13년 아름다운 나눔 여행을 떠나요

자비신행회 2월 1일 정기총회 개최

광주지역 대표적 불교단체인 자비신행회가 정기총회를 갖고 2013년 ‘아름다운 나눔 여행을 떠나자’는 주제로 새해 중요 활동을 결의했다.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2월 1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대의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사업결산 승인과 함께 2013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 △나눔과 복지사업(부설기관: 행복한 쉼터/한꽃노인복지센터/십시일반 밥차/청소년복지/두손모아호스피스) △교육 · 문화사업(부설기관: 재가화엄학림/한꽃차문화아카데미/다예가/불교자원봉사자교육) △열린 공동체 사업(부설기관: 자비나눔 봉사단/한꽃시민선방/모금위원회) 등에 대한 사업내용을 결의했다.

나눔과 복지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행복한 쉼터의 안정적인 운영구조 확립과 노인복지센터, 청소년밑반찬, 십시일반 밥차 등 기존 복지사업들의 질적 성장과 히말라야 어린이 지원사업의 성과 배출을 목표로 한다.

교육 · 문화사업 분야는 재가 화엄학림의 열린참여형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차문화아카데미 전문화다.

열린공동체 사업은 자립형 운영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후원회원 개발과 모금 프로그램을 활성하며, 이를 전담할 조직구조를 상설화 할 것을 결의했다.

김영섭 사무처장은 “올해의 주요사업으로 행복한 쉼터의 복지서비스 다양화와 함께 개인 및 단체의 기금 출연자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모금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재정안정화 이루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53선지식과 함께 하는 지혜찾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책 읽는 모임 ‘보리수아래’ 출범

새 해을 맞아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가 53멘토와 함께하는 책 읽는 모임 ‘보리수아래’ 소모임을 시작한다.

‘보리수아래’는 53선지식을 상징하는 53명의 멘토가 릴레이로 책을 읽으며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명의 멘토가 정해지면 멘토가 선정한 책을 한 달 동안 읽고, 멘토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광주 전남지역에서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독서 모임은 최초다.

내용은 편견 깨트리기, 변화의 흐름 이해하기, 대안과 전망을 세우기, 시대를 읽는 눈 갖기(올바른 관점 갖기), 삶이 자유롭기 위한 길 찾기 등의 주제를 담아 멘토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멘토에는 지역 시인, 시민사회활동가, 교수, 종교인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한다. 행사는 준비모임을 거쳐 오는 3월 19일 시작한다. 행사는 시인이자 푸른광주21협의회 김경일 사무총장을 첫 멘토로 시작한다.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 책이 첫 모임의 주제 책으로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법일 스님은 “다양한 멘토가 감명깊게 읽은 책을 함께 공유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를 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3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3월 4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3월 5일 (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출강 및 통신 2013학년도 제22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2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3학년도 제22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 · 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불 교 석 학 과 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3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불교 넘어 시민단체로 새출발

부산전법도량 문화법인 '행복한 나눔' 발족



부산전법도량이 3월 문화법인체 '행복한 나눔'으로 새출발한다. 사진은 2012년 부산 연등축제에 연합으로 참가한 전법도량.

다문화 · 탈북자 등 이웃 위한 나눔문화 확산 운동 구심점

부산 불교계에 포교의 새바람을 일으켰던 부산전법도량(의장 원허, 혜원정사 주지)이 문화법인체 '행복한 나눔'으로 3월 새 출발한다.

부산전법도량은 2007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포교방법에 대한 순수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디지털시대, 급변하는 사회 흐름과 넘쳐나는 정보 속에 다양해진 부산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고 치유로써의 불교, 현시대의 포교방법에 대한 대안과 원력 속에 순수한 포교 교류 모임으로 태동했다.

현재는 12개 사찰이 회원사찰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전법도량은 매월 1회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 회원사찰을 순회하며 해당 사찰이 시행하고 있는 수행,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공유한다. 또한 회원사찰간 연합활동, 여타 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등으로 신선한 포교 바람을 일으키며 부산 불교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고 있으며 부산불자들의 귀감이 되어 왔다.

지난 2011년 태동한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스님)의 출범 역시 부산전법도량의 활약과 참여가 빚은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부산전법도량이 지난 12월 부산시청에 사단법인 '행복한 나눔'이란 문화법인체로 등록하면서 부산불교계를 넘어 시민사회단체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3월 창립을 앞두고 있는 '행복한 나눔' 초대이사장 원허 스님은 "행복한 나눔은 평소 문화예술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 참여와 체험의 기회를 통해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평등과 평화의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설립취지를 전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 사업으로 "문화예술공연 및 교육사업, 소외 계층에 나눔문화 확산 및 후원사업,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홈스테이 추진 및 교육사업, 새터민 정착지원 및 봉사자 연계사업, 문화적 약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서비스사업,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학술 및 정책 세미나사업, 재능기부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사업 등을 기본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한 나눔'으로 새출발 하는 부산전법도량은 혜원정사(주지 원허 스님), 홍법사(주지 심산스님), 미타선원(주지 하림 스님), 대광명사(주지 목종 스님), 황련사(주지 정산 스님), 해남사(주지 만초 스님), 수도사(주지 일철 스님), 진홍사(주지 정법스님), 연화사(주지 의정 스님), 대승사(주지 도영 스님), 정원사(주지 지각 스님), 해광사(주지 혜성 스님) 이상 12개 사찰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부산전법도량은 공익 단체인 '행복한 나눔'의 출범 이후에도 순수한 불교 포교 교류의 모임의 취지를 살려 명칭과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행복한 나눔'의 창립총회는 다음달 3월18일 오후7시 부산 혜원정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민화 배우며 한국의 情 느꼈죠"

삼광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민화전시회

다종교 · 다문화 시대 평화와 상생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훈훈한 전시가 마련됐다.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스님)는 설을 앞두고 다종교인 및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한국 전통 민화 전시회 '마음을 담은 그림' 전을 개최했다.

2월 2일~12일까지 삼광사 지관전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백도웅 목사, 주락길 천주교 수사, 김대선 원불교평양교구장을 비롯한 이웃종교 지도자들과 부산에 정착한 이주민, 시민불자 1천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민화 작품들은 총 35점으로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전통민화를 체험하고 배우며 이번 전시까지 이르게 됐다. 출품작들은 조선시대 민화의 대표 작품인 까치호랑이를 비롯해 문자도, 어해도 등 전통적인 소재를 다룬 작품들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무원 스님은 참가한 다문화인들에게 쌀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빠른 지역정착을 위해 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잘 적응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삼광사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민화 전시회를 2월 2~12일까지 개최했다.

"환희심 넘치는 도량 만들 터"

황해사 주지에 문덕 스님 취임

포항 황해사는 2월 5일 주지 이문덕 스님의 취임식을 4층 대웅보전에서 가졌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감사원장 춘광 스님, 포항사암연합회장 덕화 스님, 그리고 각 지역 주지 소임 스님과 회장단, 박성화 포항시장 등 각계 기관장 등 사부대중 5백 여명이 참석했다.

문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찰은 수행의 공간으로 바른 삶, 진정한 행복을 위해 세워진 사회실천 문화공간의 요람이다. 이웃과 함께 환희심이 넘치는 도량을 만들 것이다. 수행을 통해 불보살님의 가피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해 나가자"며 의지를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2회 梵語 시 낭송회

2월 3일 통도사서… 100여 명 참가

한국범어연구원(원장 도웅스님)은 2월3일 영축총림 통도사 자비도량에서 제2회 범어 시 낭송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오심 스님과 주한 인도대사관 스리 아자이 짠드뿌리아 무관 대령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함께했다.

도웅 스님은 "부처님 당시 언어로 원문의 의미를 되살려 환희심을 고취하고자 범어 시 낭송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도웅 스님과 범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약왕보살 다라니, 제불방편력, 보현보살 다라니 등 법화경 게송을 범어로 낭송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대웅전 앞 화주보살

어느 절이나 불사가 없는 절은 없다. 오래된 건물이 퇴락해서 대보수를 하는 경우, 기와가 낡아서 번와를 하는 경우, 기둥이 썩어서 갈아 넣는 경우 등과 같이 기존의 건물이나 구조물 혹은 시설물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새로 건물을 짓거나 구조물을 축조하거나, 시설물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오래전부터 사찰의 불사는 그 사찰의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화주보살이 되어 불사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창이나 중건불사를 위해 건물을 해체하거나 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상량문이나 연기문을 보면 무슨 연유 때문에 누가 언제 시주를 했으며, 그 당시 주지스님은 누구이고 화주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사찰의 불사는 일차적으로 그 절의 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보태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최근에는 사찰에서 불교대학이나 박물관대학, 템플스테이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불사금을 마련하기도 한다. 또한 찻집이나 서점, 음식점을 운영하여 얻어지는 이익금을 불사금으로 쓰기도 한다. 이것을 보면 과거에 불자들에게만 의지했던 불사금 마련이 점차 사찰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사금 마련의 한 방법으로 기와를 시주받는 경우가 있다. 기와에 소원을 적어 그 기와를 사찰에 봉납하는 방법인데, 보통 기와 한 장에 만원 정도를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서인지 여러 사찰에서 불사금을 모으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불사가 없어도 일년내내 기와시주를 받는 사찰도 있어 절에 가는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기도 한다. 더구나 사찰의 가장 중요한 대웅전 마당에도 판을 펼치고 기와시주를 받는 사찰도 있어 보기에 좋지가 않다. 사찰의 중심공간은 다양한 신앙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며 한편으로는 존숭되어야 할 공간이기 때문이다.

기와시주를 통해서 불사에 참여하는 것은 불자들에게는 복전을 일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소속 사찰의 불사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기와시주를 받는 방법은 조금 더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불사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대웅전 마당에서 기와시주를 받는 것은 보기에 좋지가 않다. 충남 ㄱ사찰

참선지혜
활인선원의 3일간의 깨달음
선회 3일, 수련회 6일 – 금강단식
〈봄방학 특별〉 청소년 대학생 일반
일상생활의 갈등과 어렵고 힘든 삶을 참선지혜로 거뜬하게 해결하세요.
금강단식 효과 지대함 면역성 피부미용질환 금연금주간단해결 고혈압당뇨 각종질환 정신예방치유 다이어트1일최고 3kg
선회3일 2월입재/2월 15일(금) 오후 5시, 회향/2월 17일(일) 오후 5시
3월입재/3월 22일(금) 오후 5시, 회향/3월 24일(일) 오후 5시
수련회6일 2월입재/2월 15일(금) 오후 5시, 회향/2월 17일(일) 오후 5시
3월입재/3월 22일(금) 오후 5시, 회향/3월 24일(일) 오후 5시
지혜의 확장-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크고 작은 가정과 직장 대인관계 등 일상에서 격는 생활의 모든 문제를 지혜로 풀어가는 것이 지혜를 확장하는 길이다. 그것이 높은 지혜를 발휘하게 한다. 현대사회에서 격는 물질 돈 이성 스트레스 취업 직장동료 · 상하관계 가족관계 제반 문제와 갈등을 몸에 배어있는 관행에 맡기지 말고, 지혜로 접근하다보면 의외로 주저앉거나 포기해왔던 어렵고 복잡한 골치 아픈 일들이 신기하리만큼 가볍게 해결되고 가뿐해진다.
제주원명선원 중앙선방
행복제작소 활인선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번지 ☎ 1644-5266 / 070-7519-9929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통합검색 '활인선원'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미륵골 보리사 석조여래좌상을 답사하고 있는 답사단. 이곳 석조여래좌상은 경주 남산의 불상 중 보존 상태가 양호해 처음 불상을 접하는 사람에게 좋은 문화재이다.



탑골마애조성군 동면에 새겨진 아미타여래. 위로는 비천상이 있으며 양 옆에는 협시보살이 있다.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 연구소장이 탑골마애조성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답사단이 마애불 앞 펼쳐진 풍광의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남산의 사방은 부처요, 곳곳이 정토라

신라인들의 불상 조성 사상을 찾아서

경주 남산에는 약 120여 구의 불상이 계곡 곳곳에 산재돼 있다. 일부는 사찰에 봉안돼 있기도 하고, 어떤 불상은 노천에서 경주를 굽어본다. 신라인들은 왜 경주의 주산(主山)인 남산에 수많은 불상들을 세운 것일까?

경주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의 2월 남산 불적답사의 주제는 '신라인들의 불상 조성 사상을 찾아서'. 말 그대로 신라인들이 왜 불상을 조성했는지를 되새기는 것이다. 하지만 답사의 해설 맡은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 연구소장은 쉽게 답을 주지 않는다. 현재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사는 그 시대 사람들의 궤적을 좇는데 서 시작된다.

아름다워라! 보리사 석조여래

남산의 미륵골 안 대숲을 따라 한참을 오르면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인 보리사가 있다. 보리사는 복원된 남산 사찰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분위기 역시 매우 아늑하다. 이 사찰을 대표하는 성보 문화재는 보물 제136호 석조여래좌상이다.

이 석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전체 높이는 4.36m, 불상 높이는 2.44m에 이른다. 그 보존 상태가 양호해 처음 불상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답사 시작 전 최 소장은 불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광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선이 어떻게 불상에 비추냐에 따라 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의 석조여래좌상의 경우 하지를 전후로 한 달 간 오전에 일찍 오면 산 너머에 빛이 들어 불상을 비춥니다. 이렇듯 남산의 불상에는 최적의 광선을 만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고 찾아오면 더욱 좋습니다."

석조여래좌상은 팔각복련 대좌 위에 팔각기둥을 세우고, 다시 그 위에 둥글고 부드러운 양련대좌가 얹혀 있다. 하얀 화강암으로 조성된 이 여래상은 둥근 연꽃 대좌에 결가부좌한 채 긴 눈을 가늘게 뜨고 사바세계를 굽어보고 있다.

신광과 두광으로 된 광배는 화려하고 찬란하다. 부처의 32길상 중 15번째인 장광상을 표현한 광배는 그 기법이 매우 세밀하다. 하지만 오래 전 윗부분이 깨져 후대에 보수했으나 옛 모습을 전부 살려내지 못했다.

불상의 광배 뒷면에는 모든 질병을 구제한다는 의미의 약사여래상이 가는 선으로 새겨져 있어 그 형식이 독특하다. 한국에서는 흔히 찾아 볼 수 없는 구조다. 또한 이를 통해 앞에 있는 석불좌상이 아미타여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게 최 소장의 설명이다.

"후면의 약사여래는 동방 유리광세계를 제도하는 약사여래입니다. 동방유리세계의 반대편은 서방 극락세계이지요. 이 불상이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어 석가여래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당시에는 수인에 일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석굴암 조성 이후에는 이를 모방해 항마촉지인상으로 만들어진 불상들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 석조여래좌상은 아미타여래로 봐야 합니다."

인근에 위치해 보리사 마애석불이라고도 불리는 미륵골 마애여래좌상(지방문화재 제193호)은 보리사 옆 가파른 산비탈을 5분 정도 타고 올라가야 만날 수 있다. 경사가 급한 산 허리에 큰 바위가 솟아 있는데 그 벽면에 여래좌상이 새겨져 있다. 이 불상은 사람의 왕래가 드문 산 속에 그야말로 숨겨져 있다. 바위 전체가 약간 앞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여래상이 사바세계를 자비로이 내려다보고 있는 듯하다. 이곳 산 중턱에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서라벌의 전경이 펼쳐진다.

남산 불상 감상 위해선
태양광 위치 · 시간 중요

웅장한 탑골 마애조상군은
사방사불정토신앙을 표현
자애로운 부처님 미소에
세속의 근심을 내려놓다

저 수많은 불상들을 누가 새겼을까?

동남산 탑골 마을의 얕으막한 여울을 따라 오르면 옥룡암이라는 조그마한 암자가 있다. 이곳에는 일명 '부처바위'라고 불리우는 보물 제201호 탑골 마애조상군이 자리한다. 높이 9m에 둘레가 30m가 되는 큰 바위의 사면에는 여래상, 보살상, 비천상, 나한상, 탑과 사자상 등이 빼곡히 새겨져 있다. 이 바위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려면 특유의 '사방사불정토(四方四佛淨土)' 신앙을 알아야한다는 게 최 소장의 주장이다.

"수 많은 경전에는 사방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사방에 이뤄진 불국을 사방사불정토라고 합니다. 이들 부처들의 존명은 경전마다 상이해 사방불의 존명을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신라시대의 경우 모시고 싶은 부처를 사방에 배치해 예경했으므로 존명을 알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곳 조성군은 계획적으로 사방불을 조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라 특유의 사방사불정토신앙이 녹아져 있습니다."

사면의 도상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북쪽과 동쪽이다. 북면에는 부처의 도상과 함께 양쪽에 9층과 7층 목탑이 표현됐다. 이들 탑 도상들이 신라의 목탑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황룡사 9층 목탑을 위시해 옛 경주에 솟아있던 목조기와탑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동면의 도상은 사면 중 가장 화려하다. 이곳에는 극락정토의 주불인 아미타여래와 양 협시보살상, 비천상이 새겨져 있는 모습이다. 주불인 아미타여래의 모습은 어디에도 긴장된 곳이 없고 부드럽고 차분하게 표현됐다. 한없이 부드러운 두 뺨, 꼭 다문 입술, 그 언저리에 맑은 웃음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부처와 협시보살을 위시해 위로는 6명의 비천상이 날고 있다. 모두 꽃 접시를 들거나 합장해 부처님을 예경하고 있는 모습이다. 암벽의 북쪽 아래에는 희미하게 스님이 향로를 받들고 염불하는 모습이 새겨졌다. 모두 지극히 부처를 생각한 신라인들의 애절한 신앙의 소산들이다.

남산의 유일한 삼국시대 불상들

마애 조상군을 뒤로하고 찾은 곳은 부처골 감실여래좌상이다. 부처골의 어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좁다. 이곳에 '누가 부처를 모셨을까' 싶지만, 길을 따라 오르면 이내 큰 바위 안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

돌집 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감실 여래는 한없이 편안한 모습이다. 다소곳이 살짝 숙인 호상이며, 초생달 같은 눈썹, 그 아래로 부드러운 눈시울은 삼매에 든 부처를 보여준다. 소담한 곡면은 입술 양가 홈에 아리어 한없는 웃음을 자아낸다.

이 감실 주위에는 원래 축대를 세워 지붕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감실 부처 주변 바닥에는 기와의 파편이 많다. 모두 부처를 제대로 예경하기 위한 신라인들의 불심(佛心)이다.

장창곡 제10사지는 감실여래와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한다. 감실여래와 장창곡 제10사지 출토 석조미륵삼존불상은 모두 같은 특징을 가진다. 남산 유일의 삼국시대 조성 불상이라는 점이다. 장창곡 제10사지 출토 석조미륵삼존불상, 일명 애기부처상은 현재 경주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그 옛날 일연 스님은 "서라벌에는 17만 8936호가 모두 기와집으로 줄지어 있었는데 별을 뿌려 놓은 듯 절이 많았고, 기러기 줄 지어 가듯 탑이 많았다"고 술회했다. 그런 의미에서 천년 고도 경주의 남산은 신라인에게는 주불(主佛)과 같지 않았을까. 불국토 남산을 중심으로 형성됐을 수많은 사찰들이 서라벌을 하나의 큰 사찰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이 사실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석조 불상들의 희미한 미소만이 천년을 이어올 뿐이다.

경주=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사 · 신라문화원
3월 경주 남산불적답사 일정

- 주제 : 남산에서 만나는 신라의 전설
- 일시 : 3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
- 준비물 : 간단한 필기구, 도시락
- 동참 비용 : 2만원 (회원, 학생 1만8천원)
- 문의 : 054)774-1950, www.silla.or.kr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ø×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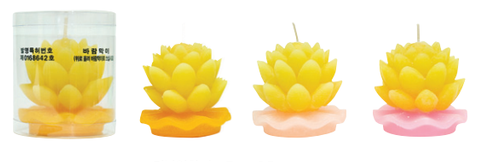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ø× 34㎝



육각초 7.0ø× 34



연화 大 9.5ø× 11㎝, 연화 中 9ø× 10㎝, 연화 小 7ø× 6.5㎝



밀납연화 小 7ø× 6.5㎝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향수림



백목향,목향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생태사회와 불교

축산업과 육식문화의 종말

채식은 인류 구하는 대안적 살림살이



2010~2011년 발생한 구제역 사태로 살처분된 돼지들과〈사진 왼쪽〉 채식 뷔페 식당에서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사진 오른쪽〉 구제역은 무분별한 식육 문화가 가져온 폐해 중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채식은 지구를 건강하게 해줄 식문화이다.

이효리, 이하늬 배종옥의 공통점은

모두 채식주의자라는 점이다. 이외에도 한가인, 안선영, 최여진, 박진영등의 연예인들은 모두 채식을 선언한 연예인들이다. 특히 건강한 미녀연예인인 이효리씨는 한때 한우홍보대사였지만 생각을 바꾸어 동물보호운동과 모피반대운동을 벌이고, 유기견 보호활동을 전개하는 대표적인 채식주의자이다. 제레미 레프킨의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고 8년 넘게 채식을 하는 이하늬씨, 탄탄한 몸을 유지하는 남자배우 송일국씨도 채식주의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완벽한 몸매와 건강미인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는 소고기뿐아니라 삼겹살부터 보쌈, 족발, 치킨, 곱창 등 식탁에서 육류가 차지 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1980년에 1인당 섭취량이 13.9kg였던 것이 2010년에는 43.5kg로 3배넘게 증가했고, 1인당 하루 평균 118.6g의 육류를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육류소비는 몸에 많은 독소를 만들어 광우병뿐아니라 온갖 성인병의 원인이 되며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채식을 하면 한결 몸이 가벼워지고 운동을 해도 힘이 덜든다. 뿐아니라 분노와 충동적 행동이 적어지고 훨씬 평안하고 온화한 성격이 된다고 한다.

또한 몸을 정화시키고 치유를 해주는 약선음식이 되기도 한다. 암이나 기타 질병치료에도 큰 효과를 갖게 하며, 노화를 느리게하며 수명연장의 효과도 있다.

생명이 있는 것을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수단을 써서 죽이기고 부추기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워 죽여서도 안된다. 생명이 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되나니, 구도자는 항상 자비스런 마음과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이웃을 구제해야 한다. 그런데 도리어 방자한 생각과 통쾌한 마음으로 산것을 죽인다면 그것은 큰죄가 된다. 〈범망경〉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메탄가스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CO2)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치명적인 것은 가축의 똥오줌에서 나오는 메탄가스(CH4)다. 육식이 빠지지 않는 서양식단의 고기를 올려 놓기 위해, 브라질의 열대우림은 1분마다 36개의 축구장이, 인도네시아는 1개의 축구장 면적이 사라지며, 벌목된 지역 70%가 축산업을 위한 부지로 이용되며, 또는 축산업의 사료 용도의 콩이나 옥수수 재배를 위해 사라지고 있다.

유엔 FAO의 보고서 '가축의 어두운 그림자(Livestock's Long Shadow)'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최대 원인은 축산업이며, 온난화에 약 50%의 기여를 한다고 발표했다. 중요한 것은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메탄의 입자 하나가 이산화탄소 입자 하나보다 온난화에 72배의 악영향을 준다는 점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산화탄소는 대기중에 오래남아 있지만, 메탄은 대기중에 10년 이내로 사라지는 단기성 가스이다.

무슨 말일까? 첫째로 육식을 위한 축산업이 줄어들면 지구온난화 원인의 반이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이다. 둘째로 이산화탄소는 지금 줄이면 온난화 방지 효과가 2~30년 뒤에 나타나지만, 메탄은 줄이면 효과가 2~3년안에 즉시 나타난다는 뜻이다. 그리고 강의 수질오염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축산농가의 분뇨와 폐기물이다. 또한 해양오염으로 '죽음의 해역'이라고 불리는 곳도 바로 축산업에서 흘러나오는 화학비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또 있다. 아산화질소(N2O)는 지구온난화에 이산화탄소보다 300배 강한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중 하나이다. 축산업이 바로 아살화질소 배출에 65%를 기여한다. 그리고 이른바 탄소검댕(블랙카본)도 이산화탄소보다 680배의 온난화유발을 하는데 이 역시 열대우림 등 산림을 태우면서 나온 것이다. 결국 육류소비를 위한 축산업이 열대우림 파괴, 사막화, 수질오염. 해양오염의 주원인이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하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것이다. 그러나 채식을 하게 되면 온난화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즉시 나타나고, 각종 오염도 빨리 막아낼 수 있다.

1명의 고기 소비가 12명의 곡식 소비

현재 곡물생산량은 인류 전체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다. 그런데도 매년 10억명의 인구가 굶주리고 6백만명의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다. 5초마다 아이 한명이 죽는 것이다. 반대로 10억명의 인구는 지나친 고기섭취와 과식으로 비만과 그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암과 동맥경화, 골다공증, 당뇨병등 만성질환의 대수가 고기와 생선때문이며, 고기의 사료등에 첨가된 인공호르몬과 화학성물질을 섭취로 인해 더욱 인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kg의 고기를 생산하는데 6~12kg의 곡물이 소모된다. 결국 한명에게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는 최소 6명에서 12명이 먹을 곡식을 소비하는 것이며, 육류생산에는 10배의 물을 더 소비하게 만든다. 만약 채식을 할 경우 깨끗한 물의 70%를 보존할 수 있고, 아마존 열대우림의 70%를 보호할 수 있으며, 화석연료를 3분의 2를 절약할수 있다. 또한 분뇨로 인한 오염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줄이며 지구온난화에 80%를 줄일수 있고 그 효과를 단시일 내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채식하면 분노와 충동적 행동 완화
육류생산에는 10배의 물 더 소비
육식 위한 축산업 줄면 지구온난화 해소
불교 전통인 채식문화 확산에 주력해야

서양의 채식주의의 종류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베지테리안(Vegetarian)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서양에서 분류하는 채식주의는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가 있다. 육식을 먹긴하지만 조금 멀리하는 준채식(Semi)이 있고, 붉은 육류는 안먹고 조류 즉 닭고기만 먹는 닭고기채식(Pollo), 생선까지는 먹는 생선채식주의 (Pesco), 유제품, 치즈, 달걀까지 먹는 유란채식 (Lacto-Ovo), 계란류까지만 먹는 난유채식(Ovo), 우유는 먹는 채식 (Lacto), 우유나 달걀도 일체 안먹는 채식 (Vegan)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나아가는 채식도 있다. 볶은 곡식만을 먹는 화식채식 (Roastarian), 삶고 굽지 않는 생식채식 (Raw), 씨앗와 새싹만 먹는 채식 (Sproutarian), 식물의 생명도 존중하여 열매와 과일만 먹는 과일채식 (Fruitarian)이 있다. 대체로 비건(Vegan)채식주의부터 완전한 채식으로 간주한다. 여기에 더 있다면 채식을 주로하지만 융통성있게 육류도 섭취하는 플랙시테리안 (Flexitarian)등이 있다.

육식은 행동마다 중생을 두렵게 한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 인연과보를 믿는 불자들이라면, 인간이 먹기위해, 죽지 않으려고 돼지와 소를 도살장에 강제로 끌고가 피를 쏟으며 죽게하는, 생명에 가한 고통에 대한 악행의 과보를 인간은 어디선가 받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다. 〈대반열반경〉에는 가섭존자의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 "고기를 먹는 것은 자비의 종자를 끊는 것이다. 육식을 하는 자는 몸에서 고기냄새를 풍겨, 하는 행동마다 살기를 느끼게 하고 모든 중생을 두렵게만든다"고 육식을 금지하는 말씀을 길게 하셨다. 육식을 위해 살아있는 생명의 피와 살을 자르고 갈라 먹는 경험에 익숙해지고 이러한 살육의 에너지, 폭력의 에너지가 사회에 만연되면서 인간들끼리 총칼로 피를 부르며 살육을 하는 에너지를 만든 것이다. 어쩌면 죽은 소와 돼지 닭등의 원한과 통한이 고스란히 축적되어 인간끼리의 분노와 대립, 갈등의 폭력의 마음으로 축적되었고, 급기야 지구온난화 등 환경파괴 위기로 그 과보가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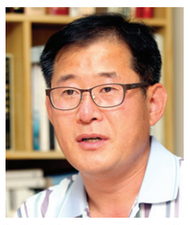
물 한방울에 있는 팔만사천마리의 생명

5계중에 첫 번째 계율이 바로 불살생(不殺生)계율이다. 그리고 발우공양 때 염송하는 소심경의 정식게에 물 한방울에도 팔만사천마리의 생명이 살고 있어 생각없이 마시면 결국 살생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중생들을 생각하고, 음식이 내앞에 오기까지의 많은 공덕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감사하며 스스로 자격이 있는지를 돌아본다. 그래서 음식을 맛에 탐닉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보살행을 하기 위한 약으로 먹고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서원을 다짐한다.

대체로 일반인들은 "불교는 고기먹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시대를 돌고돌아와 보니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수많은 중생을 살리고, 결국 지구온난화를 막아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전세계 인간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동물의 고기를 죽임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람들간의 살육과 대립의 에너지를 치유하는 것도 바로 불생생의 실천인 채식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미 채식이 중요한 관습으로 내려오고 있는 불교는 이제 물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보다 더 철저한 채식운동을 나서서 전개해야 하고, 바루공양의 전통을 살려 음식물은 남기지 않는 빈그릇운동, 식사를 거룩한 공양으로 자신의 수행을 돌아보며 천천히 먹는 운동, 또한 만중생의 노고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갚으며, 밥값을 하고 사는 삶의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자.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먹으면 힘을 쓸수 없다고? 걱정마시라, 풀만 먹는 소나 코끼리는 힘만 세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탄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토호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보하는 곳!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불교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13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Ⅰ. 사정원칙 및 유의사항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졸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불교학과_승가학과_역경학과는 정규반과 통신반을 선택 지원할 수 있으며, 통신반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한다.
4. 범패학과_불교미술학과_역경학과 신입생은 매년 학년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5. 불교미술학과 연구과정은 1년 또는 2년 과정을 선택 지원할 수 있다.
6.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 · 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단, 역경학과는 출가자의 경우 본 종단의 교육이수의무를 충족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성승려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 재가자는 전문대 졸업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득한 자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7.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승가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역경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불교미술학과	본과	00명	3년제	정규반
	연구과정	00명	1년제 / 2년제	정규반

Ⅲ. 전형일정

학 과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2. 12. 24(월) ~2013. 2. 18(월) 17:00	• 본교 교학처 • 인터넷 교부 ·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13. 2. 18(월) 18: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입학전형 (필기_실기_면접)	2013. 2. 19(화) 10:00 ~ 16:00	• 본교 강당 및 강의실
합격자 발표	2013. 2. 19(화) 17: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입학전형의 필기_실기_면접고사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Ⅳ.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 · 불교회화를 수학하고자 하는 자
3.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 · 불교회화를 수학하고자 하는 자

※ 단, 역경학과는 졸가자의 경우 본 종단의 교육이수의무를 충족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성승려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 재가자는 전문대 졸업 이상 이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득한 자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Ⅴ. 접수서류 및 접수방법

학과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 통	1.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6.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7. 사진: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1. 본교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우편 발송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 2. 인터넷 원서교부 및 접수한 경우 원서를 출력해 사진부착 후 여타 제출서류와 함께 본교 교학처로 등기발송 3. 접수처 :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Ⅵ. 전형료

1. 불교학과_승가학과_역경학과 : 50,000원
2. 범패학과_불교미술학과 : 60,000원

※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본 종단의 포교사자격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과 재학 중 각종 장학제도 등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학사행정>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www.dongbang.org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TEL:(02)745-2030 FAX:(02)744-3461

불교와 미학

불교 미술의 주인공은?

무수한 부처님… 서로 비추는 거울



충청남도 시도유형문화재 제165호 갑사소조삼세불. 중앙에 석가모니불, 우측에는 아미타불, 좌측에는 약사여래가 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4대 협시보살이 봉안됐다. 이 같이 수많은 부처가 있는 것은 부처의 자비 공덕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항상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몇 년 전 기독교 계통의 대학연구소에서 몇 차례 사찰 건축에 대한 특강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대학의 채플관이 독특하게 원형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함께 공부했던 건축과 교수와 그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다. 그 분은 이 독특한 설계에 대해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했지만, 후에 교회 건축양식으로 알려진 로마네스크 양식이나 고딕양식이 모두 로마의 건축양식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설명으로 그 반발을 누그러뜨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교회 건축양식이 로마 건축에서 발전한 것이라는 그 분의 설명에 수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수직적인 상승을 강조하는 기존의 교회건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수평적인 원형 구조가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무엇보다도 원형의 공간 구성 방식은 유일신을 정점으로 하여 모든 존재의 위계질서가 정해지는 기독교 신학과 잘 맞지 않는다. 원형은 내부의 모든 공간을 균질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떤 한 지점도 특권적인 장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원형 건물로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과 판테온이 있지만, 원형경기장인 콜로세움의 세속성은 물론이고 판테온 역시 지금은 가톨릭 성당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 로마의 신들을 위한 만신전이었으니, 기독교인들에게 원형이 이교도의 건축양식으로 각인된 데에는 그만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셈이다.

1980년대 이후 불교계에서 대불(大佛)뿐 아니라 천불(千佛), 삼천불, 만불(萬佛)을 조성하는 대형불사가 성행했다. 개인적으로 대형불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천불'과 '만불'은 그 개념만 두고 생각해본다면 불교만의 독특한 개념이 아닌가 싶다.

오직 하나의 신을 말하는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천 명의 신, 만 명의 절대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천 분, 만 분, 나아가 '천백억 석가모니불'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기독교인들은 다수의 절대자라는 표현에 대해 신성모독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불교에서 부처님의 복수성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그 탁월함의 또 다른 표현으로 간주된다.

또한 부처님은 제각각의 이름과 역할, 능력과 위상에서 차이가 있는 로마의 신들과도 다르다. 로마의 신들은 천계에 살면서 인간보다 힘도 더 세고 장수를 누리지만, 그들 사이에는 위계질서가 있다. 하지만 로마의 최고신인 주피터는 아래 등급의 신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 아내 헤라의 여신에게도 늘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신세다. 그들이 관장하는 영역도 제한적이어서 하늘의 신인 주피터는 바다의 신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바다의 신은 땅의 신을 어쩌지 못한다. 술과 음악의 신인 바쿠스는 하루도 멀쩡한 날이 없다.

이와 달리, 부처님은 신도 아니며 인간도 아닌, 인간과 신의 경계를 초월한 존재이다. 그러나 사실 '존재'라는 말도 맞지 않다. 무상정등각을 이룬 이는 모두 여래이며 응공이며 정변지이며 세존이다. 과거와 현재의 무수한 존재들이 그렇게 부처님이 되었고 미래에 존재하게 될 중생들도 그렇게 부처님이 될 것이다. 또한 동방과 서방, 남방과 북방, 그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와 관계없이 모두 부처가 된다.

그러므로 우주는 부처님으로 가득 차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이 존재하며 동서남북 사유상하에 부처님이 존재한다. 이름이 서로 다른 수많은 부처님이 있으며, 동일한 이름을 가진 부처님도 무수히 많다. 그 부처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증명한다. 천 분의 부처님이든, 만 분의 부처님이든,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상스님은 〈법성게〉에서 이처럼 하나가 여럿이 되고 여럿이 하나가 되는 제불의 경계를 노래하였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법화경의 설주인 석가모니불도, 화엄경의 회주인 비로자나 부처님도 홀로 등장하는 법이 없다. 수많은 불보살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출현한다. 그러나 이들 불보살은 단순한 배경인물에 그치지 않고 주존불과 협시불이 서로 조응하고 증명하는 가운데 중중무진의 법계를 완성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이렇듯 불교미술의 주인공은 부처님 한 분만이 아니다.

불상 조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찰 규모가 제법 큰 사찰 가운데 대웅전에 부처님 한 분만 모셔놓은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조각은 그 조성의 어려움이나 공간적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천불이나 만불보다 더 적은 수의 불상이 선호되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조성되는 형식은 중앙의 주존불과 좌우의 협시불, 또는 협시보살로 이루어지는 삼존불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또는 지장보살의 조합이 있으며, 석가모니불을 주존으로 하여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협시보살로 두는 형식이 있다. 석가모니불을 주존으로 하는 경우, 충남 서산의 마애삼존불과 같이 인도에서 유행했던 미륵보살과 관세음보살을 협시보살로 두는 경우도 가끔 보인다.

부처님, 인간과 신 경계 초월
공덕과 자비상징… 대승철학 표현

"삼세의 부처님 지켜보고 있다
수행자들이여 두렵지 않은가"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주존불 외에 좌우의 협시보살을 두었을까? 주존불만으로 부족했던 것일까? 이 형식은 너무 흔해서 간과하기 쉽지만 다른 종교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불교만의 독자적인 성상 배치형식이다. 그 바탕에는 대승불교의 독창적이며 심원한 철학이 있다.

아미타 삼존상의 경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그리고 지장보살은 아미타불이 원력으로 건설한 극락세계로 중생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아미타불의 본원을 실현하기 위한 존재들이지만, 그 자체 아미타불의 자비와 구제력을 표상한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아미타불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석가모니불의 협시보살인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지혜와 원행(行願)을 상징한다. 미륵보살의 경우, 미래의 중생구제를 표시하는 것이니까 이 모든 보살들은 부처님의 중생구제의 원력을 더욱 구체적으로 현시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협시보살들은 본존불의 보조자가 아니라 본존불 그 자체이며 본존불을 비추는 거울이다.

아미타불과 석가모니불이 이들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까닭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그들은 체(體)이며 영원한 현재이며 '예부터 변치 않는 본질'이기 때문에 근본의 위치인 정중앙에서 부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주존불이 방사하는 빛에 의해서 비로소 협시보살들은 주존불을 비추고 모든 존재들을 비추게 된다. 그러므로 삼존불은 전체와 부분, 중심과 주변, 그리고 체와 용이 서로 의지하면서 삼투하는 법계의 조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세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배치되는 삼세불과 삼신불이 있다. 삼세불이란 현세의 부처님인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석가모니불에게 장차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준 연등불(燃燈佛)과 석가모니불 열반 이후에 출현하여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불을 좌우에 두는 형식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 갈라보살(竭羅菩薩)과 미륵보살을 두기도 한다. 삼세불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부처님이 계셨고 그 후에도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는다. 과거불은 과거에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린 부처님일까? 또는 열반 후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는 것일까? 정말 그렇다면 과거불인 다보불이 현재 부처님인 석가모니불의 법회를 증명하기 위해 출현하는 〈법화경〉의 상황은 도대체 가능한 것일까? 또한 현재의 마음도 없고 과거의 마음도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없다는 〈금강경〉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근본적으로 부처에게는 시간이라는 차원이 없다. 부처님이 반열반에 든 것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라짐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부처는 시간적인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삼세의 부처님도 다 허망한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삼세불이 이야기하려는 낙처는 다른 곳에 있다.

연등불은 전생의 석가모니불에게 수기를 준 인물이다.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살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았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수행했는지 그 현장을 지켜보았던 분이다. 용수가 말했듯이 부처님의 몸은 무한한 과거 생을 통하여 자비로운 행위의 결과이다. 연등불은 부처님의 현재의 몸이 그 공덕과 자비의 결과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 계신 것이다. 과거에 이미 수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륵불은 그 공덕과 자비의 무한함을 보여준다. 미래가 오더라도,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도 부처님은 변치 않고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의 몸이라는 사실을 석가모니불의 또 다른 분신인 미륵불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대승의 길은 자비의 길이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길이다. 과거의 연등부처님이 석가모니불의 공덕과 자비를 증명하였듯이 지금 모든 부처님이 지켜보고 있다.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공덕과 자비를. 두렵지 않은가, 수행자들이여!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마음의 손으로 쓰는 Diary



마음 다이어리는 하루하루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 가기 위한 빈 그릇입니다. 하루 중에 만난 사람들,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들고 나는 마음들을 살펴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비워낸 그 자리에 마음의 꽃을 피우면서
변화해 가는 '나'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 가격 : 1권 13,000원 (택배비 별도)
■ 문의 : 02)2004-8215

2013년 '마음다이어리'는 대행선사를 추모하며 스님의 유품과 말씀을 엮은 특별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매달 생활의 지침이 될 법어와 '임효화백'의 그림이 어우러져 다이어리의 가치와 품격을 더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의 일정과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을 상 · 하반기로 나누었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마음 그릇을 비우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면서 마음 꽃을 피워봅시다.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부터! 자신을 완성시켜가는 여섯 가지 가치인 육바라밀과 자비를 실천하며
마음의 향기를 더해가세요 –

무심한 사람…일체의 마음이 없다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6〉



범어사 주지

이처럼 밝고 어두운 경계가 서로 바뀐다 해도, 허공의 성품은 둑 트이어 변하지 않는다.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이와 같다.

〈화엄경〉에 '심불급중생(心佛及衆生) 시삼무차별(是三無差別)' 이라고 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는 뜻이다. 단지 부처, 중생,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여 구분을 지을 뿐, 깨달은 사람의 안목으로는 그것보다 더한 것이 뒤엉킨다 하더라도 결코 분별하지 않는다. 허공이 온갖 구름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허공 본래의 모습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처럼, 부처와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바탕인 체성도 비록 수없이 많은 그림자를 그려낸다고 해도 그 본래의 모습은 둘이 있을 수 없다. 허공은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아니듯이, 부처와 중생 또한 그 바탕은 같다는 뜻이다.

만약 부처를 관(觀)하면서 청정하고 광명한 해탈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중생을 관하면서 더럽고 어두우며 나고 죽는 모습을 떠올릴지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겉모양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이 한 마음일 뿐, 다시 티끌만큼의 어떤 법도 얻을 수 없으니,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지금 도를 배우는 이들은 이 심체(心體)를 깨닫지 못하니, 다시 마음에서 마음을 일으켜 밖으로 부처를 구하며 모양에 집착하여 수행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악법이지 깨달음[菩提]의 도가 아니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깨닫고 못 깨닫고의 차이다. 자기를 제대로 알아 깨달으면 부처요,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이렇게 간단하다. 자기가 부처인 줄 알고 부처의 행을 실천하면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중생이 되어 괴로워하며 분별한다. 한 생각 돌이켜 바로 '이것이다' 는 것을 깨닫고 미련 없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을 모르다 보니 밖에서 찾고 구하려 하면서, '되니, 안 되니' 를 따지니 또 다른 허물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믿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면 넘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며 지나친 욕심을 내니, 본심을 잃기가 십상인 것이다.

무심(無心)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하는 것이 무심도인 한 분께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

〈금강경〉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칠보로 삼천대천세계의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한 분의 무심도인에게 공양 올리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불공드리고 공양 올리는 우리 불자들로서는 이런 말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한 생각 돌이켜 깨달은 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지만, 근기가 하열한 중생이라면 이 말에 '옳다 · 그르다', '좋다 · 나쁘다' 시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다가 일체 강물의 흐름을 다 받아들이듯, 무릇 불자라면 소화하지 못할 말이 없을 정도로 훤칠해야 한다.



그림 · 김홍인

밝고 어두운 경계 바뀌어도
허공의 성품 변하지 않는다
마음 · 중생 · 부처 차별 없듯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되니 · 안되니' 밖에서 구하고
욕심 지나쳐 본심 잃는 것

털처럼 많은이 지견 구해도
도를 깨친이 뿔처럼 드물다

보현행이라 말하는 순간
이치로 말하는 소리에 불과

어째서 그런가? 무심한 사람에게는 일체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참으로 묘한 말이다. 마음이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된다. 어떠한 말도 다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일체의 시비논란을 부정하는 사구백비(四句百非)를 여의고 한마디 일러라!"고 할 때, 훤칠한 기운을 써서 그 즉시 척결할 수 있어야 한다.

여여한 본체가 안으로는 목석같아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밖으로는 허공 같아서 어디에도 막히거나 걸리지 않는다. 주관과 객관도 없고, 방위와 처소도 없다. 또한 모양이나 자래도 없고, 얻고 잃음도 없다. 후학들이 감히 이 법에 들어오지 못하는 까닭은 공(空)에 떨어져, 의지해서 쉴 곳이 없을까 두려워서다. 막상 벼랑을 보고는 물러나서, 대개 널리 지견(知見)을 구하는 것이다. 자고로 지견을 구하는 자는 털처럼 많아도, 정작 도를 깨친 이는 뿔같이 드물다.

'목석같아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는 무심도인의 경지를 그대로 말한 것이다. 아예 공부가 무엇인지 모르는 입장에서는 두려울 것도 없지만, 눈은 열었는데 아직 애매모호한 것이 남아 있는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해가 되는 것만큼은 감당할 수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자꾸 다가오면 황황하여 아찔한 생각에 벼랑 끝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급한 마음에 이치를 구하게 된다. 하지만 완벽하게 다 벗어던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든 않든 전혀 상관이 없다. 도를 깨친 사람은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문수보살은 이치에, 보현보살은 실행에 해당한다. 이치란 진실로 텅 비어 걸림 없는 도리이고, 실행이란 상(相)을 여위고 끝없이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다. 안목을 갖춘 입장의 실천이란 부처님 법과 이웃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보살의 눈을 떠야 비로소 보현보살의 행을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입 벌려서 보현보살의 행이라고 말하는 순간, 배워서 이해한 것을 이치로 말하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진정한 보현보살의 행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안목을 열어서 원만 구족한 모습을 스스로 살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보현보살의 삶과 같다. 하지만 깨달음이 없이는 하루 종일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보현행원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 상(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선일 뿐이다.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는 '바라밀을 행하라.' 고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맞다. 그러나 이미 그 수준을 능가한 힘을 가진 사람한테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은 마치 대학생한테 초등학교 문제를 풀라는 것과 같을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㊺



나는 이미 스스로 건넜으니, 마땅히 아직 건너지 못한 자를 건너게 해야 한다

〈마하반야바라밀경〉 정원품(淨願品)

권진의 꿈

권진(勸進)이라는 말이 있다. 아니, 권진이라는 사람이 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 이 말이 쓰였다는 이야기를 아직 못 들었다. 하지만 일본불교사에서는 이 말이 널리 쓰인다. 예를 들면 나라 도다이지(東大寺)에는 17미터의 대불이 모셔져 있다. 그 부처님을 모시는 불사에 교키(行基, 668-749)스님이 권진을 지내셨다.

교키 스님의 사례에서 유추해 보면, 권진이라는 말에는 어떤 불사의 총책임자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도감(都監)이라는 말을 쓴다. 그런데 교키스님은 불사의 총책임자이면서, 동시에 자금모금에 힘을 기울였다. 우리 말로 하면 화주(化主)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림 · 박구원

그러니까 '권진' 이라는 말의 개념은 도감과 화주의 일을 겸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같다. 어떤 불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보시를 하도록 권유하는 분을 권진이라 불렀던 것이다.

그런데 굳이 시주만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외라고 권유하면서 다니는 사람 역시 권진이라 했다. 그러고 보니, 애당초 이 '권진' 이라는 말은 바로 정토신앙을 고취하는 경전의 하나인 〈관무량수경〉에서 나온 말이다. "그 마음을 권진하다(勸進其心)." 이때는 당연히 정토세계를 지향하면서 염불하기를 권유하는 것을 일컬었다.

나는 이 말이 좋다. 속된 말로 하면, '필(feel)이 꽂혔다.' 일본불교사 특유의 역사적 술어이지만, 이를 다시 되살려서 못 쓸 일도 없다고 본다. 그것은 애당초, 아니 본질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는 보통명사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자",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을 권진이라 부르고 있다.

"일본불교, 공부 좀 해봅시다!"라고 노래하고 다니는 나를 사람들은 '일본불교의 전도사' 라 부른다. 그 '전도사' 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이 권진이다. 그렇지만, '일본불교의 권진' 이라 부르기를 나는 더욱 즐긴다.

"권진 하실 분~?"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말아서는 아직 감이 안 잡힐지도 모른다. 다시 설명해 보기로 하자. 우리는 모두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서있다. 부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우리와 부처님은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권진은 성립할 수 없다.

권진이 성립한다는 것은 오직 내가 바로 부처님을 등지고, 부처님을 등에 업을 때뿐이다. 즉 180도로 "뒤로 돌앗!" 해야 한다. 그렇게 딱 반 바퀴 돌아설 때, 우리는 비로소 권진을 할 수 있다. 부처님을 등지고 부처님을 등에 업고 나면 우리 눈에 비로소 중생들이 보일 것이다.

중생을 향해서 나아가서, 부처님을 이야기한다. 이것이 권진이다. 이리하여 권진은 부처님과 나, 나와 부처님 사이라는 상호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다. 부처님과 나 외에 나와 중생이라는 관계가 새롭게 추가된다. 우리 불교의 포교가 지지부진하는 데에는 이 '권진(정신)의 부재' 에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미 스스로 건넜으니, 마땅히 아직 건너지 못한 자를 건너게 해야 한다." 권진 석제환인(=제석천)의 선언이고, 꿈이다. "나는 아직 건너지 못했으니", "건널 때까지"는 권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오늘 부처님 말씀을 들었으니, 마땅히 아직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해야 한다"라고 할 수는 있는 것 아닌가?

어차피 금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 '스스로 건너기' 에만 매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비록 아직 스스로 다 건너지 못했더라도 복 짓는 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나는 오늘 불교서적을 조금 읽었으니, 마땅히 아직 읽지 못한 자를 읽게 해야 한다." 우리 불교는, 이렇게 선언할 권진들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 "권진하실 분~? 권진 모집합니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1강좌 :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질병을 좌우하는 몸속에 숨은 영가를 찾아내어 조상령인 객영혼인지를 확인하는 비법전수 수련법 최면이 아닌 환자의 몸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방법, 전문가 강좌

1. 영적인 수련을 통해 환자의 몸에서 영가확인
2. 일반병, 정신병, 영가장애질환의 구분
3. 영가의 수준파악.
   저급영가 : 한과 집착, 중급영가 : 진리를 찾아 방황과 혼돈, 고급영가 : 깨달음에 대한 갈망
4. 난치병과 불치병뒤에 숨은 영가확인
   매주 월 ,수 ,금 수련 / 오후 2시 / 보시금 1회 - 10만
   개인적인 전수는 수련후에 상담 - 자신이 체험하는 과정

2강좌 :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인간의 속마음을 꽤뚫어보는 법 2기 힐링분석상담사 교육생 모집 (누구나 저렴한 교육비) 힐링분석 상담사란? 일반, 전문가 강좌

민간자격증으로 인체에 흐르는 氣 흐름을 감지하여 그 사람의 현재의 문제점 감정, 의지, 정신의 사용유형을 읽어,영적인 치유와 건강, 심리 궁합, 직업, 적성, 인성을 개발 상담해주는 전문가로 활동한다. 미국의 다우징의 기법을 통한 80가지의 에너지도형의 분석법

1.일반인반 4회 책자 / 2.전문가반 6회 책자 (매주 화, 목, 토요일 오후 2시 공개강좌 및 강의)

3강좌 : 우리몸의 과거, 현재, 미래가 간직된 오오라장 일깨우는 차크라파동수련 1-7차크라 각성하여 초능력과 잠재능력을 발현의 원리 수행의 완성 난치병, 불치병, 빙의, 정신병, 마음의 병, 업장소멸의 원리를 체험, 치유

월 , 금요일 / 오전 10, 오후 4시 / 수련 선택(수련비는 1회 3만원)
난치병과 마음의 병치유 업장소멸의 원리 체험

인체전기 파동의학 043)296-5258 / 010-9242-5259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청석고와 청운중사이)

영혼은 몸을 통해 이야기 하기에 ,진실을 체험하게 해주는 건 우리의 몸이다

진골 척추교정법 교육 안내문

상담전화 016-560-7868

척추교정 및 인체의 균형(밸런스) 조절교육
외과전문의 및 한의사,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척추교정법!

MBN 천기누설 방송 (2012. 9. 20)에 소장이 직접교육시켰던 외과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출연하여, 척추변형과 오장육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한바 있음. (네이버 "진골척추" 검색 동영상으로 방송을 볼 수 있음) 소장은 2006년부터 한의사 수백여명과 다수의 외과의사들을 상대로 척추교정과 인체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 교육의 전문가임. 진골척추교정법은 카이로프라틱이 아닙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개가 온누리에 충만하시고 사중에 제반 불사가 원만 성취되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소승이 진골척추교정법을 창시하신 임상만 원장님과 인연이 된것은 얼마 안되지만 원장님에 탁월하신 진골척추교정법을 친견하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지 못하였습니다. 암환자, 고질적인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찾아와 척추교정을 받고 편안하고 즐겁게 웃고가는 것이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웠습니다. 손으로 경추, 흉추, 요추, 천추을 보고 만지며 진단하여 교정하는 시간은 3~5분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과장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하여 소승도 허리, 목, 등, 전립선 등이 불편하여 교정을 받았습니다. 편하고 시원하였습니다. 정좌를 해도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감히 제반스님들께 추천합니다. 법체가 불편하신 법우님들과 불자님들께 권하오닌 진골척추 교정법과 인연지어 불사원만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해동사 영도 동인 합장

'재물을 잃는 것은 인생의 일부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듯이 세상만사 인생을 살다가 보면 피치못해 건강이 악화되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못할때가 많은데요, 건강은 인간 최고의 복이요 양식이라고 불릴만큼 중요하기에 어떠한 질병이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소승도 10여년간 항시 등쪽과 오른쪽 허리가 뻐근하고 시큰 거려서 좋다는 운동법은 다해 봤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도반스님이 MBN의 천기누설과 방송을 한번 보라하기에 방송를 보다가 임상만 소장님의 진골척추교정법을 보면서 모든 질병과 만성병은 틀어진 척추와 골반에서 병이 온다는 임소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직접 진골척추교정법 교육을 3회정도 받고 보니 허리와 등짝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몸소 체험한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무수한 질병을 와하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30여년의 노력과 열정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진골척추교정법을 완성시킨 임상만 소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내가족, 진척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들을 완화시킬수 있는 것은 진골척추교정법 밖에 없는는 확신을 하면서 인연이 닿는 모든 분들이 익히고 배워서 고통과 질병없는 아름다운 불국토를 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계룡산에서 도림 합장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추사와 초의는 소치 예술의 스승



소치가 그린 백의관음도

소치는 초의의 불화 초묵법 전수받고
추사 가르침으로 문인화가 기반 다져

소치 허련은 조선 후기 남종화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가 맺은 추사와 초의와의 인연사는 참으로 흥미로운 일로, 초의를 찾아간 일이나 한산전에서 그림을 탁마했던 인연사가 그렇다. 그는 〈〈몽연록(夢緣錄)〉〉에서 초의와의 첫 만남을 "을미(1835)년 대둔사 한산전으로 초의스님을 찾아갔다. (나를)따뜻하게 대해주었고, 방을 빌려주어 머물게 했다"고 회상했다. 수년을 왕래하다보니 기질과 취미가 서로 같았다던 소치, 이들은 오래도록 변치 않는 사제의 정을 나누었으니 진정 숙생의 인연임이 자명하다. 실제 그가 초의를 찾았던 연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가 진도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진도 쌍계사를 내왕하던 초의와 일찍부터 면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여튼 1835년 이후 한산전에서 그림을 탁마했던 그는 초의로부터 불화, 특히 초묵법을 전수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1839년 12월 1일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편지에 "대개 초묵법은(焦墨法: 진한 먹을 사용하여 그리는 것) 전하기 쉽지 않는 오묘한 진리인데, 우연히 허소치가 이어 드러냈으니 전해지고 전해진 초묵법이 또 그대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겨집니다"고 한 것을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그가 해남 윤씨 가장본인 공재화첩과 〈고씨화보(顧氏畵譜)〉를 자유롭게 열람하였는데, 이는 초의가 공재 윤두서의 후손 윤종영과 윤종민, 윤종심, 윤종삼 등과 교유하였고, 이들과 다산의 문하에서 함께 공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소치는 공재의 〈가전보회(家傳寶繪)〉와 〈윤씨가보(尹氏家寶)〉에서 윤두서와 윤덕희 등의 화첩을 본 후 "수일간 침식을 잊을 정도"로 감동한 점과 "윤종민에게 그림과 화보 등 진장해 온 것을 빌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들어주었다"고 한 것은 그의 탁마 정황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초의의 훈도 아래 성의를 다했던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은 추사와의 만남이다.

당시 이들이 만난 상황은 이렇다. 1838년 금강산을 유람한 초의는 이듬해 추사에게 소치의 그림을 보여 준 것. 소치의 재주를 한 눈에 알아 본 추사는 "허군의 그림 격조는 거듭 볼수록 더욱 묘해 이미 격을 이루었다고 할 만합니다. 다만 보고 들은 것이 좁아 그 좋은 솜씨를 마음대로 구사하지 못한다"고 평가한 후, 거듭하여 "이 같은 출중한 인재를 어찌 손잡고 함께 오지 않았소. 서울에서 지낸다면 그의 향상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이오. 그의 그림을 보면 마음 가득 기쁨으로 넘치니 즉시 서울로 올라오게 하시오"라고 재촉하는 편지를 초의에게 보낸다. 1839년 8월 초의의 편지를 받은 소치는 서둘러 내종형을 따라 상경하였고, 소사 부근 칠원점에서 초의를 만나 함께 하루를 묵은 후, 추사 댁을 찾았다. 소치는 당시의 상황을 "(추사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마치 옛날부터 서로 아는 것처럼 느껴졌다. 추사 선생의 위대한 덕화가 사람을 감싸는 듯했다"고 회상했다. 이때 추사는 부친의 소상을 치른 후로 상중(喪中)이었다. 장동의 여막(廬幕)에서 추사의 아우 김명희와 김상희를 만났던 소치, 후일 추사의 형제들이 보낸 우정과 후원은 이로부터 촉발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당대 유불예단(儒佛藝團)을 대표했던 인물 추사와 초의는 소치의 예술 세계에 밑거름이 되었는데, 초의의 초묵법은 그의 운필법에 토대가 되었고, 추사의 가르침을 통해 그의 장대한 예술의 꽃을 피워냈다.

특히 그가 원말 산수화의 최고봉으로 칭송되는 황공망과 예찬을 본받았던 것은 추사의 영향이 컸다고 전해진다. 시문과 차에 뛰어난 안목의 가졌던 그는 특히 산수화를 잘 그렸던 문인화가로, 직업 화가들의 활동 기반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평생 스승에 대한 의리를 지켰던 그였기에 두 스승을 이어주는 전령이기도 하였다. 진도에서 출생,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소치, 노치(老痴), 치옹(痴翁), 석치(石痴), 옥주산인(玉州山人) 등의 호를 사용하였다. 이름은 련(鍊)과 유(維)를 함께 썼다. 평생 세상을 주유하며, 간구한 삶을 영위했던 소치, 그의 인연사는 실로 후인의 귀감이 되기에 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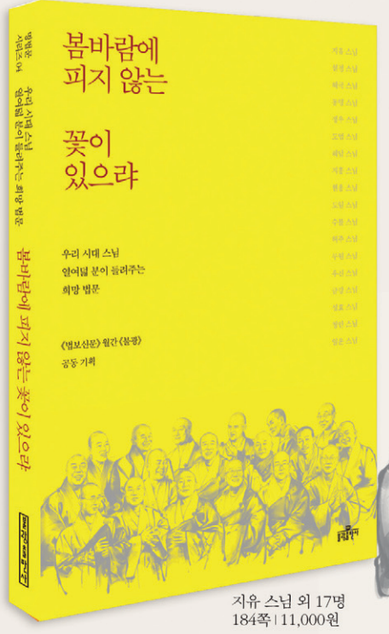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지유 스님
설정 스님
혜국 스님
동명 스님
정우 스님
도법 스님
혜담 스님
지홍 스님
현응 스님
도일 스님
수불 스님
허주 스님
무원 스님
우진 스님
금강 스님
성효 스님
청안 스님
일운 스님

열여덟 분 스님이 마음에 던지는 큰 울림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다음에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행복해야 합니다."



명법문 시리즈04

우리 시대 스님
열여덟 분이 들려주는
희망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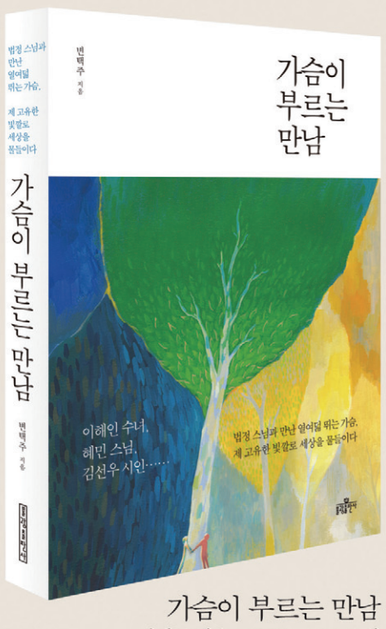
봄바람에
피지 않는
꽃이
있으랴



지유 스님 외 17명
184쪽 | 11,000원

가슴이 부르는
만남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해인 수녀, 혜민 스님,
김선우 시인……

법정 스님과 만난 열여덟 뛰는 가슴,
제 고유한 빛깔로 세상을 물들이다

"그 사람 일생이 내게 오는 건 이 순간뿐인데 놓치고 후회 말고 잘해 드리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 '사람들이 날 만나면 기쁘다니까 보여 줄 수 있을 때 기꺼이 보여 드리지.' 하는 마음이에요." – 이해인 수녀

"여행자가 지닌 몇 권 되지 않는 책들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책이 법정 스님 책이에요. …… 책에서만 스님을 뵙고 『무소유』 같은 책을 자기 삶에 특별한 표징처럼 늘 가지고 다녀야만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람들을 세계 어디를 가도 만나게 돼요." – 김선우 시인

"아무리 좋은 말이나 관심도 내가 평가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싫어져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비춰 주세요. 따뜻하게. 그게 사랑이에요." – 혜민 스님

가슴이 부르는 만남
변택주 지음 | 352쪽 | 15,000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관심·열정·따뜻한 말 포교의 출발이죠"

정우 스님(서울 구룡사 회주 · 강남사암련 회장)

정우 스님은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 좋은 털털한 미소가 일품이다. 스님뿐만 아니라 문화인, 예술 애호가로도 유명한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신년을 맞아 스님과 연락이 닿았을 때도 스님은 평창 스페셜올림픽에서 장애인 불자들을 응원하고 있었다.

그런 정우 스님이 발행하는 잡지 〈월간 붓다〉가 통권 300호를 맞이했다. 서울 도심 포교 운동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이 책을 25년간 펼친데 이어 이제 전자책으로 발간한다니 스님의 포교에 대한 원력이 새삼 돋보였다. 1월 31일 축하를 겸해 구룡사를 찾았다.

정우 스님은 기도 중이었다. 기도가 끝나길 기다려 회주실로 올라가자 스님은 향기가 나는 차를 우리고 있었다.

"조용히 사는 잊힌 사람을 머하로 찾누."

스님에게 〈월간 붓다〉 통권 300호를 축하드리자 스님은 "그거야 하다보면 되는 일인데"하며 손사래를 쳤다.

"사보 〈구룡(九龍)〉으로 1988년부터 시작했어. 그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발행했지. 이후 일산 여래사 등 도심사찰이 늘어나면서 명칭을 〈월간 붓다〉로 바꾼 거지"

연 1억 원에 달하는 발행비용은 스님이 불자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다. 스님은 매 권마다 글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때로는 사회적 문제를 불자로서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했다. 출가수행자로서 겪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고 성지순례를 다니며 '아! 이런 것은 우리 불자들이 봤으면 좋겠다' 싶어 직접 카메라로 찍어 내보내기도 했다.

"보는 이의 입장에서는 책 한권이 얼마 되지 않아 보이지만 나에게는, 또 발행에 참여한 신도들에게는 이 책 한권에 1억 이상의 가치가 담겼거든. 그만큼 소중히 봐준다면 그만한 보람도 없지. 이젠 전자책으로도 발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할까 해"

관심이 곧 포교, 구석구석 살피면 신도 모여

스님은 차를 권하며 운영 중인 인터넷방송 붓다tv로도 말을 이어갔다. 스님은 불교tv사장을 지내기도 한 남다른 미디어에 대한 감각을 이렇게 풀어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과연 보기나 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 이것도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새 누적 조회 수가 750만이야. 부처님오신 날이나 특별한 날에 명사 초청법회 때는 조회 수가 2만을 넘고 새벽에도 조회 수가 올라가. 누군가 봐준다고 생각하니 멈출 수가 없지.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어?"

스님은 불자들, 신도들이 보내주는 관심, 또 그런 신도들에 대한 스님들의 열정이 바로 포교라고 설명했다. 법회를 통해 절을 찾는 신도들에게 따듯한 말 한마디가 더 가까이 부처님에게 다가가는 길이고, 처음 오는 관광객들에겐 '친절한 설명'이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출발이란다. 이 말씀은 곧 스님의 포교 지론이다.

스님은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과감히 뛰어들었다. 강남 구룡사 창건을 비롯해 일산 여래사와 인천 보명사 등 국내 14곳 포교당을 창건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 외국에도 절을 세웠다. 또 유치원, 출판사, 진리의 전화, 결혼상담실, ㈜수미산여행사 등을 운영하며 생활불교가 자리 잡도록 노력했다.

이중 극단 신시컴퍼니는 독특했다. 스님의 후원으로 현재 한국 공연계를 이끄는 최대 엔진으로 성장한 신시컴퍼니는 일견 불교와는 거리가 멀어보였다.

"어려서부터 스피커 라디오의 변사 목소리를 들으며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어. 원체 영화를 좋아해 강원도 말을 이어갔다. 스님은 불교tv사장을 지내기도 한 남다른 미디어에 대한 감각을 이렇게 풀어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과연 보기나 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 이것도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새 누적 조회 수가 750만이야. 부처님오신 날이나 특별한 날에 명사 초청법회 때는 조회 수가 2만을 넘고 새벽에도 조회 수가 올라가. 누군가 봐준다고 생각하니 멈출 수가 없지.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어?"

스님은 불자들, 신도들이 보내주는 관심, 또 그런 신도들에 대한 스님들의 열정이 바로 포교라고 설명했다. 법회를 통해 절을 찾는 신도들에게 따듯한 말 한마디가 더 가까이 부처님에게 다가가는 길이고, 처음 오는 관광객들에겐 '친절한 설명'이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출발이란다. 이 말씀은 곧 스님의 포교 지론이다.

스님은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과감히 뛰어들었다. 강남 구룡사 창건을 비롯해 일산 여래사와 인천 보명사 등 국내 14곳 포교당을 창건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 외국에도 절을 세웠다. 또 유치원, 출판사, 진리의 전화, 결혼상담실, ㈜수미산여행사 등을 운영하며 생활불교가 자리 잡도록 노력했다.

이중 극단 신시컴퍼니는 독특했다. 스님의 후원으로 현재 한국 공연계를 이끄는 최대 엔진으로 성장한 신시컴퍼니는 일견 불교와는 거리가 멀어보였다.

"어려서부터 스피커 라디오의 변사 목소리를 들으며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어. 원체 영화를 좋아해 강원도 끝나면 틈틈이 보기도 했지."

스님은 1970년대 배우 이호재, 전무송 씨 등을 만나면서 연극에 눈을 떴다. 1984년 만해 한용운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 '님의 침묵'을 만들며 스님의 연극사랑은 시작된다. 이때 故 김상열을 비롯해 김갑수 씨 등과 깊게 사귀게 됐다. 정우 스님은 당시 1개월을 넘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이 작품을 4개월 동안 공연하며 매진을 기록, 흥행능력을 과시했다.

"순수예술인 연극은 불교와 다름이 없어. 당시에 문화포교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래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연극을 지원하면 서로 상생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했어"

스님은 1987년 김상열 선생과 김갑수씨, 현재 대표인 박명성씨 등과 함께 '극단 신시'를 설립하고 재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극단 신시는 '맘마미아!' '아이다' '시카고' 등 대작을 잇달아 무대에 올리며 대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립의 구조를 갖췄다. 최근에는 구룡사 옆에 사옥을 마련하기도 했다.

10대 어린 나이에 발심 출가

1965년이었다. 은사인 홍법 스님은 조계종 종정과 통도사 방장을 지낸 월하 스님의 맏상좌였다. 1969년부터 통도사 강원에서 후학들을 지도한 홍법 스님은 생전 겨울철 장작도 시주물이라 하여 아낄 정도로 정

구룡사 등 국내외 포교당 23곳 창건
어린이집 · 유치원 · 진리의 전화 운영

극단 신시 창단 · 인터넷 붓다 TV
〈월간 붓다〉 25년 발간 등 문화 포교

"주지직은 외호, 나눔 위해 있는 것
'나눔'의 공덕은 모두에게 회향"

재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청빈한 삶을 살았다. 이런 홍법 스님은 정우 스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사찰 정재는 하나하나 신도들의 마음이 담겨있기에 허투루 다룰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우 스님은 은사 홍법 스님이 이른 나이에 열반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노스님 월하 스님의 보살핌으로 큰 어려움 없이 절 생활을 지냈다고 한다. 청년 스님 시절에는 통도사에서 청년회, 대학생회, 중 · 고등학생회를 이끌었고 군복무 때는 보병 26사단 사령부와 73연대에 군법당을 창건했다. 84년 조계종 총무원 교무국장, 조사국장을 역임한 스님은 그 해 미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려 마음먹었지만 월하 스님의 걱정에 서울에서 포교당을 열게 된다. 이로부터 스님의 대중포교활동은 그 영역을 크게 넓혀 갔다.

하지만 조계종 개혁회의를 이끌었던 스님은 1998년 조계종 분규 당시 종단으로부터 '멸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8년이 지나 사면됐다.

"당시 미진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 월하 스님 말씀이 옳다 믿고 종단 제도권에 그 뜻을 표현했지만 여러 해 동안 종단에서 내몰리는 형국이 됐어. 당시 끝까지 나를 지켜준 것은 신도들이었지."

스님은 여래사 불사 당시 여러 상황으로 사찰에 신경쓰지 못했지만 신도들이 힘을 모아 스스로 사찰 불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신도들이 있어


통도사 주지 당시 금강계단을 비롯한 사찰 곳곳을 불자들에게 개방했다.



정우 스님은 … 1965년 통도사에서 홍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승가대 대교과를 졸업했다. 총무원 교무국장을 지냈으며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창건 주지로 가람을 일궜다. 조계종 9~12대 종회의원. 불교TV 사장, 미국 원각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 만해사상실천선양회 포교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서다"라며 천막법당 때부터 십시일반 신심으로 함께 해 준 수많은 불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복귀한 스님은 곧바로 불보종찰 통도사 주지에 올랐다. 대중들이 스님을 주지로 모신데는 이유가 있었다. 스님은 양산 통도사 주지 당시에는 출입금지구역이던 금강계단을 신도들에게 개방하고 산중의 철조망을 제거하는 등 정비 사업을 벌였다.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성보를 접하고 보다 신심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통도사는 스님이 주지로 사는 동안 각 암자로 가는 길이 순환도로로 툭 트여 불자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사찰로 변모했다. 통도사 화장막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산대재를 비롯한 사찰행사도 지역문화행사로 탈바꿈했다. 여기에 나눔 기금 12억원을 모아 지역 각분야를 후원했다. 모두 신도, 지역주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지론에 따른 것이다.

허허벌판 천막 법당에서 일으킨 구룡사를 일으킨 원동력이기도 했다. 정우 스님은 "'나를 버린다'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임하면 모든 일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현재 스님은 구룡사에서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주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소년소녀 가장 돕기, 독거어르신 지원, 초·중·고등학생 학자금 전달, 티베트 난민 돕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구룡사와 여래사 등 스님이 세운 사찰 신도들은 자발적으로 초록돼지저금통 2만개에 동전 채우며 모금활동을 벌였다. 2012년에는 이런 활동을 보다 넓게 피기위해 강남지역사암연합회를 구성해 강남지역 사찰들이 힘을 모으는데 이바지 했다.

"빛이 강하면 어둠이 짙어. 물질적 풍요가 많은 곳이지만 반대로 곳곳에는 그로 인해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 당장에도 강남 구룡마을에서는 어제 큰 불이 나서 집 잃은 사람들이 나왔어."

스님은 서로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나눔'을 행함으로써 맑고 밝고 따스함이 번져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스님은 배려와 사랑을 지니고 친절한 미소를 항상 머금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지니고 가꾸어야 할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출가한 스님은 승가의 종지(宗旨)를 받들고 화합을 우선하며 모든 용물(用物)은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어울리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종단에 구룡사와 여래사 등 창건한 국내외 모든 사설사암을 공찰로 귀속시켜 표창을 받기도 했다. 통도사 주지 당시에도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개인들이 소유하던 땅을 통도사로 되찾아 오기도 했다.

스님은 "주지직을 맡게 되었을 때는 대중을 외호(外護)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스님으로서 본분을 지키고 전념하면 어떤 것이든 이뤄지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의 차 마시는 모습에서 따뜻함이 번져 나왔다.

"차를 마실 때 물은 가득차면 따라내야 넘치치 않습니다. 또 다 마셨으면 내려 놓아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09년 결연 사찰인 대만 불광산사에서 통도사 자장율사 금란가사 봉헌 모습.

전법일기

목탁소리 안 끊기면 먹고 산다

위대한 다라니 기도의 힘

"저는 주지 안 할 겁니다."

은해사에서 잘살고 있는 나를 은사 스님께서 불러 "법화사 주지할래? 보성선원 주지할래?"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한 대답이었다.

은사 스님은 잠깐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그럼 사제를 살게 할 테니 이름이나 빌리자"고 하셨다. 은사 스님의 그런 부탁까지 거절할 순 없지 않은가.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2008년 1월 나는 대구 보성선원 주지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 강사가 되어서 자연과 벗하면서 우아하게(!) 살고자 했던 나의 계획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꺾이고 말았다.

처음엔 신도가 별로 없어서 운영이 잘 되지 않았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부터 절집에는 목탁소리가 끊기지 않으면 먹고 사는 덴 지장이 없다는 말이 있다. 그래, 기도를 하자.'

'어떤 기도를 할까?' 문득 화성 신흥사 성일 스님이 생각났다. 성일 스님은 천수다라니독송 천일기도를 여러 번 하신 가피력으로 도량을 크게 일구어서 조계종 스님들의 귀감이 되는 분이었다. 신흥사로 전화를 걸어 성일 스님의 기도법을 배웠다.

첫 번째 백일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천수경〉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보았다. 한글대장경 〈일자불정륜왕경〉안에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이 있다. 이 경에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송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잘 설명돼 있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대비심다라니 주문이 있어… 중생들이 안락을 얻고, 모든 병을 제거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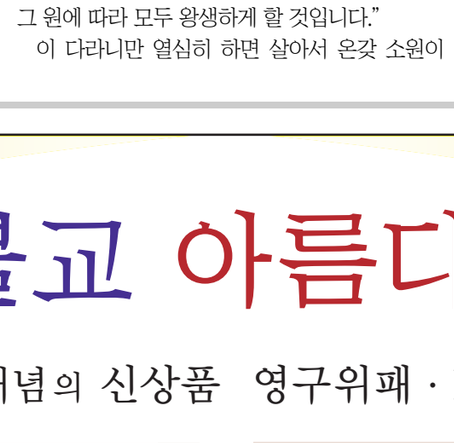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신도 없이 시작한 절집기도
신묘장구대다라니 1500일 기도
신도 모이고 지역 사회에 기여

수명을 얻고, 풍요함을 얻으며, 모든 죄를 없애고, 장애와 어려움을 멀리 여의게 하고, 온갖 선을 성취하게 하고, 온갖 두려움을 멀리 여의게 하고… 임종할 때에 시방세계의 부처님들께서 모두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어느 국토든 태어나게 하고 그 원에 따라 모두 왕생하게 할 것입니다."

이 다라니만 열심히 하면 살아서 온갖 소원이 다 이뤄지고 죽은 이후에는 극락세계까지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말이었다.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현세에서 이익을 얻고 죽어서 극락간다는데.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될까? 경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다.

"지극한 마음으로 저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고 또 아미타여래의 명호도 간절히 염한 뒤에 이 다라니를 외우되 하루에 21번, 혹은 49번을 채우면 억겁동안 지은 생사의 중죄가 소멸할 것입니다."

하루에 21번이나 49번을 하라고 하였다. 하루 세 번, 매번 21번씩 하게 되면 하루 63번하게 되니까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바로 100일기도에 들어갔다. 계획대로 다라니를 독송하고 관음정근을 10~20분 했다. 이렇게 백일기도를 1년에 세 번하여 지금은 15번째 백일기도를 하고 있다. 그간 부전 스님이 잠깐씩 산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혼자 기도했다. 목소리를 높여 염불을 할 때면 신심이 샘솟듯 솟구쳤다.

우리 신도들은 이제 이력이 나서 다라니 독송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 매월 보름밤에는 다라니 108독을 하는데 미동도 않고 앉아 다라니를 마칠 정도로 숙련됐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고. 그 질문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신도가 많이 늘었고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도량이 되었다고. 바로 이것이 다라니 독송의 가피라고.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찬덕불교 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大)



(小)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印, 아티샤(Atisa) 스님 사상과 홍법 조명

아티샤 스님 전법 1000년 맞아 IGNCA 등 거대 학술 · 문화행사 개최

14대 달라이 라마의 영적 스승으로 널리 알려진 아티샤(Dipankara Srijnana Atisa · 980~1054) 스님이 인도 인문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디켄헤럴드(DeccanHerald.com)는 8일 "IIC(India International Centre)가 8일부터 이틀간 '아티샤 스님의 인도네시아 전법 1,000년(1,000 Years of Atisa's Visist to Indonesia)'을 주제로 학술 · 문화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인도의 대표적인 인문학 연구기관 IGNCA(Indira Gandhi National Centre for Arts)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아티샤 스님의 사상과 홍법'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전했다.

뉴델리에서 열린 '아티샤 스님의 인도네시아 전법 1,000년' 주제 기념행사에서 게쉐 담둘(Geshe Damdul · Director of Tibte House)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아티샤 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지 1,000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학술 · 문화행사 개최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스님은 "당시 인도불교계의 최고 강백으로 후학을 지도하던 아티샤 스님의 전법은 인도네시아 대중들에겐 부처님 지혜를 배우고 선근 토양을 가꾸는 일대 계기"라며 "이번 학술 · 문화행사는 아티샤 스님의 전법을 기점으로 인도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의 불교철학 · 문화의 연결고리를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 대표적 인문학 연구기관인 IGNCA(Indira Gandhi National Centre for Arts)는 2월 21~23일 '아티샤 스님의 사상과 홍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사진은 IGNCA의 홍보사진(왼쪽). 아티샤 스님(오른쪽)은 동인도 사호르 왕국의 왕자 출신으로서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출가해 승려가 됐다.

네팔 불교계의 참(Charm) 무(舞)와 차리야(Charya) 무로 서막을 올린 이번 기념행사에서 불교철학 · 건축학 · 고고학자 등 40여 명이 '아티샤 스님과 밀교(Vajrayana Buddhism)'를 주제로 발제와 논평에 나섰다.

이밖에도 베노이(Benoy K. Behl · 인도) 감독의 불교영화 스피티(Spiti) 등 12편의 단편영화가 상영됐고, 행사장 곳곳에서는 사진작가 에이치 마츠모토(Eichi Matsumoto · 인도계 일본인)의 사진전(展)이 마련됐다.

베노이 감독은 "단편영화 12편은 ASEAN 재역의 불교유산을 도큐멘트 영상으로 담아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1,000년 전 아티샤 스님이 국경을 초월해 일궈낸 '불교 소통의 장' 새롭게 조명하고, 지금의 인도불교가 아티샤 스님 당시의 그 모습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머나먼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금의 불교는 아티샤 스님이 수학하고 강의했던 나란다 대학(Nalanda University)과 비크람쉴라 대학(Vikramshila University)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마츠모토 작가는 "두 대학의 불교 공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는 아티샤 스님을 중심으로 한 인도 불교가 아시아 불교에 미쳤던 모든 공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마츠모토 작가는 이번 사진전에서 러시아, 라사, 부탄, 네팔,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18개국에 산재한 불교유산을 사진으로 선보였다. 이중에는 아티샤 스님의 탄생, 수학, 포교, 전법 등과 관련된 지역과 사원 등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IGNCA(Indira Gandhi National Centre for Arts)가 '아티샤 스님의 사상과 홍법'을 주제로 마련한 학술행사도 인도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디켄헤럴드는 IGNCA의 자료를 인용, "인도, 중국, 영국, 미국, 방글라데시 등지의 불교학자들이 참여할 이번 학술회의는 1,000년 전 60세의 고령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티베트 밀교의 기틀을 세운 아티샤 스님의 사상과 홍법을 조명될 것"이라며 "이는 인도불교와 티베트불교의 관계의 심층을 들춰내 살피는 자리라는 의미도 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디켄헤럴드는 "IGNCA는 아타샤 스님이 티베트전법 당시 불교의 정수를 알리는 방편으로 삼았던 만다라를 시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인도 동벵골 지역에서 태어난 아티샤 (982 ~ 1054) 스님은 나란다 대학에서 수학하고 비크람쉴라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쳤다. 당시 아티샤 스님은 티베트 오드(Yeshe Od) 왕의 초대를 받았지만, 계속 거절했다. 스님은 60세에 이르고서야 히말라야를 넘어 티베트 전법에 나서며, 말년을 보냈다. 이때부터 티베트불교는 밀교 전통을 반석으로 만개하기 시작했다. 그 후 티베트불교는 중원의 원(元)나라에 전파돼 국교가 됐고, 몽고와 명(明), 청(淸)나라에서도 융성했고, 그에 힘입어 러시아, 북인도에 퍼졌다. 한국 불교에도 라마교의 영향을 적지 않게 미쳤다. **오종욱 편집위원**

우명주 박사의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불교 〈6〉



"나는 더 이상 힌두신을 숭배하지 않겠다"

신불교의 특징

인도의 신불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불교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다. 한 개인이 주도한 대규모 개종식으로 의해 탄생했다는 점에서 그 시작부터가 독특한 일이며 그 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이 모두 한 특정한 신분의 사람들이었다는 점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이다. 따라서 신불교는 그만의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재가 리더십에 대한 강조는 신불교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것은 암베드카르가 자신의 저서 〈붓다와 그 가르침〉에서 출가자와 재가자의 평등함을 강조한 결과이다. 그는 책에서 법은 출가자와 재가자에게 평등하게 설해졌으며 출가자와 재가자의 차이는 생활양식에서 나오는 것이지 법에 있어서는 동등하다고 주장한다.

집단개종식에서도 암베드카르는 미얀마 출신의 찬드라마니 스님께 수계를 받았지만 자신을 따라 개종한 불가촉천민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수계를 했다. 이를 두고 이후에 재가자가 수계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암베드카르 사후에 열렸던 수계식들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승려들보다는 암베드카르가 세운 인도공화당의 지도부들이었다. 정치지도자들에 의한 개종운동은 외부인들에게는 이상해보일 수 있었지만 그 운동의 내부에 있는 이들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도자 암베드카르와 함께 일했던 인물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친근감을 느꼈다.

현재도 인도에서 가끔 열리고 있는 집단개종식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인물들은 정치지도자이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인도정의당과 로드붓다 클럽 등을 세운 우디트 라즈가 있다. 그는 지난 2001년 델리에서 개종식을 열고 자신도 그 자리에서 불교도가 되었다. 또한 인도공화당의 당수 아타왈레 람다스 반두가 있다.

그러나 이런 개종식이 계속해서 정치인들에 의해 주도됨에 따라 외부에서는 그 개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힌두교 관련 정당들은 불가촉천민들의 개종을 종교와 관련 없는 단순한 정치행위로 매도하고 있고 언론들도 그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의 불교도들도 그런 식으로 열리는 개종식이 진정한 불교로의 입문식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불교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개종식 이후 새로이 불교도가 된 이들에 대한 후속조치 또한 미흡하다.

재가 리더십에 대해 강조
"출 · 재가자는 평등" 주장
정체성 위한 22가지 서원 만들어
신도들, 암베드카르 사후 신격화


암베드카르 우디안 기념관 (Ambedkar Udyan Memorial). 코끼리 위에 암베드카르가 서있다.

가령 2001년 우디트 라즈에 의해 열렸던 델리에서 개종식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진정으로 불교를 받아들고 싶어 참석한 이들도 물론 있었지만 개종에 대한 결정은 행사 참여 후 하겠다며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이들도 있었다. 심지어 주최 측이 제공하는 경비로 그저 서울구경에 나섰다고 말한 참가자들까지 있었다. 또한 이날 정부가 행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경찰들이 경비에 나섬에 따라 개종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가 상당수 있었는데 우디트 라즈는 개종의식에 참가하지 못한 이들도 참가의지를 보인 것만으로도 불교도가 되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왔다.

또한 신불교는 다른 불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계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암베드카르가 자신의 개종식에서 제창한 22가지의 서원이다. 이것은 전통불교의 오계 만큼이나 신불교도들에게는 중요한 지침인데 여기에는 불살생, 불망어, 불음주 등의 전통계율도 포함되어 있지만 신불교도들의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는 것들이 더 많다. 예를 들면 '나는 더 이상 힌두신을 숭배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힌두종교의식을 행하지 않겠다.', '브라만이 집전하는 의식을 허용하지 않겠다.', '부처님이 힌두신 비슈누의 화신이라는 말을 믿지 않겠다.' '인간의 평등함을 믿겠다.' 등의 계율을 보면 전통불교와는 다른 신불교만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암베드카르가 신불교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신불교만의 특징일 것이다. 집단개종 후 불교도들에게 가장 큰 기념일은 부처님 오신날과 암베드카르 탄신일이다. 이 두 행사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치루어진다. 특히 암베드카르의 추종자가 많은 마하라스트라주의 신불교도들은 불교의 4대 기념일로 부처님 오신 날, 개종일, 암베드카르의 출생일과 사망일을 기념하고 있다.

또한 인도의 거의 모든 불교사원에서는 암베드카르의 사진이 불상과 함께 놓여져 있고 그를 기리는 많은 문학작품, 포스터, 그림 등에서 암베드카르는 거의 부처님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그의 사후에 나온 노래에는 그가 신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그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신이 인간으로 화했다가 사라진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인도의 신불교도들은 일반적인 삼귀의 대신 사귀의를 하는데 이는 물론 기존 삼보에 대한 귀의에 암베드카르에 대한 귀의가 더해진 것이다. 인도의 신불교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감화보다는 암베드카르 개인에 대한 존경심과 충성심 때문에 불자가 된 것이 사실이므로 사귀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외부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개인 우상화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여지가 다분하다. 그들을 불교로 이끌어 준 암베드카르에 대한 존경심은 충분히 존중받아야겠지만 그것이 이런 형태로 표출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존경심으로 자신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다.

태고원융 불교대학 개강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학인모집

1. 교육과정
- 초,중급반 : 조석예불, 종성,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다림(목탁,요령), 요잡, 천도의식, 49재, 관음시식
- 고 급 반 : 초,중 이수자(상주권공)- 할향, 등게, 합장게, 고향게, 개게, 쇄수게, 복청게, 도량게, 참회게
  * 작법 : 사다라니, 화의재다라니, 신중작법, 욕건이,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계작법, 가지게 (사물은 소리와 염불과 함께 교육)

2. 강 주 : 상진스님
- 개강일시 : 2013년 3월 7일
- 장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46-1 한국불교태고종충북교구종무원연수원
- 모집학과 : 불교의식(범패)학과
- 강의시간 : 고 급 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초,중급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상기 수업시간과 요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 강 료 : 6개월 30만원 (교재비 별도) * 초중상 같이 배우실 분 10만원 추가

3. 제출서류 및 기간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반명함사진 1매 (태고종 승려는 승적증명서 1통, 수계증 사본)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접 수 처 : 충북교구 종무원 / 전화 043)265-7100

태고원융 불교대학 학장 조원해 합장

2013
2013(불기 2557)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 입 생 모 집 안 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2년	불교입문, 부처님생애 대승불교, 불전개설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8:30 ~ 19:50 · 2교시 : 20:10 ~ 21:3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명함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20만원 (1년 10만원씩)
	2학년		천태불교학 중국불교, 법화경 Ⅰ · Ⅱ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선사상, 유식사상천수경, 정토사상 화엄경, 포교방법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 18:00 ~ 19:20 · 2교시 : 19:30 ~ 20:50 · 3교시 : 21:00 ~ 22:20	· 지원서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25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일 산 화성사 : 031.905.2912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군 포 상락사 : 031.392.0924	· 접수 : 2012년 11월 19일(월) ~ 2013년 2월 15일(금) 18시까지 · 면접 : 2013년 2월 16일(토) 오후 16시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 관문사에서 하차)

서 울 金 剛 佛 敎 大 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어머니 모습으로 나투신 관세음보살

남종진 화백 개인전…스페이스선+에서 2월 18일까지


남종진의 '모자관음상'

남종진 화백은 2월 18일까지 '관음보살도'展을 스페어스선+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서 남 화백은 관세음보살을 주제로 그린 불화 17점과 2013년 신작 5점을 선보인다.

남종진 화백은 6년 전 낙산사에서 조감도를 그리며 매일 저녁 홍련암에 올라가 108배 기도를 했다. 그때 빛으로 나타난 관음보살을 보고 33관음보살도와 24관음, 7관음, 6관음, 40관음도 등을 그리기로 마음먹었다.

남 화백은 "관세음보살은 항상 우리의 옆에 계시어 모든 중생을 삶의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고 안락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존재다. 33분의 관음도와 관음의 변화된 모습을 그려 많은 불자들에게 관음보살님의 가피를 나누어주고자 하는 원력을 세웠다"며 전시의 취지를 설명한다.

이렇게 완성된 그림을 그는 33관음보살도를 상징하는 33개 사찰과 미술관에서 전시해 보자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2010년부터 해인사, 봉은사 등 전국 주요 사찰 및 미술관에서 '33관음보살도'를 순회 전시 중에 있다. 이번 전시는 24번째로 이런 그의 원력이 반영된 전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남 씨는 기존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에 치중하되 현대적 요소를 가

홍련암서 만난 관음보살
작품으로 표현, 순회전시

미해 자신만의 작품을 표현해 냈다.

특히 '모자관음상'은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어머니로 표현했다. 남 화백은 "자비의 관세음보살이 약한 아이를 돌보며 중생을 어루만지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남 화백은 3월 영천 은해사에서 25번째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남종진 화백은 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졸업를 졸업하고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을 수료했다. 다다갤러리(1998), 불일미술관, 해인사, 조계사, 범어사, 벡스코 등에서 개인전을 연 바 있다. 저서로는 〈33관세음보살 이야기(도서출판 운주사)〉가 있다. (02)732-0732 정혜숙 기자

스님들로 구성된 밴드 '우담바라' 결성

대구능인선원 혜장 스님 단장
전문 음악인 8명 멤버로 활동


밴드 우담바라는 8명의 스님으로 구성됐다.

8명의 스님으로 구성된 밴드 '우담바라'가 결성돼 화제다. 대구 능인선원 주지 혜장 스님을 단장으로 지난해 7월 오디션을 거친 8명의 스님으로 멤버를 구성, 지산 스님과 지연 스님이 보컬을 맡았다.

여기에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한 대원 스님(색소폰)과 자운 스님(콘트라베이스), 보화 스님(건반), 법상 스님(드럼), 수진 스님(기타) 등이 악기를 다룬다.

혜장 스님은 "모두 20년 이상 악기를 다룬 인재들이다. 2011년 봄부터 우담바라 결성을 꿈꾸며 전국에서 음악 잘하기로 소문난 스님들을 수소문했다. 100여 명이 지원했는데 오디션을 거쳐 오늘의 멤버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우담바라는 지금까지 'Autumn Leaves', '잠자는 공주' 등을 연주해 찍은 동영상을 유투브에 올려 현재 1천 건 이상의 조회를 기록했다.

현재 대구 경북 현지에 흩어진 멤버들은 한번 모여 연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3월부터는 연습실을 마련해 합숙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담바라는 앞으로 해금과 인디언 드럼을 연주할 수 있는 스님도 모집해 위문공연, 음악 봉사활동 등을 할 계획이다. 혜장 스님은 "교도소든 군법당이든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대중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4월에 창단 공연도 가질 예정"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정혜숙 기자

"생명의 돌에서 자비의 부처님 발견했죠"

조각가 오채현… 3월 14~17일 홍콩아트페어 참가

"돌을 계속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형상이 그려져요. 그러면 돌 속에 감추어진 부처님의 얼굴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죠. 저는 돌에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가공만을 하죠. 그렇게 먼지 털듯이 돌을 털어내며 원래 계시던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내요. 이 모든 작업이 형태나 격식이 아닌 직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수행과정이죠"

오채현 작가는 자신의 작업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인위적인 조각의 느낌을 떠나 오랜 시간 풍화작용으로 마모된 듯 자연스러운 느낌이 든다. 편안함과 부드러움이 마음의 잔잔한 파도를 일으키며 싱긋 미소를 짓게 만드는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따뜻함이 밀려온다.

염화미소, 석가모니, 약사여래, 아미타불 등 다양한 불상 조각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모아온 오채현 작가가 3월 14~17일 홍콩아트페어에 참여한다.

소설가 윤후명 씨는 그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돌은 그 정신을 옮겨 다시 태어난다. 그 돌에 피가 돌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수더분한 자세로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아무렇지도 않게 보살도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뿐인가. 그 돌에 스며 깃들어 있는 장인의식이 예술의 깊은 자각을 일깨우고도 있는 것이다. 오늘 그의 조각 앞에서 나는 잃어버렸던 심성을 되찾으며,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모은다"

이처럼 그의 작품 하나하나는 묵묵히 돌 작업에 임해온 노고의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배어들어 감동을 준다. 그는 낙숫물을 뚫듯이 지난한 시간을 거쳐야 작품이 완성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깨달은 자 붓다의 형상을 이루어내고자 했다.

"돌은 단순하면서도 묵직한 성질의 소재로 제 성격과도 잘 맞아요.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이태리에서


오채현 작가

편안한 형상의 불상 인간미 넘쳐
낙숫물 뚫듯 꾸준한 작업으로
작업 세계 개척해 나가고자
뉴욕 전시서도 한국문화 알려

5년간 공부를하면서 돌이 가지고 있는 습성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동물 등을 소재로 했지만 깨달은 자 붓다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는 올 9월 미국 뉴욕에서의 전시도 앞두고 있다. 지난 2010년과 2012년도에도 뉴욕 전시를 가진 바 있는 그는 지난 전시를 통해 서구 문명의 폐해를 느끼는 서양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고 한다.

"가장 풍요로운 물질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 한계를 느끼는 이들이 바로 미국인들이죠. 그들이 불교에 갖는 관심은 무척 커요. 신앙보다는 자기 수행으로서의 불교에 무척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전통적인 소재와 방법으로 만들어진 깨달음의 상징 부처님의 모습을 미국인들이 무척이나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듯했어요"

이번에 홍콩아트페어에 전시될 '해피붓다' 역시 구들장 돌인 얇은 판석에 부처님 얼굴을 새겨 벽에 걸 수 있도록 했다. 작품 하나가 20cm 돌 작품으로 다섯 부처님의 얼굴을 벽에 걸도록 했다.

"이 땅에 부처님이 다시 오신다면 지친 현대인들을 끌어주고 앉아주고 보듬어 주는 그런 부처님일 거라고 생각해요. 깨달음을 얻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불두로 표현했다"

작가에게 돌 작업은 바위가 낙숫물을 뚫듯이 매일 매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작업해 이루어내는 고행의 결과다. "전업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출근해 하루를 열심히 살듯이 저는 제 작업실로 출근해 하루의 작업을 성실히 해내는 것이 작가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기교나 아이디어로 기발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직하게 꾸준히 전통적 방법으로 하루하루 저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 소명이죠"

올 한 해 오채현 작가의 행보는 바쁘다. 홍콩 아트페어에 앞서 3월 7~10일까지 열리는 붓다아트페어를 시작으로 홍콩을 거쳐 9월 뉴욕전시까지 그는 가장 한국적인 소재로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자 한다. 또한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

오채현 작가는 1962년 경주에서 태어나 경북대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마치고 이태리 까라라 국립미술아카데미 조소과를 졸업했다. 1991년 개인전을 시작으로 조계사(2002), 학고재(2007), 인사아트센터(2009), ABLEFINEARTNY(2010, 뉴욕), 청도운문사(2013) 등 총 23번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을 가졌으며 아트시카고(2008), 키아프 (2007), 베이징 아트페어(2012) 등에 참가했다.

2005년 바티칸 한국대사관에 한복 입은 성모상을 제작한 바 있으며 주로 거친 화강석으로 해학적이고 익살스러운 한국적 정서를 표현해내고 있다. 현재 경기도 파주에서 작업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다양한 불상 조각으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오채현 작가는 3월 14~17일 홍콩아트페어에 참가한다. 작품 왼쪽은 '염화미소' 오른쪽은 '해피붓다'

세계 곳곳 흩어진 백남준 작품 파악한다

백남준문화재단 목록화를 위한 현황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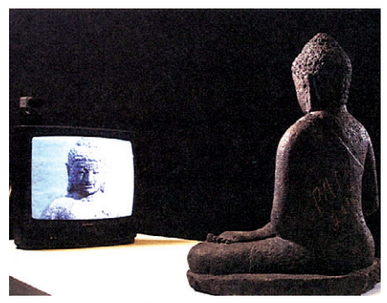
한국이 낳은 위대한 예술가로 세계미술사에서 비디오예술이란 장르를 창시한 백남준(1932~2006)은 신실한 불자로도 유명하다. TV부처, 백팔번뇌, 고려대장경, 테크노붓다, 손부처, 선(zen)을 위한 TV(1963), 달은 가장 오래된 TV 등 다양한 불교 관련 작품을 남기기도 한 백남준.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들에 대한 최초의 현황조사가 시작돼 눈길을 끈다.

백남준문화재단(이사장 황병기)은 백남준 씨가 전 세계에 남긴 작품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작업을 5년 동안 펼친다. 이에 1차년도 사업으로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투입 국내 소장 작품에 대한 정확한 실태에 조사에 들어간다.

백남준의 작품들이 전 세계에 산재해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 돼 그의 예술세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백남준문화재단 측은 "지난해 가을 출범한 백남준문화재단은 첫 사업으로 백남준 씨의 작품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조사해 그의 예술세계의 폭과 깊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계인들이 그의 예술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를 올바르게 평가받도록 하는 기초조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백남준문화재단은 미술계와 기술계 등 각계 대표들로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결성해 현황조사의 방법과 범위, 과정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전문연구원들이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자료화하게 된다. 정혜숙 기자


백남준의 'TV부처'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3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다. 강 주 : 석법운 스님, 월봉 스님

2. 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3년 3월 4일 (월요일)
■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무원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아시아 판화 한자리에서 만나요”

고판화박물관 개관 10주년 ‘복받는 그림 특별전’
2월 6일 ~ 6월 30일… 숲속 판화 학교도

새해를 맞으면 많은 이들이 새롭게 마음을 다진다. 질병은 물러가고 악재는 사라지며 모두가 평화롭고 순탄하고 원만하기를 바란다. 이런 염원을 담은 전시가 있어 눈길을 끈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이 ‘복받는 그림 특별전-아시아 세화 판화의 세계’가 6월 30일까지 열린다. ‘복받는 그림’ 즉 세화라고 칭하는 총 100여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33 관음성지 순례도 목판과 인출판화, 백살소멸 만복부 목판과 판화, 티베트 채색 타르초, 성불도 목판본 놀이판 등 불교 관련 작품도 있어 눈길을 끈다.

고판화 박물관 한선학 관장은 “신년을 맞아 세시 풍습과 관련된 전시를 펼친다. 세화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대문이나 집안에 부쳐놓고 불행을 막아주고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부쳤던 그림이다. 저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요즘 이 작품들을 통해 많은 대중들이 위안과 희망을 얻길 바란다”며 전시 취지를 설명한다.

‘33 관음성지 순례도 목판’은 일본 에도시대 목판화다. 일본에서는 33회 관음성지를 순례하면 무병장수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성지의 절을 대표하는 관음상을 모으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33관음성지를 대표하는 불상을 한데 모아 판화로 만든 것으로 극락세계를 상징한다.

성불도 목판본 놀이판도 흥미롭다. 성불도 놀이는 오락을 통해서 불교의 수행자체와 교리 체계는 물론 생사가 없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이치를 이해시키며, 염불정진을 권장해 신심을 고취시키는 교훈적 놀이다. 최후에 도달할 지점을 ‘대각(大覺)’에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여러 사찰에서 이 놀이판을 찾아볼 수 있다. 놀이방법은 서산대사(西山大師)의 〈고기(古記)〉와 이능화(李能和)의 〈중간기(重刊記)〉 등에 기록되어 있다. 작품은 조선후기것으로 추정된다.

‘백살소멸만복부’는 도교에서 쓰는 기호 부적들로 인간의 모든 살을 없애고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판화다. 여기에 ‘佛’자를 중간에 새긴 것은 흥미롭다. 이에 대해 한 관장은 “결국 모든 것이 불교로 회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편견 없이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고 불교로 회향하는 통불교를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깃발을 꽂아 놓고 소원을 말하면 바람이 하늘의 신에게 올라가 그 소원을 받아 내려온다는 의미를 지닌 티베트 깃발 ‘타르초’도 만날 수 있다.

이밖에도 한국의 부귀다남 수복강령 보판(문양판)을 비롯해, 천도교에서 1923년

아시아 ‘세화 판화’ 100여 점
성불도놀이·타르초·日33관음도 등

계해년 신년에 사용됐던 세화 2점과 관련 유물 3점이 최초 공개된다. 또한 신년에 사용되었던 목판화 월력으로 한글 병행본도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도 호작도 판화와 삼재부적, 재신과 관련된 유물들과 신년 세시 풍속 작품 1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한 관장은 “중국에서 세화는 당시대 이후 송·명시대, 청나라 등을 거쳐 공산당 정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국 문화의 원형 중 하나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가 재신이며, 집안에 재물이 많이 들어와 한 해가 풍요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양한 소재로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고판화박물관은 명주사 템플스테이와 연계해 세화 판화 만들기 숲속판화학교도 함께 진행한다. (033)761-788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티베트 타르초


백살소멸 만복부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연화화생(蓮花化生)→만병화생(滿甁化生) ㉦

직지사의 만병화생 용이 오색영기·물 뿜어 ‘절’ 생겨

만병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둥근 항아리만 떠올릴지 모른다. 그러면 왜 만병(滿甁)이라고 이름 지었을까. 나도 처음에는 의아해 하여 만호(滿壺)라고 불러야 옳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그런데 항아리 호(壺)라고 알고 있는 글자를 옥편에서 찾아보면 ‘병 壺’라고 하여 항아리를 병으로 인식한다. 병(甁)이라는 글자를 파자(破字)하면 병의 좌측 글자는 ‘아우를 병(幷)’이다. 따라서 그릇 전체를 아우르는 성격의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우측의 ‘瓦’는 그릇을 만들 때 진흙을 쓰기 때문이다. 나는 일본 대덕사 소장 수월관음도에 대한 논문을 썼을 때 그릇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었었다. 둥근 항아리뿐만 아니라 정병이나 승반이나 모든 도자기는 만병이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이것은 세계 도자사(世界陶瓷史)연구에 큰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대웅전 불단에 만물 화생 도상 가득

직지사에 가면 대웅전에 거대한 불단(佛壇)이 있다.(그림 ①-1, 그림 ①-2)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불단의 형식인데 그 이전 시대와 달리 불단이 직육면체로 매우 크다.

윗면은 매우 넓어서 흔히 삼존불일 경우 불상 세구를 모시고도 여유가 많아 향로, 꽃병(만병), 촛대, 쌀 봉지 등 잔뜩 올려놓고 있다. 그리고 불단 앞면과 양 측면에는 여러 가지 무늬로 장엄하고 있다. 그 불단의 전체 상징은 나의 이론인 ‘영기화생론’으로 완벽히 풀어낼 수 있으나, 후일을 기약한다. 사찰에 여러 번 다녔어도 불단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불단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던 중 직지사 불단에서 나는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였다.

불단의 처음 부분 가운데 단에 푸른색의 정병 모양이 있는데 주입구(注入口)로부터 만병 안에 들어 있었던 용이 겨우 빠져 나오고 있지만 탄력성이 있다.(그림 ②-1, 그림 ③-1.)

용의 다리에는 빨간 색의 영기문이 발산하고 있다. 정병에서 용이 나온다는 것은 ‘한없는 영화된 물’이 솟구쳐 나온다는 것을 뜻한다. 한 편 정병의 위 부분의 물이 나오는 길게 높은 대롱 같은 주출구(注出口)로 부터는 엄청난 오색 영기문이 뭉게뭉게 힘차게 발산하다가 두 갈래로 갈라져 좌우로 뻗쳐 나간다. 한 갈래는 그 긴 불단의 왼쪽 끝까지 뻗쳐나간다. 그 옆에는 큰 잠자리와 나방이와 흰 연꽃 같은 것이 있다. 영기문에서 생명이 화생하는 광경이다. 두 사진은 확대하여도 잘 파악이 안 되므로 채색분석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④-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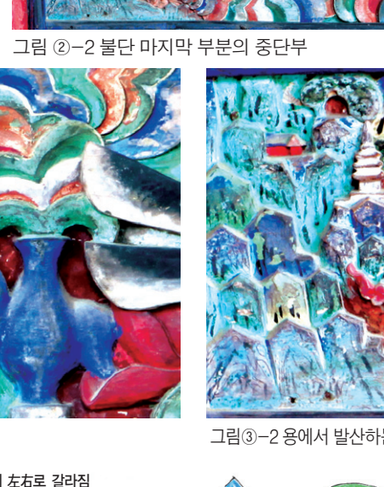
만병의 용을 통해 직지사 ‘화생’

흥미롭게도 그 긴 불단의 왼쪽 끝을 보면, 오른 쪽 시작점인 정병에서 나온 용이 다시 오색 영기문을 뿜어내며 나타난다.(그림 ②-2, 그림 ③-2)

채색분석해보면 용의 입에서 보주가 나오고 좌우에 빨간 작은 구름모양 영기문이 있다. 정병에서 오색 구름모양 영기문이 솟구쳐 나오듯이 이번에는 용의 몸에서 같은 모양의 오색 영기문이 뻗쳐서 오른 쪽을 향하여 뻗쳐 나간다. 그러므로 이 중간 단에는 오른 쪽의 정병과 왼 쪽의 용이라는 두 축이 있다.

그리고 용으로부터 무량한 물이 솟구쳐 나오는데, 그것을 중첩된 육각형 바위 모양으로 나타냈다. 육각은 물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정병에서 용이 나오고 용의 입에서 보주와 무량한 물(수많은 암석 같은 육각수문:六角水文)이 나와서 여래가 봉안된 사찰이 화생하는 맥락을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다.(그림 ④-2)

이처럼 용, 영기문, 육각수를 나타낸 모양 등에서 마침내 사원이라는 절대적 공간, 즉 우주의 축소가 화생한다. 탑을 중심으로 좌우에 두 법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큰 나무들이 있다. 이 절은 무엇일까? 나는 이 절이 바로 직지사(直指寺)라고 생각한다. 사원이라면 직지사 대웅전의 불단에 나타낸 것은 직지사일 수밖에 없다. 아, 이 직지사의 만병화생을 확인하는 순간, 저 인도의 카를리 석굴사원의 기둥들이 만병에서 화생하는 도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며, 역시 신전(神殿)의 만병화생의 도상의 역사는 길고도 길음을 알았다.


그림 ①-1 불단의 오른쪽 처음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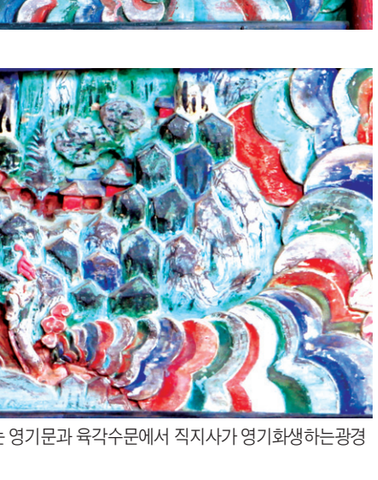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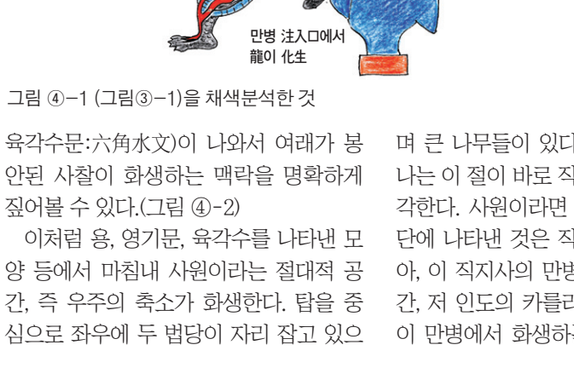

그림 ①-2 불단의 왼쪽 마지막 부분


그림 ②-1 불단의 처음 부분의 중단부

그림 ②-2 불단 마지막 부분의 중단부


그림 ③-1 정병에서 나오는 용과 영기문

그림③-2 용에서 발산하는 영기문과 육각수문에서 직지사가 영기화생하는광경



그림 ④-1 (그림③-1)을 채색분석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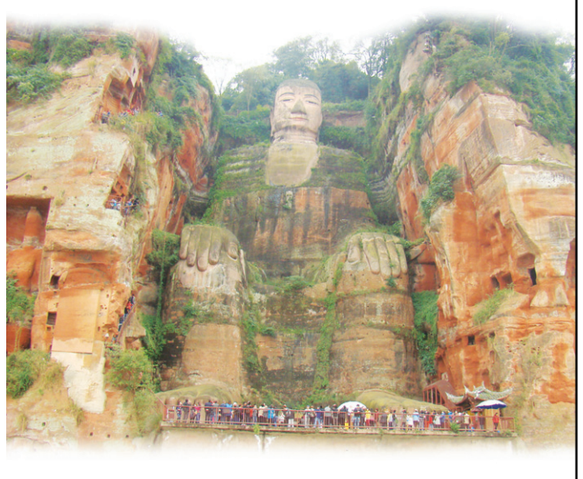


그림 ④-2 (그림 ③-2)를 채색분석한 것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스님과 함께 떠나는
하나투어(VIP여행사) 중국성지순례 6일
사찰 주지스님 종단 스님, 불자님 누구나 동참 가능합니다.
부산에서 3월 29일 출발 : 북경 | 성도 | 아미산 | 낙산
부산 ⇨ 북경 ⇨ 성도(1박) ⇨ 낙산 ⇨ 아미산(2박) ⇨ 성도 ⇨ 북경(2박) ⇨ 부산
불자라면~ 평생 한번은 꼭 가봐야 하는 성지순례
세계 최대 마애불상 낙산대불!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성도의 최고 고찰 문수원!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관광까지....
주요일정 (전일정 현지최고호텔 및 전용버스)

1일(3/29, 금)	북경, 성도
2일(3/30, 토)	낙산 : 소각사, 대자사, 낙산대불, 대불선원
3일(3/31, 일)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만년사, 금정사, 복호사
4일(4/ 1, 월)	성도 문수원, 아미산 보국사, 소열사, 금리시장, 북경
5일(4/ 2, 화)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이화원
6일(4/ 3, 수)	북경, 부산

■ 여행 경비 : 1,370,000원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하나투어)
■ 전화주시면 상세일정 안내 및 세부일정표 보내드립니다.
■ 여권사본팩스, 여행경비 입금 FAX : 055)867-8009
■ 접수 마감 : 2월 28일까지

문의 및 접수 : 055)867-2259 / 진주 하나투어 VIP여행사 055)741-9999
후원 :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신제품 (특허제품)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 발판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법정 스님이 우리들 가슴에 적고 간 이야기들



가슴이 부르는 만남
변택주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1만5천원


1995년 봄 길상사. 법정 스님이 행지실 돌담 위로 핀 매화와 마주섰다.

지인 18명의 인연담 수록
힘든 이에게 위로 주는 이해인 수녀,
〈멈추면 비로소…〉의 혜민 스님도
스님의 말과 글에서 위로 받고 힘 얻어

법정, 그 두 글자는 글자만으로 설법이고 수필이다. '부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여야 한다고 그가 말했듯, 그의 이름도 이제 맑고 향기로운 삶의 보통명사처럼 들린다. 홑겹 가사 하나 덮고 적멸의 길로 떠난 지 3년. 그를 지척에서 만났건 먼발치에서 보았건 그와의 만남은 만남 자체가 고운 '문장'이다. 혜민 스님, 이해인 수녀, 이철수 화백 등 열여덟 편의 고운 만남을 실은 책은 스님과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의 이야기 〈법정, 나를 물들이다〉의 후속으로, 2012. 1 ~ 2013. 9 본지에 연재되었던 '법정 스님과 만난 사람들'의 후반부다.

"우연한 스침은 있어도 우연한 만남은 없다. 만남이 결을 이룬다. 물이 논에 들어 벼를 살리고 산에 들어 푸나무를 살리듯이, 뜻 맞는 사람들이 만나 비벼대며 서로를 빛내는 결이 바로 숨결이다." 저자의 말대로 책은 '만남'에 펜을 겨누고 있다. 그 만남 중에서 법정 스님을 좀 더 가까이서 만났던 만남들이다.

책은 네 마디로 나눠져 있다. 첫째 마디에는 '세상을 벼리다'라는 제목으로 김선우, 박석무, 최완수, 도법, 윤구병의 만남을 실었다. 둘째 마디(어우렁 더우렁)에는 지묵, 이해인, 임의진, 금강, 혜민의 만남을 실었고, 셋째 마디(내가 길이다)는 김종서, 이철수, 홍쌍리, 문순태의 만남이다. 마지막 넷째 마디(맑고 향기롭게)는 배차년, 나석정, 정태호. 김의식의 만남이 실려 있다.

"어디로 가야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진실한 만남은 앞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준다. 그대여, 무릎을 꿇기엔 아직 이르다. 가슴이 부르는 만남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다. 희망과 위로도 주고받는 것이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멘토들도 홀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들도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등이 필요했고, 누군가 그들에게 등을 내주었다." 따뜻한 시로 우리에게 기쁨을 보내는 이해인 수녀. 법정 스님의 글과 만남으로 인해 인생의 터닝포인트마다 물꼬를 터 줘서 든든했다고 기억한다. 유명세 때문에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는 스님이 농담으로 미소를 되찾아 주기도 했다. 이해인 수녀는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친분 농도만큼 아프다,"는 법정 스님의 글을 가슴에 새기고서, 암에 걸려 몸이 고달플 텐데도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을 정성껏 만나 오늘도 기쁨을 나누고 있다.

중학생 시절 〈무소유〉를 읽고 영혼의 울림을 느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 혜민 스님은 법정 스님 책이라면 무조건 사서 읽은 열혈 독자였다. 미국에 유학 갈 때도 스님의 책 〈새들이 날아간 숲은 적막하다〉를 챙겨 가서 삶이 고달플 때마다 꺼내 읽었다. 출가 후 미국에서 고대하던 법정 스님을 뵙고 자주 모신 혜민 스님은 법정 스님이 승려가 글을 쓰는 문화를 만드셨기에 오늘의 자신도 있을 수 있었다면서 법정 스님을 인자한 할아버지로 기억한다.

"제가 아주 젊어서 법정 스님이 번역하신 부처님 일대기를 봤어요. 반듯한 우리말로 번역한 부처님 일생을 만나면서 '이렇게 친절한 분이 계신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무소유〉란 수필집도 내셨더군요. 이런 인연이 쌓일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뒷날 제가 스님 대표작 〈무소유〉 표지 그림도 그리게 되고, 뒤늦게야 이렇게 만나고 또 흘러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씨앗을 많이 뿌리신 분이세요. 저는 어려운 걸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어려운 걸 쉽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따르고 존경했어요. 스님도 그런 분이셔서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같이 가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젊어서는 스님의 책만 열심히 봤다는 이철수 화백(판화가). 그는 〈무문관〉 48칙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만드는 연작을 준비하고 있다. 선화를 해 보라고 했던 스님 말씀에 대한 화답으로 "그림으로 창을 내는 일"이란다.

우리는 법정 스님을 〈무소유〉를 비롯한 많은 글을 남긴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스님의 글은 스님의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스님은 만나는 사람들의 가슴 가슴에 늘 잊지 못할 글들을 적고 있었다. 스님이 만나는 가슴마다에 적어 놓은 수필들이다.

스님은 이제 당신이 심은 나무 곁으로 돌아가 함께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있다. 스님을 볼 수는 없지만 대신 스님을 만난 이들이 스님을 닮아가고 있다. 세상이 스님을 닮아가는 날을 기대하게 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서정주 아우 서정태의 오래 참았던 노래 90편

그냥 덮어둘 일이지

서정태 시 · 권혁재 사진 | 시와 펴냄 | 1만천원



"뜰 앞에 심은 다박솔이 커서 / 학이 날아 와 우는 날 / 그 하늘 너무나 맑기만 해 / 천상의 피리소리도 들리는 날 / 오래도록 참아왔던 나의 노래 / 그때에나 한 곡조 불러보리"-학이 우는 날. 미당 서정주의 동생 우하 서정태가 오래도록 참아왔던 노래를 불렀다. 올해 90을 맞은 우하의 두 번째 시집이다.

우하는 시인이면서 시인을 꿈꾸며 살았다. 미당이라는 높고 높은 산이 늘 눈앞에 있었다. 미당이라는 산이 그에게만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그 산은 보지 않아도 보이는 산이고, 오르지 않아도 힘든 산이었다는 것이 남들과는 다른 점이었다. 그리고 그 높은 산으로 인해 그는 시인으로 불리지 못하고 미당의 동생으로 불렸다.

형 미당은 어려서부터 시 쓰는 소질이 뛰어났다. 우하는 그런 형을 보면서 시인을 꿈꿨다.

우하는 첫 시집을 준비했으나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이루지 못했다. 그가 시를 꿈꾼 건 미당의 영향이었지만 미당은 동생 우하의 시를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하는 시를 접고 기자가 됐다. 1946년 민주일보를 거쳐 전북일보에서 30년 간 일했다. 같은 세월 미당은 한국의 시성(詩聖)이 되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이었을까. 1986년, 우하는 첫 시집 〈천치의 노래〉를 낸다. 형 미당이 동생 우하에게 말했다. "네 시 참 좋더구나." 처음이자 마지막 칭찬이었다. 미당이 서문을 썼다. "네가 쓴 시들이 부디 명이 길어서 나와 너의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래 살아있는 것이 되기만을 바란다. 1986년 1월 29일 미당 서정주," 그로부터 27년이 흘렀다. 학이 뜰 앞에 날아 와 울고, 천상의 파도소리도 들려온다. 시인을 꿈꾸며 살아온 시인은 오래도록 참아왔던 시 90편을 드디어 부른다.

"동녘 바람이 불어와서 / 창가에 매화가 피면 / 그 향기에 / 난 그댈 생각하리 // 서해 바람이 준령 넘어 / 해 드는 곳으로 가서 / 태화강변 / 감나무에 가을빛 알리거든 / 그때엔 날 생각하게 // 너와 내가 사는 세상 / 바람의 소식이면 그 뿐 /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거니 / 세월이사 간들 어떠하리" -바람의 소식-전문

우하의 시는 따뜻하다. 오랜 세월, 삶이라는 모진 풍파를 견뎌온 아흔의 고개에서 내려다본 삶은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는 시를 통해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우리네 세상살이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선을 선사한다. 우하의 시는 고요하다. 도시의 소음이나 거친 삶의 흔적들은 그의 시에서 찾아볼 수 없다. 우하의 시는 자연 그대로의 삶과 소통한다. 그의 시에서는 흘러가는 시냇물 한 줄기, 돌멩이 하나까지도 작은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우하의 시는 그의 삶을 닮았다. 소박하면서 정겨운 그의 삶은 숱한 고비들을 품고서 따뜻한 성찰의 시가 되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30 ~ 1/5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만현	현지궁현지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개정증보판)	김재웅	용화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5	깨달음	법륜	정토
6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7	그대는 그대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가	선묵 혜자	아침단청
8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공경원
9	롭상 람파의 가르침	롭상 람파	정신세계사
10	우리 절집의 옛이야기와 한담	김영숙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짧은 이야기, 깊은 그림책

신기한 목탁 소리

한승원 글 · 김성희 그림 | 보림 펴냄 | 1만2천8백원



"어느 큰 절에 늙은 스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옛날이야기'를 시작하듯 시작하는 책은 단 열여덟 문장과 열여섯 컷의 그림이 전부다. 글은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한승원이 썼고, 그림은 김성희의 목판화다. 책은 일흔을 넘긴 한승원이 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든 것이다.

어느 큰 절에 귀가 들리지 않는 늙은 스님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목탁을 깎는다는 스님의 이야기이다. 마치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듯한 이야기의 표면은 간결하다.

그렇지만 내용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노작가는 아주 짧은 이야기를 통해 인생에 대한 삶의 자세와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 손자에게 혹은 어린아이들에게 작가 자신이 궁구해온 삶의 철학을 은유적으로 전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한 문장, 한 문장을 고치고 또 고치며 완성해 나갔다고 작가는 말한다.

술술 읽히지만 의미를 되새기게 만드는 그림책이다. 노작가가 오랫동안 매만져온 이야기와 함께 그림책 속의 시 정신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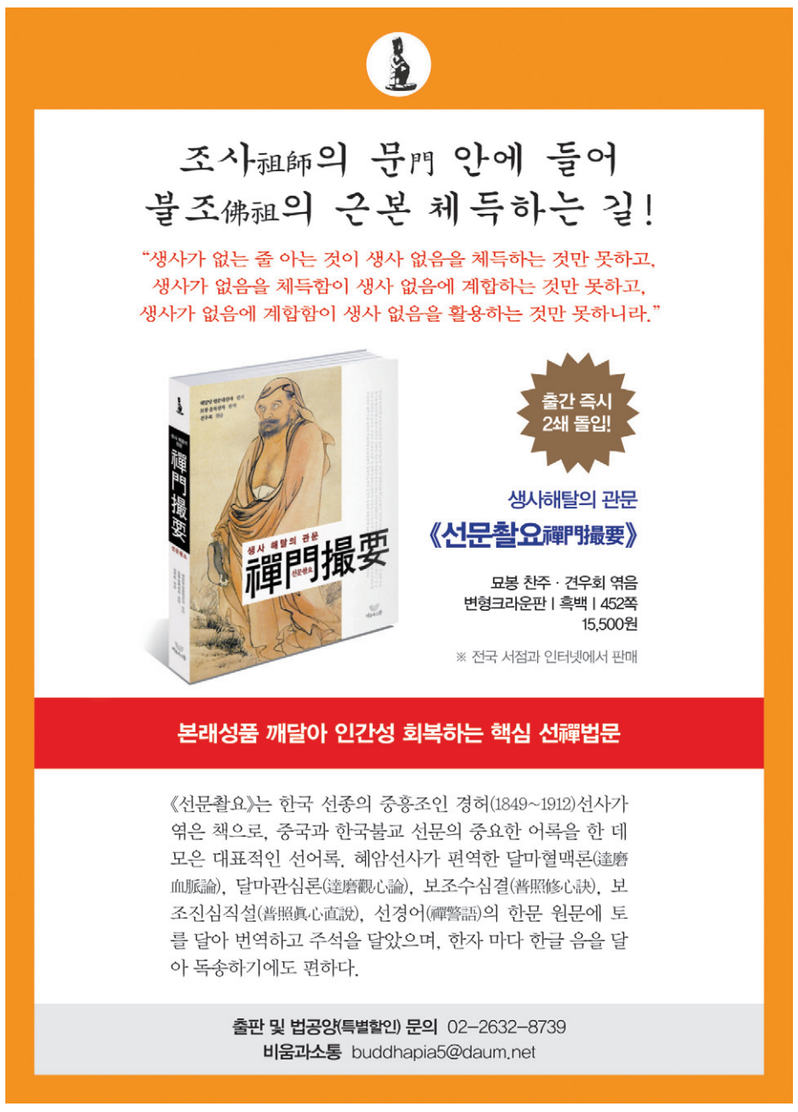
책 속의 그림은 작가가 한 마음으로 목탁을 깎는 이야기 속 스님을 생각하며 목탁을 깎듯 깎은 목판화다. 작가 스스로가 자신을 깎는 마음으로 깎은 그림은 목판화가 주는 따뜻한 나뭇결과 중첩된 색의 깊이가 새로운 여운을 준다. 판화의 돋을새김과 오목새김의 명징한 명암의 대비가 글의 간결함과 함께 어우러져 더 한 층 깊은 세계를 구현했다.



작가는 목판화로 목탁소리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한다. 칼이 지나가야할 길목을 나이테와 옹이가 막아설 때마가 작가는 이야기 속의 스님을 생각했다고 한다. 스님이 목탁을 깎듯이 자신을 깎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는 작가는 책 속의 그림을 만들면서 삶을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됐다고 한다. 아이들을 위한 책인 동시에 어른들을 위한 책이다.

박재완 기자







역사속 과거로의 여행, 실크로드



걷는자의 꿈, 실크로드

글 사진 문윤정
바움 펴냄
1만7500원



란주 병령사의 부처님 열반상 모습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느껴진다.

저자인 작가 문윤정을 아는 이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무엇인가를 찾아 부단히 길 떠나는 사람 같다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을 찾아 떠나는 저자의 역마살은 자신의 태생과도 무관하지 않다. 저자는 어린시절 유적지가 지천에 널려 있는 천년고도 경주서 태어나 반월성, 안압지 등을 열심히 쏘다녔다. 사실 무대만 세계로 넓혀진 것이지 예나 지금이나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늘 바람처럼 길 떠나기는 마찬가지 였던 것 같다.

그런 저자가 이번에는 실크로드를 다녀와 그 여정 견문 감상을 글과 사진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실 요즘같은 글로벌 시대에 해외여행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저자가 여행한 실크로드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의 발길이 그리 빈번하지 않은 곳이다. 그런점에서 이 책은 더욱 흥미롭게 다가온다. 쉽게 가볼 수 없는 곳에 대한 동경심 때문인 것 같다.

이 책의 주 무대인 실크로드(Silk Road)는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Richthofen)이 처음 사용했다. 이는 고대 중국과 서역 각국 간에 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역을 하면서 정치 · 경제 · 문화종교를 이어준 교통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장안(지금의 시안)에서 타클라마칸사막, 파미르고원, 중앙아시아 초원, 이란고원, 터키 이스탄불을 지나 로마에까지 이르는 길을 지칭한다.

실크로드가 처음 열린 것은 전한(前漢) 때다. 한 무제(武帝)는 대완국, 오손국, 대월지국과 같은 서역의 여러 나라와 동맹해 북방의 흉노를 제압하고자 했다. 그는 장건(張騫)에게 이 임무를 맡겼는데, 실로 십수 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서역 경영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실크로드는 상업적인 면뿐만 아니라 동서문화의 교류라는 면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실크로드는 서로 다른 문명간의 충돌이 아니라 교류와 융합을 통해 상생해온 길이며, 동서남북을 소통시켜 과거를 현재로 이어줬다.

저자의 실크로드 여행은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출발한다. 이어 이슬라마바드, 탁실라, 카라코람하이웨이, 길기트, 훈자마을, 소스트를 거쳐 탁스쿠르칸, 카슈가르, 우루무치, 타클라마칸사막, 투루판, 돈황, 란주, 천수, 그리고 시안에 이른다. 물론 이 책에서 이란고원과 터키 등에 이르는 과정은 제외됐다. 하지만 비단길의 과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실크로드를 직접 걸으며 자신의 감정과 상상력을 동원해 보고 느끼고 체험한 사실들을 꼼꼼히 기술한다. 단순히 실크로드에 대한 이론적 접근보다는 작가 특유의 감성과 상상력을 통해 실크로드의 진면목을 파악하게 해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실크로드 여행은 여행자로 하여금 철저히 과거에 머물게 한다고 설명한다. 노회한 구조물이 들려주는 노래, 희노애락의 회한이 주름마다 새겨진 수천 년 전의 미라, 그리고 여행자 자신이 간직한 추억을 다 드러내기도 벅찬 그 무엇인가에 대한 시간 여행이라는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철저히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미래를 향한다는 역설적 사실을 깨닫게 하는 시간 여행이라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저자가 이 책에서 들여다본 실크로드는 마치 인간의 운명과 너무도 닮아 있다.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기쁨과 눈물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 과거와 현재의 영욕이 교차한다. 거기서 저자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결국 우리는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깨달음을 여행지 도처에서 알려준다.

여정에서 만난 불교유적을 보며 작가는 단상에 빠지곤 했다. 라호르박물관서 만난 '단식하는 붓다' 상 앞에선 부처님의 움푹 파진 두 눈을 응시하며, 한 인간으로서 윤회의 사슬을 끊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행을 했을까를 생각한다. 한족, 회족 등 40여개 민족으로 이뤄진 인구 300만명의 대도시인 란주의 병령사서 목격한 부처님 열반상 앞에서는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과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은 불행이자 축복이라 생각한다' 는 부처님 말씀을 상기하며, 세상의 어떤 고요함도 열반에 든 부처님 얼굴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동안 실크로드 관련된 책들은 많았지만, 대다수는 중국 시안서 돈황에 이르는 정보에 그친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실크로드에 의지해 삶을 살아간 사람들과 문명의 흔적들을 생생히 보여줘 실크로드의 전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책에 실린 저자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 자료도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준다. 책을 덮고 나면 마치 과거 역사의 시간속 여행에서 돌아온 느낌이 든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5번 국도서 만난 사찰과 사람들

감상과 현장 자료 꼼꼼하게 기록

추억의 길을 거닐다, 5번국도

최우식 지음 | 멘토 펴냄 | 1만5천원



이 책은 저자가 5번 국도를 여행하며 만난 길과 사람의 이야기다.

집시처럼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던 저자 최우식(철강 회사 CEO)은 5번 국도 걷기여행을 하며 느끼고 보고 체험한 것들을 사진과 함께 이 책에 담았다.

주말을 활용하며 1년간 5번 국도를 여행한 저자는 말한다.

"2011년 1월에 시작한 여행은 칠서, 영산, 창녕, 현풍, 대구, 의성, 안동으로 이어지고 시간이 경과하며 목적지가 조금씩 바뀌었다. 처음에는 걸어서 의성, 안동을 지났고 풍기, 단양, 제천, 원주로 이어지며 대중교통과 승용차를 더러 이용했다. 의성에서 안동까지 30킬로미터 남짓한 거리를 온종일 걷기도 했다"고.

봄에는 걸었고, 여름은 달렸으며, 가을은 즐겼고, 겨울은 맞이했다. 너도 나도 해외로만 나가는 요즘 우리나라에도 가볼 만한 여행지가 많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준 저자의 노력이 이 한 권의 책에 담겨 있다.

저자가 만난 것은 비단 국도만이 아니었다.

그는 고분을 만나고 도시를 만나고 석탑을 만나고 사람을 만났다. 5번 국도에 강과 산이, 부처와 예수가 있었다.

둑을 보며 걸었고 산을 지나 걸었고 부처를 만나며 걸었다. 걷기여행을 하며 방대한 지역을 돌아볼 땐 택시도 이용했고 위험한 구간은 버스를 택하기도 했다. 그가 보며 걸으며 꼼꼼하게 기록한 정성스런 자료들을 엿볼 수 있다.

혼자 시작한 여행이었지만 아내와 함께 다니기도 했다. 아내를 위해 급히 경로를 수정했어도 전혀 부족함 없는 구성은 그의 사전지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준다.

절마다 다른 일주문, 불이문, 천왕문을 비교하며 설명하는 저자의 유식함은 불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다.

책만 봐도 절을 갔다 온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의 글솜씨는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안겨준다.

출발하기 전에 철저하게 경로를 짜고 사전조사를 미리 하는 그의 부지런함이 깔끔하게 책 곳곳에 정리되어 있다.

저자가 다닌 경로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해놔서 그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 걸을 수도 있게 했다. 친절한 택시기사를 만나 계획에 없던 곳도 둘러보는 여유로움은 여행의 맛을 보여준다.

어린 시절 가슴을 설레게 했던 추억을 가지고 여행을 계획한 저자는 여행서와 인터넷자료들이 넘치는 이 시대에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글로 적고 순수하게 사진으로 찍었다. 그는 사진작가도 아니고 글을 화려하게 쓰는 글쟁이도 아니지만 길과 어우러진 풍경을 보는 눈은 전문가라고 할 만하다.

저자가 꼼꼼히 챙겨본 것 중에 하나가 탑이었다. 원래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 놓은 곳이다. 그곳에 부

1년간 주말활용해 여행
봉정사 등 10여 사찰도 답사
탑 역사적 배경 조사해 담아

처가 계시다는 의미로 본다면 탑의 재료는 크게 의미는 없을 거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신세동(법흥동) 7층 전탑, 법흥사지 3층 석탑, 대웅전 5층 석탑, 위라리 7층 석탑 등 각 탑마다 그 역사적 배경과 함께 자료들을 이 책에 담았다. 석탑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다.

여행 하며 둘러본 사찰 화엄사, 봉정사, 송림사, 부석사, 구인사, 문수암, 보현암, 송광사, 수타사 등의 일주문과 불이문 그리고 천왕문은 제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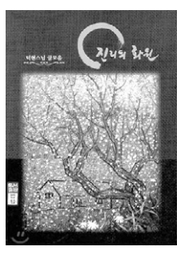
저자는 "사찰에 들어가는 첫 문을 일주문이라고 한다. 모든 진리가 하나이며 이곳을 지나면 속세를 떠나 불국정토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모습은 다르더라도 상대적으로 큰 지붕의 모습은 비슷하다. 일주문을 지나면 사천왕들이 지키는 천왕문이 나온다. 이 사천왕들의 표정도 사찰마다 다르다."고 사찰을 둘러본 감회를 이 책에서 술회한다.

김주일 기자

길을 잃고 해매는 이들 위한 행복법문

진리의 화원

덕현 스님 지음 | 법화 펴냄 | 1만3천원



회한과 고통이 거듭되는 중생의 삶 속에서 허겁지겁 속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전하는 참 행복의 메시지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저자는 前 성북동 길상사 주지 덕현 스님이다. 스님은 우리를 옭아 매고 가두는 방식은 정당하지 못하며, 누구나 그 내면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한다.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가 오직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라는 것이다. 부처님의 뜻과 불도를 깨달은 사람들의 가르침에 힘입어, 덕현 스님이 깨달은 바와 생각들을 이 책에서 차분히 정리했다.

침묵의 나무 그늘처럼 지친 나그네를 땀들이고 쉬게 하고, 열린 가슴 사이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진리의 화원에서 덕현 스님의 잔잔한 음성은 향기가 되어 전달된다. "행복하라, 그러나 행복을 구하지는 말라. 구하지 않을 때 그것을 얻을 수 있으며, 두드릴 필요도 없으니 그 문은 본래 열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덕현 스님은 몇해 전 입적하신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의 상좌다. 덕현 스님은 법정 스님 입적 후 걸림없이 살았던 스승처럼 길상사 주지직을 내놓고 떠났다. 이후 지난해 1월 수행공동체 법화림을 창립하며 회원들과 함께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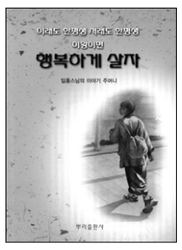
이 책은 스님이 길상사 주지 시절의 법문과 법화림 수행대중들에게 전했던 이야기를 모은 것이다.

김주일 기자

"남의 허물을 드러내려 하지마라"

행복하게 살자

일홍 스님 지음 | 뿌리 펴냄 | 1만2천원



부처님께서 10대 제자중 한사람인 우파리에게 '남의 허물은 드러내려 하지마라' 고 하셨다. 자신도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을 드러내면 '저나 잘하지' 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의미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면서 제 잘못은 반성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 주면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는다. 즉 흔히 자신부터 잘 다스리고 삼가는 것이 수행의 첫 걸음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선방에서는 '조고각하(照顧脚下)' 란 말을 자주 쓴다. 자신을 먼저 알고 남을 보라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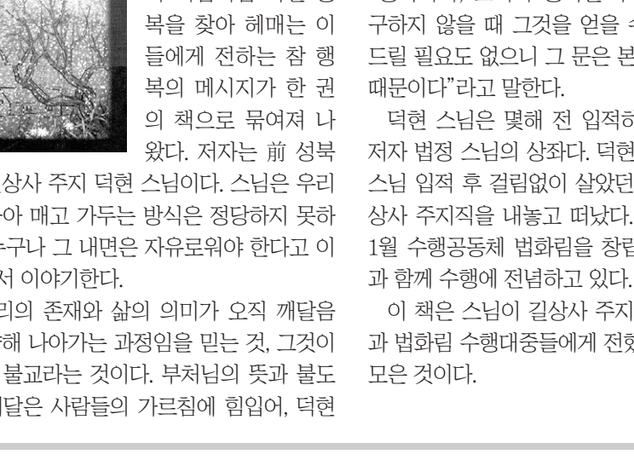
광명시 반야암에 주석중인 저자 일홍 스님도 책 머리에 '조고각하(照顧脚下)' 를 올렸다. 이 책에서 들려주고 싶은 핵심인 "남의 허물을 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내 허물을 비춰보는 성숙한 사람이 되자"는 뜻에서다.

30여년간 도심 한 복판서 포교 해온 일홍 스님은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인생에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도들에게 평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것들을 책으로 묶었다"고 말했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조고각하' '수하좌' '금구설' 이다. 이중 '수하좌' 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애착을 끊기 위해 나무아래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잠언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풍부한 예화가 곁들여져 있어 이해하기 쉽고 재밌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탐심을 없애고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한다면 행복하게 살 자신감이 생길것 같다. 김주일 기자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③ 일본의 한국불교 점령

일본의 물량공세에 사로잡힌 한국불교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 동국사. 동국사는 한일합방 1년 전인 1909년 일본승려 우치다에 의해 '금강선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됐다. 한일합방 이전까지 일본불교 포교소는 68개소에 달했다.

1876년 2월. 일명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어 조선이 개항정책을 취하기 시작한 19년 뒤, 승려의 도성출입이 재개되었다. 승려들은 도성출입 자체만으로도 불교탄압이 중지되었고, 사회적 지위 또한 향상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들의 도성출입을 도왔던 일본 승려에게 감사장까지 헌정할 정도였다. 불교가 그동안 받고 살았던 탄압과 소외의 결과였다. 아이러니다. 설사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불교에 침투하여 점령할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응은 불가항력이었다. 강화도조약 자체가 일본의 식민지적 침략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도도하게, 그리고 거세게 휘몰아치는 역사의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일본의 한국불교 침략은 강화도조약을 전후로 하여 이미 준비한 매뉴얼대로 점진적으로, 혹은 집요하게 진행되어갔다.

우리 본원사(本願寺)는 '종교는 곧 정치와 서로 상부상조하며 국운의 진전(進展)발양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었다. 명치(明治)정부가 유신(維新)의 대업을 완성한 뒤로부터 점차 중국 · 조선에 향하여 발전을 도모함에 따라, 우리 본원사도 북해도의 개척을 비롯하여 중국 · 조선의 개교(開敎)를 계획하였다.

1922년 대곡파 본원사와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조선개교50년지(朝鮮開教五十年誌)〉에 수록된 내용이다. 즉 1877년 일본정부는 본원사에 조선개교에 관한 일을 종용 의뢰하여 본원사에서는 부산에 별원(別院)을 설치했던 것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막부체제의 청산과 함께 천황제(天皇制)가 부활되었다. 왕정복고(王政復古)였다. 이것은 국가지상주의적 성격이 강한 일본불교의 전통이 왕법을 근본(王法爲本)으로 삼아 왕법과 불법(佛法)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왕법불법불리지론(王法佛法不離之論)'으로 대표되는 불교의 호국논리가 대두된 계기였다. 때문에 일본이 식민사업을 전개할 때 그 정신적 계몽은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몫이었다. 개항기 한국에 건너와 포교활동을 했던 일본 승려 카토오(加藤文教)가 포교활동의 경험 등을 정리하여 1900년에 간행한 〈한국개교론(韓國開教論)〉에 의하면 "일본과 동일한 불교국인 한국을 위해 포교한다는 것이 어찌 일본 불교도의 보은(報恩)적 의무가 아니겠는가. 정청군(征清軍)의 목적으로 보나 장래 일한(日韓)간의 관계로 보나, 이것은 최대의 급무이다"라고 했을 정도다. 요컨대 일본불교의 조선침략 역시 일본정부의 식민지 개척과 불교의 해외포교가 일체화되어 추진된 것이다. 이리하여 일본 불교의 각 종파는 조선의 개항 초기부터 조선의 불교를 전면적으로 장악하여 자신의 종파로서 국교화(國教化)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그들은 한국의 불교인들을 유인하고 포섭하기 위해, 더욱이 개종(改宗)까지 시키기 위해 일본 외무 당국의 원조와 협조를 받아가면서 좌담회 · 물질공여 · 교류 등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것은 기본이었고, 조선 불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면을 만드는 제면(製麵)기술이나 종이 만드는 법, 그리고 양잠 등을 가르쳐 물질적인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또한 승속(僧俗)을 불문하고 한국의 저명인사들에게 일본사찰을 알선하여 호감을 갖게 하고, 한국인 교사를 채용하는 학교를 만들어 청년을 계발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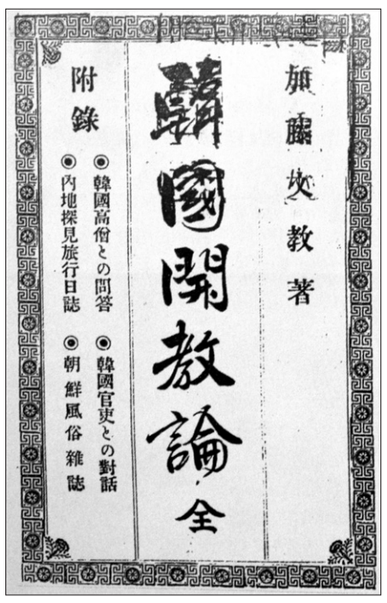
일본 현지 문물 견학시키며
한국불교 스님들을 회유
일본 외무성도 적극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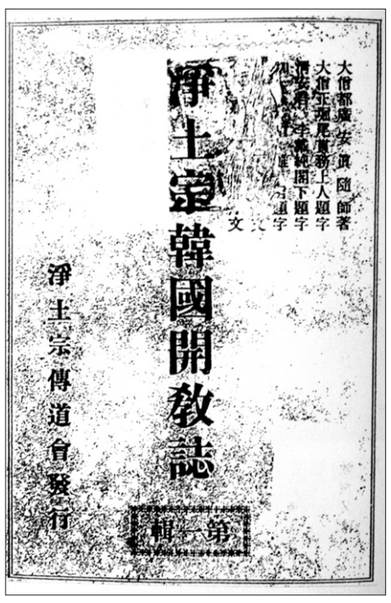
日 불교 포교소 전국에 설립
韓 원흥사 건립… 견제에 실패

실제로 합방(合邦) 전인 1907년에는 이능화(李能和) 등 30명을 데려다가 3개월 동안 일본의 각 관청 · 학교 · 공장 · 명소(名所) 등을 관람시켰으며, 1909년에는 홍월초(洪月初) · 김동선(金東宣) 등 60여 명을, 1917년에는 권상노(權相老) 외 8명의 본산 주지를 초청하여 일본의 문물을 소개하였다. 그때마다 일본정부는 적극적이었는데, 총독이 직접 장려금까지 내놓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개교총감 오오타니는 "처음에는 조선인으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조선인 교사 1인을 채용하고 생도로부터는 전혀 수업료를 받지 않으며 지필묵(紙筆墨)을 대주면서 재래의 학예만을 수업시키다가 차차 지리, 역사 등을 수업하고 마지막으로 종교윤리를 교육시킬 것"이라는 방침을 정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그들은 "생도는 10명 정도로 하고 관찰사나 지방관 등과 교섭하여 가급적 상류생활을 시키며 뛰어난 자는 발탁해야 한다."고 했는데 생도 수를 10명으로 제한한 것은 보편적인 교육이기보다는 그들을 추종하는 엘리트의 양성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종교윤리 교육 또한 한국인을 일본에 동화시키는 한국인 인재를 양성하자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일본불교 윤리를 주입하고자 한 것이었다. 예컨대 왕법위본 충군애국(王法爲本 忠君愛國)의 국가지상주의적 불교를 조선에 이식(移植)하는 것이었다.

문호개방 이후 끊임없이 한국으로 본격적인 침략행위를 감행한 일본 불교종파는 진종(眞宗) 대곡파 본원사와 일련종(日蓮宗) 등이 중심이 되었다. 일본 각 종파가 1878년부터 1910년 한일합방이전까지 전국 각지에 설치한 별원과 포교소, 출장소의 수는 68개소에 달했다.





일본 승려 카토오가 포교활동의 경험 등을 정리하여 1900년 간행한 〈한국개교론〉(사진 왼쪽)과 일본 정토종의 〈정토종한국개교지〉(사진 오른쪽).

오늘 일본이 강유거세(剛柔巨細)한 수단을 다하여 조선을 병탄하려는 계획을 착착 진행함에 하나도 소홀함이 없다. 정신을 빼앗기면 스스로 함닉(陷溺)하나니 어찌 비참하지 않으며,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항차 정부에 있는 어리석고 용렬한 인물과 사회의 몰지각한 무리가 저들의 술수에 빠져 스스로 동족을 멸하게 하나니 그 죄악이 하늘에 이른다.

1905년 일본의 본원사가 용산에 조선개교총감부(朝鮮開教總監部)를 설치하고 오오타니(大谷尊寶)를 총감으로 보낸 것에 대해 대한매일신보가 한국인의 각성을 촉구한 글이다. 기사는 이어서 '이토(伊藤博文) 통감이 정치상의 통감이라면, 오오타니 총감은 종교상의 총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원사가 한국인을 일본에 동화시키려는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이러한 지적과 비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승려의 도성출입 금지를 해제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한편 이와 같은 일본불교의 한국점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902년 1월 원흥사(元興寺)가 창건되었다. 즉 정토종의 확산을 중심으로 한 밀려오는 일본불교의 빈번한 활동을 견제하는 한편 한국불교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국가에서 불교를 관리하겠다는 의도였다. 정부는 동대문 밖의 별장이었던 영미정(潁眉亭)을 매입해서 원흥사라 하고 총섭(總攝)을 두게 하였다. 당시 관리자였던 권종석은 1902년 7월 고종의 명을 받아 사사관리서(寺社管理署)의 시행규칙인 '국내사찰현행세칙'을 제정하였다. 당시 원흥사에 설치된 대표적인 승직(僧職)은 도섭리(都攝理)와 내산섭리(內山攝理)였다. 이들의 소임은 각각 총무원장과 경성의 사찰을 총감독하는 위치였다. 원흥사는 이와 동시에 13도에는 각각 1개소의 으뜸 사찰 즉 중법산(中法山)을 두어 도내 사찰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사관리서가 궁내부(宮內府)에 속한 기관이어서 궁내부 관리가 나와 사무를 관장하여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혼란한 정치와 관리의 부패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당시 불교계의 승려들은 불교 통할기관인 원흥사가 존속하기를 바랐지만, 급기야는 관리서가 폐지되고 원흥사를 없애라는 칙령에 따라 일본 정토종 이노우에(井上玄眞)의 영향을 받아 세워진 불교연구회에 그 관리가 넘어가고 말았다. 이후 이회광 스님이 불교연구회 회장을 맡으면서 한국불교는 자주적 의지에서 멀어져 갔다.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나와 세상이 함께 행복해지는 지혜
손기원 박사의
지 혜 인
명 상 지 도 사
1급 · 2급 지도사 과정 모집
늘어나는 '지혜인 명상'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지혜인 명상 지도사' 양성 과정 오픈!
지혜인 명상은...
· 한국의 5천년 명상과 진리학습 전통 기반
한국인 명상법 + 서구의 장점 접목
우리 고유의 신명나는 소통, 힐링 프로그램
· 선생님 임직원 청소년 일반인 대상 운영 중
▶2급 : 3~4월 60시간 ▶1급 : 5~6월 80시간
교육 참관, 워크숍, 명상수련복, 자격증 수여
▶문의 : 02)766-9455 www.onwisdom.com
지혜경영연구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85 용비어천가 1340호

선현사 부설
제1기 용천불교대학
작법반 학인 모집
선현사 부설 용천불교대학에서
작법반을 수강하실 학인을 모집합니다.
◐ 강의내용 : 요잡바라, 천수바라, 나비춤 (3개월 과정)
◐ 개 강 일 : 2013년 2월 5일
◐ 교육시간 : 매주 月요일 오후 2시~5시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원 구비), 반명함판 사진 1매
◐ 수 강 료 : 3개월 30만원
◐ 연 락 처 : 043)211-4782. 011-9844-1800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선현사 의식 교육원
선 현 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654번지

제1기
한국불교 전통의식
(범음범패) 학인 모집
1 강의 내용
1) 기초반 : 3개월
– 종성 · 향수해례 · 사성례 · 천수경 · 행선축원 · 사시불공
– 요령 · 목탁 다루는 법
2) 중급반 : 9개월
– 49재 및 천도재 · 각종 시식 등
– 태징 · 북 등 사물 다루는 법
3) 고급반 : 6개월
– 바라(천수 · 사다라니 외)
– 작법(도량게 · 다게)
4) 연구반 : 위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함
2 개강일시 : 2013년 3월 4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 5시)
3 접수일자 : 수시 접수
4 모집인원 : 10명
5 회 비 : 월 10만원 / 3개월분 선납 / 교재비 3만원 별도
6 대 상 : 스님 · 포교사 및 불교의식에 관심이 있는 재가불자 등
7 연 락 처 :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원리 615-3
불지사 梵音佛教大學
★ 지도) 승범 · 원광 / H·P 010-9368-0209

명상과 상담 전문 지도자 배출

연중기획 마음산업

'신행 · 포교 地圖' 바꾼다

〈3〉 명상상담연구원

명상=상구보리, 상담=하화중생
3단계 과정… 스님 · 직장인 등 수강
2급부터 지도자… 전국지부 10개


명상상담연구원은 명상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됐다. 사진은 원장 인경 스님이 지도하는 2급자격 연수과정 2013년 첫수업 장면.

2월 2일 토요일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명상상담연구원(원장 · 인경)을 찾았다. 이날은 2급 자격 연수과정 첫수업이 있는 날로 서서하는 명상 지도를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 각각 상담자 내담자가 되어 호흡을 통해 명상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해 보고 소감을 노트에 적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처럼 명상상담연구원은 여타 다른 수행기관과는 다르게 명상상담가를 지도하고 배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재가자나 강원을 졸업한 스님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 2004년 개원해 3급 143명 2급 37명 1급 5명의 회원을 배출해내고 있다.

원장 인경 스님은 "명상으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으로 현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곳이 명상상담연구원이다. 명상이 상구보리에 해당한다면 하화중생은 상담에 해당할 수 있다. 세상사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대중들은 명상을 통해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등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명상과 상담을 통해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며 명상상담연구원 설립 취지를 설명한다.

이렇게 명상과 심리를 함께 교육해 명상상담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 바로 명상상담연구원이다.

총 3단계의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명상클리닉은 호흡과 염지관-리다명상-영상관법-자아초월간화선으로 나뉜다. 고집멸도 프로그램은 애니어그램 성격파악-심리도식-성격역동-명상상담 8회 모형 등을 기본으로 한다. 3급은 8개월, 2급은 1년, 1급은 1년 6개월의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급수가 올라갈수록 실습을 강화하고 심도 깊은 이론을 통해 전문가를 배출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2급 자격증 획득부터는 명상상담가로도 활동할 수 있고 지부 설립이 가능하다. 현재 명상상담연구원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경남 · 창원 경기도 평택 등에 10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지하철공사에 근무하는 이명환 씨는 (52) 2단계 과정에 들어선 수강생이다. 그는 지하철공사 직원 외에도 또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 바로 웃음치료사로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웃음치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씨는 "웃음치료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웃음을 주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 명상을 만나게 됐다. 명상을 배워 이를 웃음 치료에 적용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수업을 듣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한다.

이렇게 시작한 명상상담이 이 씨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한다. 바로 명상을 통해 알아차리고 깨우치는 법을 배운 것이다. 이 씨는 "사춘기 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왜 그랬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질책하고 혼냈을 것을 좀더 참고 돌아보는 힘이 생겼다. 직장 생활 역시도 마찬가지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하다보니 별의별 승객들을 다 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승객들을 좀 더 여유롭게 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한다. 이 씨는 퇴직 후에는 명상센터를 개소해 명상치료와 웃음치료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대중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고자 한다.

경남 산청에서 온 교사 김갑숙(47) 씨는 교사라는 직업에 좀 더 충실하기 위해 상담을 배우기 시작했다. 김 씨는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명상상담을 공부한 이후부터는 학생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졌다. 학생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들어주고 이를 학생의 성향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해결방법을 연구한다. 의외로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큰 위안을 얻음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명상상담연구원은 앞으로 명상상담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이를 학문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인경 스님은 "명상이 붐이라고 하지만 아직 전문가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좀더 강화된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학문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 전문지도자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02)2236-5306 정혜숙 기자

"명상상담 공부하면서 신도가 늘었어요"

2급 과정 수강생 성능 스님



보문사 성능 스님〈사진〉은 기초교리강좌와 청소년법회의 지도법사 소임을 맡으면서 큰 한계를 느꼈다.

선방에서 배운대로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를 현실에 적용해 보니 대중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명상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3급 과정을 거쳐 2급 단계에 접어들었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신도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만 했어요. 공감해주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명상상담을 배운 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들의 고민을 듣고 고통의 원인을 찾게 해주고 해결책을 유도해줄 수 있게 됐어요"

성능 스님에게 명상상담 과정을 공부한다는 것은 큰 힘이 되었다. 명상상담을 포교에 적용하다보니 절을 찾는 신도수도 늘었다.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들이 절에 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상담을 통해 신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다 보니 절에 오는 이유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제 상담으로 자기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말하는 신도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상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요"

스님은 명상상담과정을 공부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번에 동방불교대학원 대학교 명상치유학과에 입학해 자연치유학과 명상심리를 전공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학교 구청 등에서 명상상담을 본격적으로 강의하고자 한다.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명상을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주고 싶어요"

서구의 마음수행 현장

〈2〉 잭 콘필드 · 조셉 골드스타인의 통찰명상회(IMS) ㊦

미국서 가장 큰 위빠사나 센터… 1년전 예약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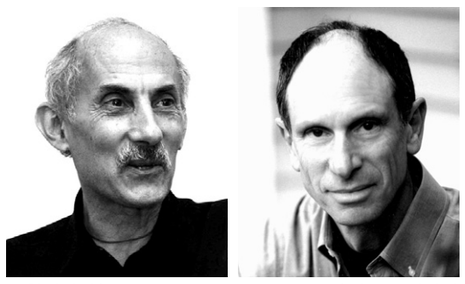
위빠사나의 성행과 IMS 설립

초기불교에서 깨달음의 방법으로 사용한 위빠사나(vipassana)는 시대에 따라 불교국가의 배불정책 등으로 명맥이 끊어지기도 했으나 근래에 들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미얀마, 스리랑카 등 불교국가에서는 승려나 일반 신도들이 기독교의 기도처럼 일상생활에서 위빠사나(vipassana) 명상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에서는 불교의 민중화 · 단순화를 시도해 수많은 대중들이 불교 명상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또 한번 현대와 서구문화에 맞게 변형시켜 미국 전역에 보급한 사람이 있다. 잭콘필드(Jack Kornfield)와 조셉 골드스타인(Joseph Goldstein)이다.

잭 콘필드와 조셉 골드스타인은 트룽파 린포체(Chogam Trungpa Rinpoche · 1939~1987)가 세운 정식 인가된 최초의 불교학교 '나로파(Naropa) 대학'에서 1974년 위빠사나 수업을 개설했다. 이때 수업은 학생들에게 큰 열풍을 일으켰고, 그해 여름 콜로라도 주 불더 시에서는 나로파 대학 강좌에 참석한 1800명의 학생들이 위빠사나 수행에 참여했다.

두 사람은 샤론 잘츠버그(Sharon Salzberg)와 1975년 미국 동부 메사추세츠 주 바르(Barre)시에 땅을 공동으로 구입하고 통찰명상회(Insight Meditation Society, IMS)를 설립해 위빠사나 명상 대중화를 이끌었다.


통찰명상회(Insight Meditation Society, IMS)의 공동설립자인 잭 콘필드(좌)와 조셉 골드스타인. 아이비리그 출신인 두 사람은 평화봉사단으로 태국을 방문하면서 수행과 명상에 빠져든다.

평화봉사단원으로 태국 방문
비구계 수지… 위빠사나 공부
명상센터 IMS, 미국전역에 지부둬

미국 전역에 지부를 갖고 있는 IMS는 연중무휴로 약 400~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행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는 결제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너무 몰려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IMS의 격월간지 〈알고 싶은 마음(Inquiring Mind)〉에 따르면 1995년 미국 내에서 100개의 숙박 수련회가 열렸으며 수련회 기간도 주말 1박 2일 수련서부터 84일 수련 등 다양하다. 또한 설립부터 1995년까지 위빠사나 명상회의 수련을 거쳐간 사람은 5만명 정도라 한다.

IMS는 원래 카톨릭 수도원이었다. 수도원이 폐쇄되고 난 뒤에 미얀마에 있는 명상 스승을 모시기 위해 이 수도원을 구입했다고 한다. 잭 콘필드와 조셉 골드스타인은 이곳에서 수행을 지도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미국사회에 자연스럽게 불교를 전하기 위해 불교용어를 쓰지 않고 강연과 저술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IMS에서는 마하시 사야도 스님의 수행법을 지도하고 있다. 사진은 IMS에서 마하시 사야도 스님(뒤에서 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한 샤론 잘츠버그(Sharon Salzberg)와 조셉 골드스타인, 잭 콘필드, 재클린 슈바르츠(Jacqueline Mandell-Schwartz)(왼쪽서부터)

평화봉사단 동료에서 위빠사나 보급하기까지

잭 콘필드(68)는 1967년 다트머스 대학에서 아시아 연구를 공부했다. 이후 평화봉사단에 가입해 태국의 공공보건서비스기관에서 일을 하다 태국의 고승인 아잔 차(Ajahn Chah) 스님을 만나 1970년 비구계를 받았다. 또한 미얀마의 마하시 사야도(Mahasi Sayadaw, 1904~1982) 스님으로부터 위빠사나 수행지도를 받았다. 사야도 스님은 1981년 당시 마얀마 내에 293개 수행센터를 설립해 60만 명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니 잭 콘필드가 만났을 당시에도 위빠사나의 열풍은 계속됐으리라 추측된다.

IMS 설립 후 콘필드는 캘리포니아 우드에이커의 영성명상센터(the Spirit Rock Meditation Center)를 공동설립했다. 임상심리학 박사이기도 한 그는 〈The Wise Hear〉 〈A Guide to the Universal Teachings of Buddhist Psychology〉 〈Teaching of the Buddha〉 〈A Path with Heart〉 〈After the Ecstasy, the Laundry〉 〈Living Dharma〉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뉴욕 출신인 조셉 골드 스타인(69)은 1965년 컬럼비아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그도 잭 콘필드와 같이 평화봉사단에 가입해 태국에서 활동하다 명상과 수행을 배우고 인도에서 7년여 간을 보냈다.

1960년 말부터 인도를 여행하던 서양인들에게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주던 재가 스승들이 있다. 아나가리카 문인드라 바루아 법사(Achariya Anagarika Munindra Barua, 1914~2003)다. 문인드라 법사 역시 마하시 스님으로부터 지도받은 뒤 마하시 센터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했다. 골드스타인은 문인드라 법사의 최초의 서양인 제자였다. 문인드라 법사는 수행자들에게 "인생을 살아가거나 수행을 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단순하고 편안하게(Be simple and easy) 대하라"를 강조했다.

IMS가 마하시 수행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문인드라 같은 스승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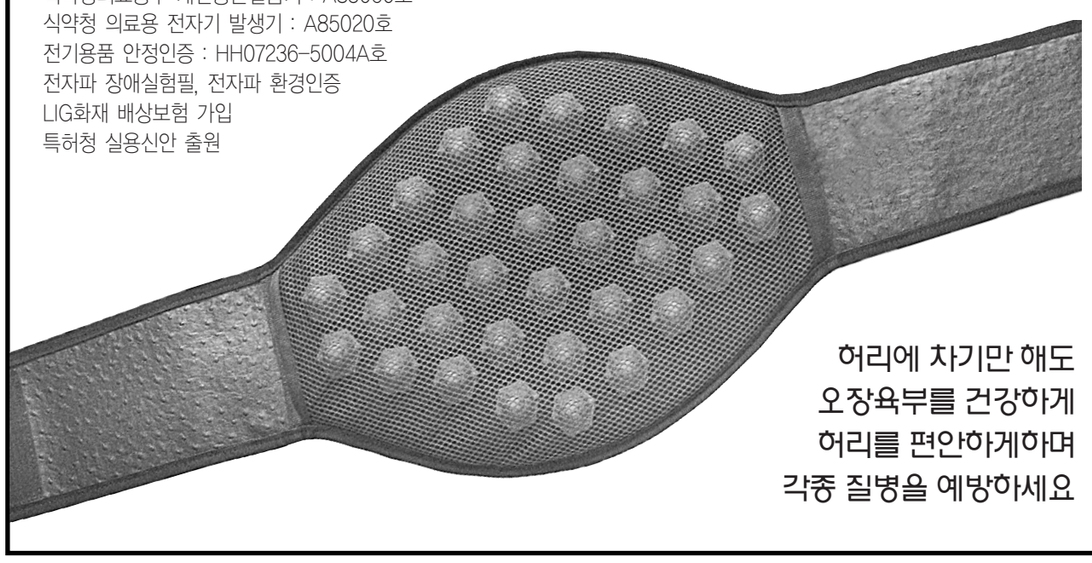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음심을 음심으로 제도하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7)

음녀(淫女)를 교화하다

부처님께서 바라내국에서 여름 안거를 하실 때였다. 묘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음심(淫心)이 많은 여인이었다.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던지라 부처님께서는 난타를 데리고 가끔 그녀의 집을 찾아 걸식했다. 하지만 음심이 많은 그 여인은 부처님을 공경하지 않고 난타에게만 관심을 가졌다. 난타를 보는 날이 점점 많아지자 그녀는 생각했다. "난타 비구가 나를 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무엇이든 다 공양할 텐데."

부처님은 그 마음을 읽으시고 난타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난타는 그녀의 집에 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부처님은 혼자 여인의 집이 있는 마을로 가서 3일 동안 금빛 광명을 놓으며 제천과 사람들을 제도하셨지만, 여인은 부처님께 관심이 없었다. 다음날 부처님께서 다시 난타를 데리고 나무 아래서 거닐고 계셨다. 여인은 난타 비구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달려와 난타에게 갖가지 공양물을 올리고 예배했다. 그러자 난타가 말했다.

"그대는 부처님께 먼저 예배하시오."

여인은 난타를 연모하는지라 난타가 이르는 대로 바로 부처님께 예배했다. 부처님께서는 신력으로 더 젊고 수려한 장부를 만들어 여인 앞에 세웠다.

"나는 천인으로, 부처님의 부름을 받고 내려왔소."

그러자 여인은 이번엔 장부에게 음심을 품기시작했다. 여인은 장부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말했다.

"장부시여, 지금 저의 이 집은 공덕천(功德天)과 같아서 재산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몸과 노비를 받들어 올리고 집안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만약 저의 원을 받아들여 주신다면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드릴 것입니다."며 장부를 유혹했다.

장부가 여인의 뜻을 받아들여 여인의 집에 들었다.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하루 낮 하룻밤이 지나는 동안 장부와 함께 있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웠다.

그러나 이틀째가 되자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사흘째가 되자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다. 잠에서 깬 장부는 여인을 끌어안고 떨어지지 않았다. 여인은 싫증이 나고 후회스러워 말했다.

"이제 장부가 싫증이 나서 보고 싶지 않으니 내 집에서 나가시오."

장부가 말했다.

"우리 선세의 법에는 한 번 여인과 정을 나누면 열이틀이 지나서야 비로소 쉬도록 되어 있소."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로워 말을 잇지 못했다. 장부는 여인을 품고 놓아주질 않았다. 나흘, 닷새….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여인은 몸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울면서 생각했다.

"정반왕의 아드님이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제한다 하던데, 어째서 나는 구해주시지 않으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한 뒤 한탄하고 괴로워하면서 자신을 책망했다.

"오늘부터 나는 죽기까지 색욕을 탐내지 않으리라. 차라리 호랑이나 사자 등 무서운 짐승과 한 방에 있을지언정, 이런 고통은 받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고 집을 나가려 했다. 그때 장부가 말했다.

"이 변덕쟁이 나쁜 여인아, 부모와 종친이 나를 집안 하나 거느리지 못하는 사내로 꾸짖을 것이니, 나는 이제 너와 함께 몸을 합쳐 일찌감치 죽는 편이 낫겠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삽화 · 강병호

"이 귀찮은 사람 같으니. 죽고 싶거든 당신이나 맘대로 하시오."

그러자 장부가 여인을 안은 채 칼로 제 목을 찌르니 피가 여인의 몸을 덮어 놓아주질 않았다. 여인이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발버둥을 쳤으나 이미 장부는 숨을 거두고 장부 시신은 여인의 몸에 꼭 붙어버렸다.

이틀이 지나자 시신에서 냄새가 나고 검어졌으며, 사흘째가 되자 퉁퉁 부어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나흘 만에 시신이 여인의 몸으로 무너져 내리니 여인은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레가 되었을 때, 모두 무너져 내리고 앙상한 뼈만 남아 여인의 몸을 붙들고 있었다. 여인은 괴로운 마음에 서원을 했다.

"여러 천신과 신선이시여, 정반왕의 아드님이시여, 저의 고통을 면하게 하시면 제가 가진 이 집과 값진 보배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때 부처님이 난타를 데리고 여인의 집으로 갔더니 그때서야 부처님을 알아보고 부끄러워하면서 몸에 붙은 뼈를 감추려 했다. 무명천으로 가리고 향으로 냄새를 감쌌으나 시신의 고약한 냄새는 어쩔 수 없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했다.

"여래의 공덕과 자비는 한량없다 들었습니다. 만약 이 고통을 여의게 해주신다면, 불법에 귀의하겠습니다."

곧 부처님은 신력으로 여인의 몸에서 냄새나는 뼈를 거두어주셨다. 여인은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여인을 위해 주원하니 여인이 주원을 듣고 기뻐할 때 여인은 수다원의 도를 얻었다. (〈관불삼매해경〉 7권에 나온다.)

〈경률이상 · 동국대역경원〉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공덕천(功德天)이란… 공덕천녀(功德天女)를 말하는 것으로, 중생에게 복덕을 주는 여신이란 뜻으로 본래는 바라문교의 신이었으나 불교에 도입됐다. 길상천녀(吉祥天女)라고 하며 아버지는 덕차가, 어머니는 귀자모, 비사문천의 누이동생 혹은 부인이라고도 한다. 그는 큰 큰 공덕을 성취하여 그 대공덕을 중생들에게 베풀어준다고 하여 어려운 재난이 있을 때 소재(消災)를 위한 기도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는 '공덕천도량(功德天道場)'의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북쪽 비사문천(毘沙門天)을 주처로 하며 미래에 성불하여 길상마니보생여래라고 이름한다. 그 형상은 일정하지 않으나 천의(天衣)를 걸치고 왼손에는 여의주를 받들며 오른손은 시원인(施願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많으며, 하엽좌 위에 앉아있다. 관자재보살의 화신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금강계 다섯 여래의 하나로 보생여래의 분신이라고 하는 설도 있다.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⑦



생명의 소중함을 늘 마음속에

새끼 잃은 말

일요일 아침,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말(馬) 주인이 애를 먹고 있다. 거의 매일 타던 말이 주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물 경기용 말이다.

주인이 아무리 쓰다듬고 애를 써도 말은 주인을 태워주지 않는다. 이유를 모르는 주인은 그저 답답할 뿐이다. 왜 그러는 걸까. 고민 끝에 주인은 외국인 동물 심리 치료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파견된 치료사는 말의 이곳저곳을 살핀다. 쓰다듬어 보고 끌어안아 보기도 한다. 치료사는 말과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치료사는 말이 지금 견디기 힘든 슬픔에 젖어 있다고 말한다.

말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새끼를 낳았고, 무슨 이유인지 새끼는 죽고 말았다. 어미 말은 지금 가슴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다.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인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사실을 알게 된

짐승도 새끼 잃고 슬퍼할 줄 알아
사람으로 났다고 함부로 살면 안돼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의 차이
마음 지니면 언젠가 그 마음 쓰게 돼

주인은 미안한 마음뿐이다. 치료사가 말의 이곳저곳에 난 상처를 쓰다듬으며 말을 위로하고 있다. 상처는 새끼가 죽던 날 좁은 마구간을 몸부림치며 드나들 때 부딪힌 상처일 것이며, 기력이 모두 소진돼 걸을 수 없는 것이라고 치료사가 말한다.

치료사의 말을 들은 말 주인이 눈물을 훔친다. 치료사는 말이 이해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한다. 말(馬)에게도 마음이 있는 것이다. 주인은 다시 한 번 놀란다. 그리고 주인은 말을 안아준다. 한참동안 말의 잔등을 쓰다듬고 있을 때 말이 주인에게 등을 내밀었다. 이번엔 주인이 말에 오르지 못한다. 주인은 미안한 마음에 말을 탈 수가 없다. 주저하는 주인에게 말은 계속 등을 내민다. 망설이던 주인이 말에 조심스럽게 오른다. 말이 서서히 걷기 시작한다.

어찌 사람인 우리가 제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음이다.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들을 그들도 모두 알고 느끼고 있었다.

크고 작은 이유로 살인이 빈번해지고 있는 오늘, 어찌 이런 광경을 보고도 생명의 소중함을 가볍게 할 것인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사람뿐만이 아님이고, 자신을 생각해주는 이와 주고받아야 하는 마음 또한 인간만이 가진 마음이 아님을 말해주는 말과 말 주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함부로 살아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말하는 그들도 우리 못지않음인데 어찌 사람 몸이라고 우쭐댈 것인가.

오늘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으로 텔레비전 속의 말에게 말했다.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하루빨리 슬픔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모든 생명이 서로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낄 때 세상은 한 층 더 아름답고 평안하리라. 모든 생명은 말로 다 할 수 없음이다. 사랑하고 사랑하자. 관세음보살.

광명진언을 외며

연꽃모임의 야외 법회가 있던 날이었다. 법회에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에 들렀다. 휴게소에는 각종 차들로 붐볐다.

그 중에 닭을 가득 실은 트럭이 눈에 뜨였다. 칸칸이 실린 수많은 닭들의 눈빛을 보았다. 서로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고 꼬꼬 소리를 내고 있었다.

죽으러 가는 길인 것도 모르고 있는 닭들을 보면서, 사람이란 동물은 이렇게 산목숨 앞에 한 번도 미안해하지 않고 단지 '먹을 것'으로만 생각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미안한 일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광명진언을 외웠다.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 그래도 다음 생은 적어도 닭이 아닌 인간으로 복된 삶을 만나라고. 저렇게 많은 닭들을 죽여야 하는 그 알궂은 운명을 가진 것이 사람이고 보면 사람 몸 받은 것이 마냥 좋아만 할 일도 아니요, 함부로 살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업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으나, 그것을 아무런 생각이 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어찌 할 수 없음'의 안타까움에 대해 잠시라도 생각해 본다면 결과는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들 삶의 과정이 좀 더 불법(佛法)에 가까워지리라 생각한다.

그런다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겠지만,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의 차이는 '자비'와 '무지'라는 큰 차이를 낳게 된다. 죄를 짓더라도 알고 짓게 되면 '자비'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고, 자비에 대한 생각을 하다보면 그 마음이 언젠가는 다른 곳에 쓰이게 될 것이다.

죄가 되는 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혹에서 깨지 못함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점점 멀어지는 일이 될 것 이다.

오늘도 내 몸 지키기 위해 먹는 다른 생명들에 대해 한번 쯤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불법에 귀의한 사람이라면 생명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함이 옳을 것 같다. 늘 생각한다면 생각하는 만큼 안타까운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부산 연꽃모임회장

즐거운 병영 생활 마음수련 지침서!

어떻게 2년을 지내는 것이 현명할까?
나를 억압하는 시간이 될지,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 될지 그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군인과 함께하는 청춘 동행』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여 즐거운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 입영통지서를 받고 불안하고 초조한 청춘
- 군 생활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지는 장병
- 군 생활 2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장병
- 장병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싶은 가족, 친구, 연인

군법당에 『군인과 함께하는 청춘 동행』을 보냅시다.
군법당은 모두 143개 입니다.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1법당 300권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립니다.

고명석 글 | 176쪽 | 9,000원 | 사륙판(125×187mm)

민족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세상 끝에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었다.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
세상의 끝 히말라야에서 날아온 스님의 편지.
책장을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온전한 삶의 지혜가 답답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기막히게 아름다운 아침의 꽃이라도
해가지면 시드나니,
뭇리 사람들이여,
당신의 육신에 너무 많은 희망을 걸지 말라.

The Hundred
Verses of Advice

파담빠 상게 · 딜고 켄체 린포체 지음, 고수연 옮김
256쪽 | 13,000원 | 사륙판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마음관념의 틀을 깨고 싶습니다

문) 일체가 고정됨이 없다는 걸 이론적으로 알면서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주인공이라는 것도 관념화가 돼 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관념의 틀을 깰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만약에 박카스 병을 본다 하더라도 박카스 병이라고 관념을 두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신호등 불빛을 갖다가 저게 그냥 빨갛다 파랗다 이렇게 볼 뿐이고 그렇지, 파랗다 빨갛다 이런 관념을 두지 마시라 이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물질적인 문제라는 거는 항상 변질되고 부서지고 만날 없어지는 거지 어디 그게 항상 있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있다가 없다가, 없는 것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요, 그대로 그냥 여여하다.' 이 소리가 아주 그대로 그냥 묘법이지요.

그런데 이 관념을 부숴 버리질 못합니다, 모두. 그냥 닥치면 닥치는 대로 거기에 그냥 딱 뭉쳐 버리고 딱 뭉쳐 버리고, 딱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허공같이 쓰질 못하고. 아, 자꾸자꾸 돌아가면서 허공같이 돌아가는데 글쎄 왜 거기다가 자꾸 걸립니까. 그게 바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도 그런 말을 했잖습니까. "뜬구름과 같으니라." 모든 걸 그렇게, "허망한 거지만 허망한 게 아니니라. 허망한 게 아니면서도 허망한 거니라. 그러니 뻘건 거 흰 거, 무슨 푸른 거 이런 거를 고정관념으로 두지 말고 그냥 허공과 같이 봐라." 이 소리가 바로 그 소리에요. 그런데 그걸 납득을 못하면 "왜 이건 박카스 병인데 컵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박카스 병이라고 그래서 박카스인 줄 알지 이 컵이라 그러면 박카스를 압니까?" 이러거든요. 그러나 이 박카스 병은 우리가 볼 때 박카스 병이고 컵이지만, 내가 볼 때는 박카스 병도 아니고 컵도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나툼이기 때문에 허공과 같고, 마음의 허공이다. 나툼이기 때문에 바로 '무(無)'라고 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그것을 납득을 못하고 자꾸 이 허공에 걸리고,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린단 말입니다. 이 주인공이라는 것도 어느 달까진 이게 관념 속에서 요렇게 뭉쳐 놓고 전부 여기다 내버렸으면 이것까지도 내버릴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마음이 허공이기 때문이죠. 나툼이고. 마음이 나툼이고 허공이고. 아, 생명의 실상은 원소 자체인데 원소 자체의 문제가 그냥 거기에서 능력으로서 흐르기만 하고 돌아가는데 그걸 어떤 거를 집어서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허공과 같다고 하고 나툼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 밖에는 없잖습니까.

나툼이기 때문에 허공과 같다. 나툼이기 때문에 고정된 관념으로써 '이건 박카스 병이지.' 요렇게 관념을 두지 마라 이겁니다. 박카스 병이면 박카스 병이고, 이것도 지나가면 고만이에요. 지나가면 고만이지 이거를 또 그냥 죽도록 생각할 게 없다 이 소립니다. 우리 살아나가는 게 오늘 생각은 안 하고 어저께 생각만 그냥 죽도록 생각할 겁니까. 그러니깐 사람이라는 게 이 고를 면치 못한다는 것도 있지마는 육도윤회에 걸려서, 항상 걸려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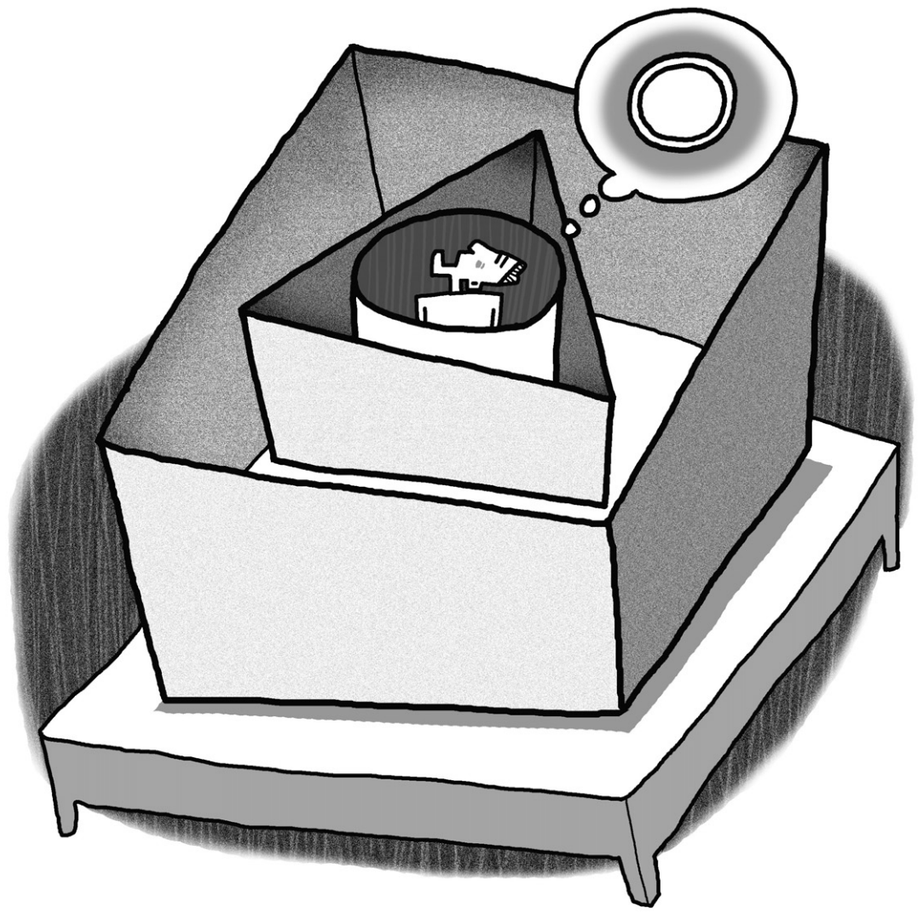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대인은 어저께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도 그거를 걱정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자기대로 일단 그렇게 했으면 그냥 내버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살아 있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버리질 못하고 꼭 쥐고 있으면 그 관념 속에서 그건 그냥, 이렇게 좀 지혜 있게 탁 넓혀서 다시 돌아오게끔 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둥바둥하던 것도 놔 버려라. 놓으면 살아요. 탁 놔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놔 버리는 힘이, 그것이 허공과 같은 뿌리 없는 기둥이 그게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그놈의 걸 그냥 탁 내 버리면 그 어마어마한 그 허공의 기둥이 그냥 그냥 돌아가고 빛이 그냥 활활 비치는데 아, 이놈의 거는 그냥 꽉 붙잡고 있으니 이게 어디까지나 마음의 고정된 관념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고정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습이 어느 땐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고정된 관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천이 문제다 이겁니다.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실천이 문제다 이겁니다.

절에 가서 법문도 열심히 듣는데…

문) 불법을 공부하고자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법문도 열심히 듣는데도 실제적으로는 체험도 한 번 못해 보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답) 여러분이 수차적으로 그렇게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듣기만 하고 겉으로 사량적으로 감응만 돼서 다녀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가 듣고만 그대로 다니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보람이 없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하면 뭘 합니까. 여러분도 사회에서 살면서 일한답시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차비만 버리고 다 버리고선 그냥, 돈도 벌지 못하고 그냥 허탕 친다면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냐고요. 그와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항상 새겨서 굴려 놓고, 감사하게 놓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모든 하나하나 움죽거리는 것이 다 나와 더불어 상대와 나와 둘이 아니게 항상 그렇게, 주인공에서 모든 일체를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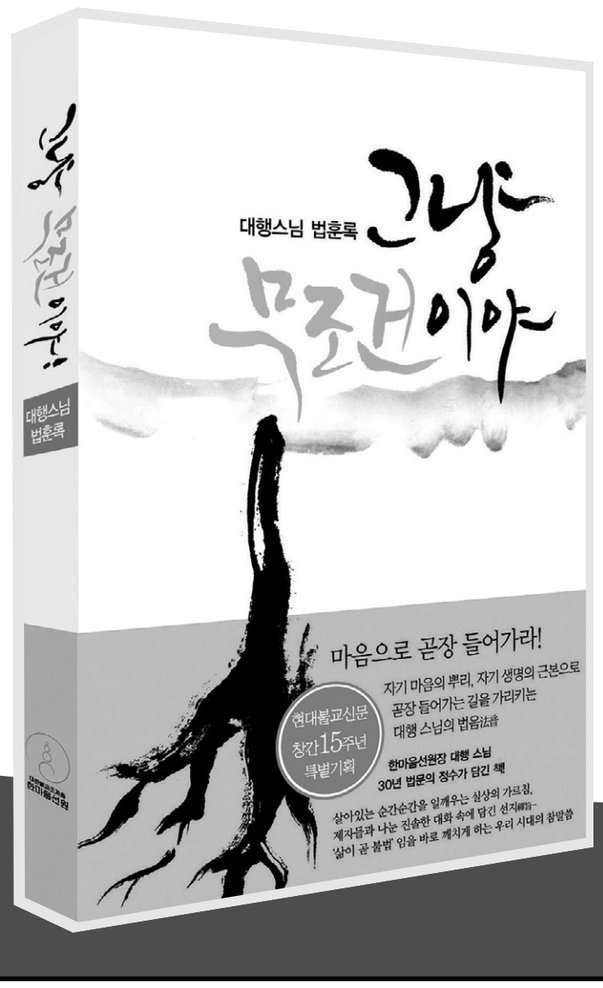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다니면서 얘기만 듣고 '아, 그러려니.' 하고 내가 부딪쳐 보지 않고 내가 아파 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거 느끼지 못해요. 남이 저렇게 아프다 하면은 '아, 그거 그렇게 아프려니.' 이렇게 하지, 자기가 경험해 보는 것만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실감을 해야지, 자기가.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가정에 또 혼란도 오기도 하고, 가난도 들기도 하고 우환도 들기도 하고, 병도 들기도 하고 파산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일도 되는 노릇이 없이 안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예요. 가지각색으로 지금 사람이 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오는 것을 내가 항상 주처에다 맡겨 놔라 이겁니다. 모든 것은 자기 청수에서 하는 것이지, 청수에서 대뇌를 속달로 오관을 통해서 모든 거 하는 거지, 나는 물건이에요, 물건. 청수에서 이것을 쓰기 위해서 물건이 나온 거예요. 이 물건은 부서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청수라는 그 자체의 불성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본래 죽지 않길 때문에 산다 죽는다는 언어가 붙질 않아요. 그걸 불성이라고 그럽니다. 자성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자성과 불성과 둘이냐.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와 저 지구와 둘인가요? 둘이 아니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다가오는 모든 것을 항상 주처에다 맡겨놔라

☞ 29면에서 계속

죠? 지구 속에 더불어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도 집이요, 지구도 집이라 이거야. 그렇다면 모든 걸 감사하게 놓고 믿어야 됩니다. 첫째 믿고, 두 번째 믿었으면 거기다가 맡겨라. 맡겨놔라.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놔라. 안된 일이 생기면 바로 안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일이니까 거기에다가 맡겨 놔라. 그리고 또 믿었으면 물러서지 말아라. 의정이 나면 의정이 나는 대로 거기다 놔라. 놓고 또 의정이 나면 또 놔라. 의정이 났을 때 또 딴 의정이 생기걸랑 먼저 쥐었던 거는 놔라. 모든 걸 놓고 돌아간다. 모든 걸 놓고 돌아갈 때 보림이 돼서 완전히 내가 탄생이 됐을 때는, 그때는 놓고 또 쥐고 그런 게 없어요. 체험만 하고 돌아가면서 또 보림을 하는 거죠.

처음에 놓는 보림을 하면은 몽땅 차츰차츰 다 놔지고 다시 또 보림을 할 때는 체험하고 보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둘이 아니게끔, 두 자리가 아니게끔, 두 말이 아니게끔, 두 생명이 아니게끔, 두 체가 아니게끔 이렇게, 두 아픔이 아니게끔. 슬프고 아주 기쁘고 이런 것이 둘이 아니게끔. 이런 것을 한데 합친 한 방울의 물처럼, 한 방울의 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천차만별로 하고많은 게 이 물이라면, 그 피라면 바로 그것이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들었으면 한번 새겨서 이 머리로써 이해가 됐으면 딱 청수로 놔 버려야 합니다. 주인공에다 놔 버리세요. 그것도 믿음직하게 믿으니까 놓는 거여야지 믿지도 않고 그냥 '에이, 될 대로 돼라.' 그러고 놓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놓는 거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앞으로 좀더 발랄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괜히 차비만 들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이겁니다.

선 · 악의 인연에 대해서

문) 살다 보면 선한 인연도 만나고 악한 인연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인연은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요?

답)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시오. 공부를 하시오. 바깥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찾으시오. 바로 안에서 밝힌다면 무엇이 부족하리까." 하고 말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의 인연과 선의 인연, 이런 것도 붙지 않으련만 여러분이 항상 바깥으로 찾고 바깥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 등등이 모두가 여러분이 해 놓고 받는 것이지, 누구가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 차원에서 고 차원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악의 인연과 선의 인연을 다 놓고 맡기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리를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런 것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구! 우리 자식은 이렇게 이런 원수덩어리가 태어나 가지고…." 이러거든요. 원수덩어리는 원수덩어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디에서 인연이 돼서 이렇게 왔는지 그걸 모르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이게 거짓으로 알진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진실된 이 생활 속에서 지금 허영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그냥 살지만 그러한 일이 허다합니다. 어떤 집에서 강아지를 하나 얻어다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참 착했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언제나 밥을 줘도 그 물에다 헝덩그르르하게 그냥 뜨물처럼 주지를 않고 오밀조밀하게 해서 잘 먹이고 이러니까 강아지가 커서 개가 돼도 참 그 은혜를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로 따진다면은 '엄마' 소리는 못해도 그 엄마라고 항상 속으로다가 생각을 했던 거죠.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큰 나무 덩이를, 장작을 패다가 고만 장작개비가 가서는 그 머리를 쳐서 그냥 즉사를 했단 말입니다, 개가. 즉사를 하니까는 애통지통 하는데 이것을 모두 동네에서 잡아먹겠다고 하는 거를 내 집에서 키운 거 절대로 남한테 잡아먹히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고 뒷동산에다가 묻었습니다. 그걸 잘 묻어 주고선 "아이구! 우리가 너를 죽였구나." 하곤 그냥 항상 께름칙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그라지다 보니까 인제 이태가 걸렸답니다.

그랬는데 그 은혜로 인해서 내 몸을 이렇게 벗겨 주고 무명을 벗겨 주고, 그 인정으로 인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인정으로 인하고 그 자비로 인해서 내가 이 옷을 벗게 됐노라고 하면서 꿈에 또 나타나더랍니다. 그러고 또 어느 날 꿈을 꾸니깐 그 개가 탁 나타나더니 자꾸 멍멍 짖으면서 이 남편이나 부인이나 바지 자락을 쥐고선 늘어지고는 놓질 않더랍니다. 그런데 부인의 꿈에는 와서 손가락을 물더랍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것처럼 "아휴! 너 어디 갔다 왔니?" 하고선 이럭하니깐 이 손가락을 물더랍니다. 그게 태몽이 돼 가지고 어린앨 낳았는데 아주 장골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효자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항상 마음을 인의롭게 쓰고 착하게 쓰고 항상 내 몸을 바로 그 몸으로서의 그 사람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항상 인내가 있고 자비가 있고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악한 인연을 짓지 않고 선한 인연도, 모든 것을 맡겨 놓고서 살아나가는 반면에 스스로서 언제나 질서와 계율을 지키면서, 스스로서 지혜를 넓혀 가면서 그러한 악의 인연이 아니라 아름다운 선의 인연으로서 주고받는 불빛처럼 항상 밝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뭐 하나도 나답지 않게 보지 마시고, 또 아무리 악한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마음속으로 탄압하고 미워하지 말고, '아하, 이것도 바로 내 인연에 따라서 내 탓이지, 누구의 탓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꾹 눌러서 거기에 맡겨 놓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살던 습의 종문서를 모두 태워 버리는 길입니다.

영탑과 납골당의 차이

문) 큰스님의 뜻에 따라 영탑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오랜 세월동안 관습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장묘제도가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게 되는 커다란 의식전환과 함께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그 화장의 타당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 납골당에 모시는 경우와 영탑에 모시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우리가 예전에 큰 사찰에서 스님네들이 열반하시면은 꼭 화장을 했습니다. 다비식을 했죠. 그것은 왜냐하면은 살아서도 공해서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집착을 하고 만약에 땅에다 묻는다면, 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죽는다면 삼혼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집에 하나 있고 하나는 돌아다니고 하나는 산소에 갑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사람이 사는 데도 그 영령들이 이렇게 가면은 이게 먹는다 입는다 산다 애착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애착에 잠겨서 영 움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영령들이 그래서 자기 갈 길을 가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깐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고생하는 거와 고생이라고 하고 고생하는 거와 영령들이 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와 둘이 아니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떡하든지 더 살 양으로 무슨 개구리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이렇게 사는 데에 접하게 되죠. 모르니깐요. 눈이 잘 보지 못하고 귀가 잘 뜨이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해서 무의 법 유의 법을 동시에 둘 아니게 알면은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보니깐 그냥 집착을 했던 그 뜻으로만 알고 들어가게 되면은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짐승으로 살면서 또 그 습에 잠겨서 사람으로 살던 그거를 잊어버리고 짐승으로 습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는 짐승이 사람으로 되기가 참 어려운건데 그렇게 산소에 매달리면 아니 된다 이겁니다.

납골당이라고 하는 데에 이렇게 모셔 놓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탑에 모시는 거와 뭐가 다르냐. 이거는 이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공부 안 하는 사람하고 또 탑도 다르단 말입니다. 이 탑에 들어가는 영령들은 그냥 자유스럽게 어떡하든지 '내 공부할 수 있는 거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거기 모여서 공부를 하고 또 전부 자유스럽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나가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저거 하시면 또 같이 모이고 또 자불끼리 모이면은 자불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이러는 장소란 말입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의 탑들을 모셔 놓은 데는. 그러나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예 있다가 그냥 탑으로 모신다 하더라도 그건 사찰에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몰려가서 염불소리 듣고 그러고선 하는 거죠. 모두 그렇죠.

이게 다른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것이 영원히 세세생생을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산다. 이 마음공부 하면서 탑에 모시게 되면 항상 마음공부 하는 분들도 이렇게 둘로, 영령과 둘로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밥을 먹어도 그 부모와 같이 먹는 거와 같단 얘기죠. 그 뭐든지 같이 하니까 함이 없이 하는 거다. 함이 없이 하되 부모가 자식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지 자식이 안되라고 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서린 마음이 한마음으로, 공심으로 한다. 공심으로 산다. 그래서 공생이면서, 공생이다 하는 건 종자가 같다는 얘기죠. 이게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으로서 산다. 이 모두가 이렇게 탑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때로는 탑에 이렇게 모시려고 한다면 영령이 이런 공부를 안 했어도 본래에 아주 착하신 분, 그런 분들은 그냥 활활 벗고 떠나세요. 떠나셔도 거기에 근거지가 있으니깐 항상 이렇게 무슨 공부한다거나 이런다면은 같이들 모이죠. 이렇게 하는 도리다, 이런 도량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납골당, 이렇게 뭘 담아 놓고 이러는 것도 이게 이 마음공부에서 벌써 먹는 거 입는 거, 우리가 모습이 공했다는 걸 알고 이렇게 모두 공부를 하는 분들은 그냥 다 이렇게 벗어 버릴 수 있으나 그런 게 없이 그냥 거기에 있으면 영령들이 때에 따라는 집으로 들고, 이걸 말로 어떻게 하리까. 쪼끔만 잘못해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데 이 탑에 모시는 조상님들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문제죠. 그래서 탑에 모셔 놓고 거기에 꽃 한 송이를 들고 가서 놓고 참 이 공부의 도리를 같이 한자리에서 합시다 하고선 이렇게 염원하고선 오시면은 그렇게 좋아하시고들 그렇게 좋지요. 어느 거든지 다 종자가 있습니다. 종자가 천차만별이지만 그 종자가 다 있어서 끼리끼리들 모두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금강과 같다 이런 겁니다.

> 대인은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걱정 안 합니다.
> 자기가 자기대로 일단 그렇게 했으면
> 내버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 그러니까 바둥바둥하던 것도 놔버려라.
> 놓으면 살아요.
> 탁 놔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사찰화재보험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불교수행 건강 상담
숨결소리 카운슬링
절수행 700만배, 염불 1억번, 금강경 11만번
참선, 위빠사나, 티벳 밀교 요가수행한 직관 에너지로
핵심을 꿰뚫어 도와 드리겠습니다.
절, 염불, 독경, 주력, 노래, 등산, 수영, 사우나 한숨쉴 때
어깨가슴으로 들숨쉬는 역호흡은 병불행의 원인
단전에 화두, 배일어남사라짐, 코들숨날숨 수승
의식적으로 하면 상기될 확률 99%
불행한 어둔맘 많으면 자신의 에고가 수행 질투한다.
병의 원인, 맘 깨닫지 못하면 100% 재발
상기병, 냉병, 홧병,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병명 없고 의사도 모르는 병, 해독다이어트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조상타령, 귀신타령,
팔자타령, 돈타령, 절대 하지 않음
◉ 장 소 : 울산시 언양읍 남부리 81-1
KTX 울산역 3분, 서울산 IC 3분,
언양버스터미널 1분
홈페이지 : www.법왕정사.net
울산 언양법당 : 052)254-7768

불자 세상보기

인사청문회법, 취지를 살려라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요즘 대다수 국민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수긍하기 어려운 인사스타일과 그가 취한 후속조치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의 중도사퇴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무산과 관련, 박근혜 당선인이 인사청문회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대목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지난 2000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이 주도하여 만든 법안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벌써부터 인사청문회의 부작용과 비효율성을 거론하면서 마치 인사청문회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일부 언론의 지나친 취재경쟁과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의 마구잡이식 보도로 인해 공직후보자 및 그 가족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와 이를 목격한 박근혜 당선인의 인간적 고뇌를 짐작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른바 신상털기와 같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검증방법조차도 넓은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정치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사청문회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사회의 도덕 윤리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회교육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듭 말하지만 최근 박근혜 당선인이 여당인 새누리당에 요청한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은 재고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법의 취지가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그것의 불편함을 이유로 대통령 당선인이 현행법의 개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이는 통치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정치적 압력으로 비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번 인사실패도 따지고 보면 박근혜 당선인이 주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3년 전에 이미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공직 후보 사전검증 질문지' 만 받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질문지에는 가족관계, 병역의무 이행, 전과 및 징계, 재산형성, 납세, 학력 및 경력, 연구윤리(논문), 직무윤리, 사생활 등 9개 항목에 걸쳐 총 200개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공직후보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들이 예컨대, '미성년 또는 무소득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세금 감면을 위해 등기, 잔금, 이사를 미뤘던 사실이 있습니까?' 와 같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있는 그대로 답변하도록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초적인 인사검증은 충분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다.

인사검증은 사회윤리 발전 기여
공직자 스스로도 청렴 노력
공정한 인사 시스템 강구돼야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인사절차마저 무슨 이유에서인지 생략하거나 거부해 놓고 이제 와서 인사청문회법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평소의 정치인 박근혜 이미지와도 맞지 않는다.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에게 법이야말로 국민과 한 가장 큰 약속이라는 점을 새삼스럽게 상기시키고 싶지는 않다.

법은 필요할 때마다 바꾸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제정할 때의 입법취지를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려고 노력할 때 그 의미가 더욱 빛나는 것이 아닐까?

우리 1천만 불자들은 대통령 취임식도 하기 전에 인사문제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된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적 상심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에게 찬성표를 던졌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를 중심으로 국민대통합과 국가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해야 할 일은 조금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해당 법률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인사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필요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국민들은 처음부터 행정편의주의를 앞세우는 당당하지 못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봄이 오는 소식



입춘, 멀리 있는 봄

홍사성

앙상한 나무 가지 끝
생바람 지나가는 풍경 차갑다
벌레 한 마리 울지 않는 침묵의 시간
물소리마저 오그라들어
얼음장 밑 숨죽인
겨울 적막 깊다
참고 더 기다리라는 듯

햇살 쏟아지는 한낮
지붕 위 헌 눈 녹는 소리 가볍다
추운 들녘 헛기침하며 건너오는 당신
반가워 문열어보는데
새봄 아직 먼 곳에 있다고
처녀들 옷깃 여민다
잠시 더 애태우라는 듯

홍사성 시인은…강원도 강릉 출생. 2007년 〈시와 시학〉으로 등단했다. 시집 〈내년에 사는 법〉과 저서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등 다수가 있다. 현재 〈불교평론〉 편집인과 〈유심〉주간으로 활동 중이다.

社說

우리는선우, 청년포교 새 모델 되길

1991년 창립해 20여년간 불교계 대표적인 재가신행단체로 발전한 (사)우리는선우가 새해들어 청년불교 특히 군포교에 팔을 걷어 부쳐 교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말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의 포교 신념이 한 몫을 톡톡히 한 것으로 보인다.

조 이사장은 "기존 중장년층이 주축이 됐던 우리는선우의 포교 활동범위를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우리는 선우는 올 한해 군장병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한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청년불자들을 위해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거나 준비중이다.

우선 1공병여단 법왕사서 '88만원 세대를 위한 땡큐 힐링법회' 를 매주 일요일 개최하고 지식 · 재능기부와 함께 강의, 공연을 한다. 또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도 모집한다. 자원봉사자는 법회에 참석하는 군장병 불자들을 위해 간식을 만들고, 법당과 도량 장엄 등에 참여한다. 특히 재능기부자는 법문,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한 나눔 봉사를 펼칠 인재들이다. 강의콘텐츠를 기획하고 교육연구, 강의나 법회에 필요한 빔프로제트 등 기자재 를 기부해줄 사람도 찾는다. 후원을 받아 법당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군장병에 대한 지원도 보다 체계화할 계획이다.

특히 영상 · 스크린을 통해 △수행, 깨어있음의 세계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법 △군장병들의 미래진로 설계 등 현실에 맞는 강의들을 포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는선우는 청년붓다운동을 통해 청년불자모임에 강사를 파견하는 인재불사도 실시한다.

이렇게 청년 불자 포교에 적극 나선 우리는선우에 우선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미래불교, 지성불교, 생활불교' 라는 창립 목적처럼 청년 불자들을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 나갈 지성인으로 키우길 당부한다.

미국 내 한국 문화재 환수 기대한다

미주 한국불교문화원이 2월 3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파인프라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이 단체는 미국 내 한국 문화재 환수와 불교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정광 회장도 자신의 취임사에서 "미주 동포들과 불자들이 앞장서 빼앗긴 우리 문화재를 제자리로 돌려 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엇보다 김 회장은 메릴랜드의 국가기록보존소에서 약탈문화재에 관한 중요한 문서들을 찾아내고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된 부처님 진신사리와 사리구의 존재를 확인, 이의 반환을 요구한 전문가라는 점에서 더욱 신뢰를 주고 있다.

사실 미국 내 한국문화재는 42,293점에 달한다. 이는 6만여 점이 있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에 달한다. 실제 하버드대 아서 새클리 뮤지엄에 있는 안평대군의 진품 글씨와 지장경 금니 사경들은 미군정 시기 외교관으로 근무 했던 그레고리 헨더슨이 가져가 1992년 기증한 것으로 그 경로가 매우 불투명하다.

LA박물관에 있는 문정왕후가 사용한 왕실 어보도 종묘에 봉안돼 있었으나 한국전쟁 당시 불법으로 미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는 자신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간 한국 내에서도 몇몇 문화재 환수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됐고, 일부는 소정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은 장기적으로 지속돼지 못하고 시들해졌다.

이런 와중에 미국 내 한국문화재를 환수하겠다는 전문 단체가 불교계를 중심으로 설립됐다니 반가울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얼을 다시 찾아오는 일은 국내외, 승속을 떠나 추진해야 한다. 이들 단체의 행보가 문화재 환수 사업에 새로운 활력으로 다가오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효도선물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신제품
허리 · 팔 · 다리 · 무릎 · 어깨 등... 통증이 있으시분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원활 작용한다.
■ 문질러 발라 주세요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
120㎖ ×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치아통증 이제 끝! 신비의 견운모 치약
지긋지긋한 치아로부터 해방!
견운모치약이 이렇게 좋은줄 이제 알았습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들 때 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견운모 치약은 고품질의 희귀원소가 함유(원적외선 92.5%)된 광물질로 구강 내 살균 소독 효과는 물론 세균증식을 억제하여 잇몸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 및 치유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 효 능 효 과 ⊙
▶ 잇몸질환 예방 ▶ 구취 제거
▶ 치주질환 예방 ▶ 시린 이 개선
▶ 충치예방 ▶ 미백효과
▶ 치태제거
200g × 2개 가격 2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화제의 신간 풍수, 절반의 증거
'도대체, 풍수가 있을까 없을까?'
'과연 조상님 묏자리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는 신간이 나왔다.
저자는 '증거證據'임을 강조한다. 그저 뜬구름 잡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자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상님 묏자리가 후손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풍수의 주장은 과연 온통 미신잡술일 뿐인가? 그렇다면 그 오랜 역사는 결국 미신에 집착한 역사인가?
그건 아니더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풍수가 있는가 없는가?' 10년간을 이거 하나에 몰두한 결과물이란다. 저자는 그 결론을 다음 세 가지 명제로 정리한다. 첫째, 풍수 있긴 있다. 둘째, 풍수의 핵심은 (氣가 아니고) 靈(혼령 지령)이다. 셋째, 풍수는 과학이 아니다.
한편 저자는 이른바 '명당 발복 사상'은 적극 경계한다. 오히려 부정적이다.
현직 공무원인 저자는 앞으로 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풍수 바로세우기'와 '풍수의 세계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다.
유영재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44쪽 / 정가 25,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전국 서점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子平眞詮精解 우명 서상덕 역 · 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 권 69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용화세상의 주인공이신 미륵대불

여섯 대불로 오시는 금강연화 미륵 대성현



천지부모님 말씀

미륵대불님은 우리 조국의 성현이시고
우리 민족의 성현이시며
우리 나라의 성현이시니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민족의 성현을 믿어야
앞날이 밝아지고 앞길이 열리어
자손만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이치를 누가 깨달을 것인가.

"석가불 입멸 후 56억 7천만세(五十六億七仟萬歲)만에 미륵성현께서 출현하신다."는 예언록에 숨어 있는 뜻이, 이제 선후중천(先後中天)의 미륵대불님 용화세상이 돌아와 그 신비하고 오묘한 대우주의 뜻이 밝혀졌으니 만 인류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십(五十)이란 미륵대불께서 중앙무기오십토운으로 오시는 성운(聖運)을 뜻하고 육억(六億)이란 육(六)·인(人)·립(立)·일(日)·심(心)으로서 여섯 사람의 마음이 태양같이 밝다는 뜻이니 입불(立佛)이신 여섯 분의 금강연화 미륵대불님을 뜻하며 칠천(七仟)이란 은하칠성에 뿌리를 두고 신앙해 온 우리 민족에서 탄생하시는 성현을 뜻하고 만세(萬歲)란 과거 현재 미래가 일관된 세월을 뜻한다는 대자연의 이치를 어느 누가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미륵대불님 만 일 기도 도량에 오시어
인연을 짓는 기도를 하시고 용화세상에 인도환생하세요.

하늘뿌리종교 태극민족종교 인류도덕종교
미 륵 대 도 금 강 연 화 종
주소 :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567-21번지
TEL : 032)832-0626/0345 // FAX : 032)832-0346
http://www.idaedo.or.kr cafe.daum.net/idaedo